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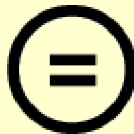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광복 이후 ‘실천예절’ 변천과정
에
관한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 전공
김 정 화

광복 이후 ‘실천예절’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주 영 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전공

김정화

인 준 서

김정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지난 60년간 우리사회의 실천예절 변천과정을 시대적 사회상황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정보매체내용분석을 통해 실천예절에 대한 정의, 사회적 상황 배경, 사회적 상황에 따른 실천예절 활동 등을 살펴보았고,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발간된 예절서를 검색하여 분류하는 양적고찰을 통해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실천예절 분야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실천예절 변천과정을 크게 예절 혼란기, 실천예절 정립기, 실천예절 발전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로 사회적 상황 배경과 그에 따른 예절활동의 전개와 예절서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실천예절 변천과정 중 예절 혼란기는 광복이후부터 1980년까지로 전통예절과 서양예절이 양립한 가운데 산업화된 도시사회에 적합한 예절의 격식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사회적 배경은 광복 후 좌·우 이데올로기 이념대립과 한국전쟁, 경제적 황폐 그리고 1960년 이후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한 급속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예절활동은 관에 의해 제도적인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국민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예절을 여성들을 위한 교양과목의 일종으로 취급한 백과사전류의 예절서가 다수 출간되었고 그 내용도 전통예절과 서양예절이 양립하여 서로 모순된 내용이 공존하는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예절실천에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실천예절 정립기는 1981년부터 2000년까지로 전통예절을 바탕으로 서양예절을 수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실천예절로 정립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사회적 배경은 88서울 올림픽 개최, 경제적 안정에 의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방식의 다양화, 기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는 시민의

식 함양 제고를 위한 예절교육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예절교육이 확산되었고, 예절교육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예절교육단체들은 현대 도시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대적 예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 전통예절의 바탕 위에 서양예절을 적극 수용하여 실천예절을 정립하였다. 예절서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을 기점으로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는 매년 10종 이상이 발간되었다. 실천예절의 정립을 위한 예절서가 예절교육단체에 의해 발간되었고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청소년 예절서, 해외여행을 위한 국제매너에 관련된 예절서, 기업 환경 변화와 관련된 직장예절·서비스·이미지 관련 예절서 등이 발간되었다.

실천예절 발전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로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우리사회에 예절교육의 장이 활성화되어 실천예절의 저변이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회적 배경은 정보화, 세계화, 다문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 가족의 해체,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기술혁신으로 정보화기기와 문명이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예절이 필요해지고 있다. 예절활동에 있어 전국적으로 예절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있고 예절교육단체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예절교육단체에서는 예절강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절전문강사 양성프로그램과 예절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예의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예절서는 매년 20종 이상이 발간되고 있으며, 국제매너에 관한 예절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비즈니스 예절서도 시대적 추세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발간되고 있으며, 그 밖에 타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절서,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윤리에 관련된 예절서가 발간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예절의 격식이 변화하고,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예절분야에 따라 예절서의 발간추세도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절의 격식은 변화하여도 내재적 본질인 예는 효(孝)와

경(敬)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천예절 지향점도 효(孝)와 경(敬)을 바탕으로 하여 실천예절의 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향후 실천예절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절교육에 있어 격식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본질인 ‘경(敬)’에 충실하여야 한다. 예절은 실천에 의미가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실천에 한계가 있다. 관주도로 예절교육이 전개되었던 예절혼란기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것은 사람위주가 아닌 정부시책을 위한 예절활동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예절의 본질인 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특정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예절을 강조할 때 사람들의 자발적인 실천에는 이르지 못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예절교육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예절의 외형적인 활동범위를 넓혔다면 앞으로 좀 더 심층적인 내적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예절교육단체의 예절교육내용을 통일해야 한다. 실천예절이 정립될 때 현대생활에 적합한 예절의 격식을 갖추게 되면서 예절단체들이 호응하여 통일된 모습을 이루었지만 근래에 와서 예절교육단체가 전국적으로 산재하게 되면서 1990년대에 비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예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예절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내용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체계화되면 예절강사들의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예절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제도적인 차원에서 예절교육단체들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예절교육현장의 현실은 전국적으로 예절교육의 장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관의 지원여부에 따라 예절교육의 질이 차이가 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바른 인성을 위한 예절교육에 있어 전 국민에게 고르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바른 예절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정보화시대와 같이하는 새로운 시각의 예절서 발간이 필요하다. 정보화시대에 익숙한 세대들을 위하여 디자인과 내용, 전자책 형태의 보급을 통해서 예절서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이 또 다른 예절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예절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가정 내 예절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상황에 의해 예절교육의 주체가 가정에서 사회제도로 변화하였지만, 예절은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훈련하여 습관화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실천 가능한 것으로,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행하는 사회교육으로서의 예절교육은 한계가 있다. 이에 효과적인 예절교육을 위해서 가정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간의 예절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남북한은 오랜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남측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은 예절문화를, 북측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전개해온 예절문화를 지니고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타협 없이는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만약에 서로의 예절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급격한 상황변화를 맞는다면 우리사회는 제2의 예절혼란기를 맞을 수도 있다. 같은 민족으로서 다른 격식의 예절을 행한다면 서로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불신으로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남북한의 교류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절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를 세우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이질문화권에서 우리사회에 편입된 이주민들을 위한 예절·문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예절문화를 올바르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는 문화의

차이는 사회적응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는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제도권과 예절교육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아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연구 방법	3
1.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2. 연구의 한계점	6
3. 용어의 정의	6
III. 실천예절 변천과정	9
1. 예절 혼란기	9
1) 사회적인 배경	9
2) 예절 활동	13
3) 예절서	40
2. 실천예절 정립기	44
1) 사회적인 배경	44
2) 예절활동	51
3) 예절서	72
3. 실천예절 발전기	75
1) 사회적인 배경	75
2) 예절 활동	83

3) 예절서	94
IV. 요약 및 결론	96
1. 요약	96
2. 결론	100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예절 혼란기의 사회적 배경	13
<표 2> 관 주도 예절활동과 주관기관	18
<표 3> 예절 혼란기의 예절활동	39
<표 4> 예절 혼란기 예절서 발간 수.....	40
<표 5> 예절 혼란기에 발간된 백과사전류 예절서	44
<표 6> 실천예절 정립기의 사회적 배경	51
<표 7> 실천예절 정립기의 예절활동	71
<표 8> 실천예절 정립기 예절서 발간 수	75
<표 9> 취업외국인 현황	78
<표 10>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80
<표 11>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현황	80
<표 12> 실천예절 발전기의 사회적 배경	82
<표 13> 예절교육기관 지역별 분류	90
<표 14> 예절자격증현황	91
<표 15> 실천예절 발전기의 예절활동	93
<표 16> 실천예절 발전기 예절서 발간 수	94
<표 17> 실천예절 변천과정	99
<표 18> 연도별 예절서 발간 수	100

그 립 목 차

<그림 1> 절량농가 이농 짐고	10
<그림 2> 다리미질을 하는 동덕여대 동인재 예비주부	27
<그림 3> 광주학생헌장선포대회광경	30
<그림 4> 학원 정화 운동에 나선 경기 중고생들	30
<그림 5> 여성교육의 장-예지원	31
<그림 6> 예지원 주최 ‘재일동포2세 숙녀위한 세미나’	31
<그림 7> 전통생활예절 맥잇기 혼신, 강영숙씨	31
<그림 8> 예절 전도사, 김득중씨	32
<그림 9> 평생교육 광경	37
<그림 10> 실천국민예법	40
<그림 11> 현대여성생활전서 제8권, 『예절』	41
<그림 12> 신태민 인터뷰	42
<그림 13> 현대라이브러리	43
<그림 14> “서울개최”에 환성 올리는 한국대표단	46
<그림 15> 왜들 이럴까...정원식 총리의 모습	50
<그림 16> 주저앉아 하는 큰절 대신 무릎을 꿇고 하는 절	56
<그림 17> 전북도내 향교의 일요학교	56
<그림 18> 청학동 예절캠프	57
<그림 19> 예절 공익광고: 예절교육의 요람은 언제까지나 가정입니다.....	60
<그림 20> ‘관광예절’ 하나 때문에	62
<그림 21> 전화예절 공익광고	64
<그림 22> ‘컴퓨터통신 예절’ 거리 캠페인	66
<그림 23> 조상의 얼·뿌리 되살린다	68

<그림 24>	올바른 전통예절	68
<그림 25>	차례상	68
<그림 26>	민속놀이	68
<그림 27>	우리의 전통예절	72
<그림 28>	우리의 생활예절	73
<그림 29>	예절학	73
<그림 30>	셋별이랑 한별이의 사회예절 배우기	73
<그림 31>	해찬이 학교예절 배우기	73
<그림 32>	예론	73
<그림 33>	해외경험 담은 책	74
<그림 34>	글로벌에티켓을 알아야 비즈니스에 성공 한다	74
<그림 35>	직장예절	74
<그림 36>	인터넷 악플 없는 대한민국	86
<그림 37>	서울메트로 지하철 휴대전화예절	87
<그림 38>	청학동에서 전통문화교육	88
<그림 39>	부모님과 함께 예절교육	92
<그림 40>	시립도봉노인복지관 노인들의 예절지킴이활동	92
<그림 41>	이슬람의 에티켓과 금기	94
<그림 42>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	95
<그림 43>	매너골프로 승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95
<그림 44>	와인레스토랑 이용 에티켓	95
<그림 45>	e시대의 정보통신윤리	95
<그림 46>	청소년예절교육	95
<그림 47>	실천예절 변천과정	96

I. 서론

예절은 내재된 보편성인 도덕적 규범은 변함이 없으나 외재적으로 표현되는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사회에서의 예절은 지난 일세기동안 급변하였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산업구조와 사회구조가 바뀌었고, 생활양식이 달라졌다. 가정과 일터가 한 공간에서 공존하였던 전통사회에서는 소속 공동체 안에서의 예절 실천을 위해 개인수신과 가정의례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가정과 일터는 분리되었다. 가정이 휴식처의 역할로 국한되면서 가정 내 예절이 소홀해졌고 대신 사회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 예절이 중요해졌다.

산업사회로 사회 구조가 변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예절 실천의 혼란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민족의식의 근간이며 가치관을 이루고 있었던 전통예절과 서구산업사회의 서양예절이 양립하였다. 가치관은 전통의 도덕적 규범에 속해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절은 산업사회의 예절로 변화되면서 실천해야 될 예절의 격식이 정립되지 않아 예절부재가 논의되었었다. 이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대예절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전통예절을 바탕으로 서양 예절을 수용하면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실천예절을 정립하게 되었다. 현대 실천예절의 정립과 보급에는 이 시기에 각지에서 활동하였던 예절교육단체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2011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예절 실천이 전 사회적으로 보급·확산되었고 전통 문화의 가치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단일민족으로 일컬어졌던

사회에서 다민족·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 또한 과학 발전에 힘입은 산업기술의 발달로 각종 문명이기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생활 방식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요구되는 예절 실천 분야가 새로이 생기고 있다.

예절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시대상황에 적합한 예절이 세워질 때까지는 혼란기를 겪는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분야의 예절이 요구되고 있어 혼란한 시기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을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사회에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예절을 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예절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다면 그러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시행되어온 예절분야의 연구는 유아, 청소년, 대학생, 주부 등과 같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예절의식 및 행동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주가 되어왔다. 반면 시대변화에 따른 예절의 변천상에 대한 연구는 일부 가정의례에만 국한 되어 전반적인 검토 및 분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60년간 우리사회의 급변하였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에 의해 예절분야와 예절활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예절활동을 중심으로 그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적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및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천예절활동이 나아가야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논문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천예절’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범위를 1945년 이후부터 시작한 것은 그 때부터 사회 구조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46년에도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¹⁾할 만큼 전통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농촌이 유지되고 있어서 광복이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전통예절이 지켜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광복이후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였다. 전쟁 후 혼란한 사회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농촌사회는 와해되었고 사회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1945년 광복이후 부터의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예절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천예절’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크게 예절 혼란기, 실천예절 정립기, 실천예절 발전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로 예절과 관련한 사회적 배경과 그에 따른 예절활동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절 혼란기는 광복이후 1980년까지로 정치·사회의 혼란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의 예절분야와 예절관련활동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천예절 정립기는 1981년에서 2000년까지로 정치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1) 「국토면적 60년간 6.2%늘어」 아시아투데이, 2010년 12월 7일, <http://www.asiatoday.co.kr/>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식이 고양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실천예절이 정립되면서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는데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천예절의 발전기’는 2001년에서 현재까지로 IT산업의 발달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우리사회에도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변화는 예절 실천 분야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절전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연구 방법

(1) 문헌고찰

① 단행본

실천예절에 대한 정의와 범위,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요구된 실천예절분야의 파악을 위해서는 1945년 이후 2010년까지 출간된 단행본을 양적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장서량이 많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신여자대학교 도서관 4곳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 자료 검색 창에서 ‘예’와 ‘에티켓’ 키워드로 검색된 모든 예절서를 파악하여 연도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예절서 발간 수와 종류를 살펴보았다. 종류별 분류는 주로 단행본의 서명(書名)에 의해서였다. 예절서는 대부분 예절 실천을 위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시대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예절이 서명(書名)으로 표현되므로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부록 2> 참조).

② 학위논문과 학술지

각 시대별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구조를 연구한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산업사회에서의 예절은 시민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사료되어 시민의식을 연구한 학위논문·학술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예절과 관련된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고찰함으로써 현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절과 예절교육의 실태 및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정보 매체 내용 분석

① 일간지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 쟁점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하여 예절이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일간지 기사 자료 및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국내 일간지 기사 자료 수집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는 포털사이트인 <http://www.naver.com/>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참고하였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는 뉴스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로 옛날 신문 원본 보기가 제공되는데 일간지 중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의 정보 검색이 가능하였다. 이 3곳의 일간지를 대상으로 1945년부터 1999년까지의 전체 신문 기사를 연도별로 ‘예절’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가능한 모든 기사를 참조하였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는 <http://www.naver.com/>에서 ‘예절’을 키워드로 검색한 일간지 뉴스를 참조하였다.

② 인터넷

예절교육단체의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각 단체 website를 방문하여 현재 활동내역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시기별 사회적 배경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자료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수집·이용하였다. 이 밖에도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website를 활용하였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일간지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만을 검색하였기 때문에 세 개의 일간지 외에 타 일간지에서 기사화 한 정보를 검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예절교육단체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의 website를 이용하였으나, website를 가지지 못한 단체나 website상에 활동내용을 충분히 자료화 시키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한적이었다.

셋째, 예절서를 위한 조사에서 장서량이 많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 성신여자대학교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절 서적이 그 시대의 예절서를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넷째,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쟁점을 파악하기 보다는 예절과 관련 되어 이슈가 된 시대적인 상황을 중점으로 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실천예절

예절은 예의범절을 줄인 말로 예의(禮儀)는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이며, 범절(凡節)은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를 말한다.²⁾ 따라서 예절은 사람과 사람 교류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에게 존경의 뜻을 갖추기 위하여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으로 법도에 맞는 모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든 질서나 절차를 말한다. 예절은 원활한 공동 생활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 양식으로 일상생활의 몸가짐으로부터 집단적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의 일정한 범식³⁾을 의미한다. 예절은 개개인의 행위로 나타나 실천될 때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기초적인 질서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고 여유 있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예절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예절의 실천적인 의미가 강조되면서 예절과 실천이라는 단어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1955년 국민도의연구회에서 편찬한 『실천국민예법』이 실천예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예절교육단체인 한국전례연구원에서 1986년 9월부터 월간지인 『실천예절』을 발간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1997년 『실천예절개론』을 발간하면서 예절강사들과 예절관련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실천예절’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예절’용어로 동양예절과 서양예절이 접목되어 현대사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발전된 현대적 예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천예절’용어를 현대적 예절이 정립되는 시기인 1980년대부터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모든 예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천예절에는 공통예절, 생활예절, 의식예절이 포함된다.

2) 공통예절

공통예절은 모든 예절의 격식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예절로 위계와 질서, 공손한 자세, 인사법, 그리고 예절의 방위와 상하석의 기준 및 좌석배치예절을 포함한다.

3) 생활예절

3) 임희규, 「생활예절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창간호. 1994, p.219.

예절은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성 사회계약적 생활규범(慣行性 社會契約的 生活規範)이다.⁴⁾

생활예절에는 행하는 대상에 따라 개인예절과 대인관계예절이 있고 행하는 내용에 따라 언어예절, 행동예절, 음식예절, 복장예절이 있다. 또한 행하는 장소에 따라 가정예절, 직장예절, 학교예절, 사회예절로 나눌 수 있다.

4) 의식예절

예식절차가 도식화(圖式化)된 의례예절로 가정의례, 사회의례, 국민의례, 국제의전 등이 있다.

4) 김득중, 『알기쉽게 풀이한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88. p.5.

Ⅲ. 실천예절 변천과정

1. 예절 혼란기

예절 혼란기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80년까지로 전통예절과 서양예절이 혼재하여 산업사회에서 행해져야 할 예절의 격식이 바로 서있지 않아 예절 실천이 어려웠던 시기였다.

1) 사회적인 배경

1946년 4월 1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2면에는 해방 후 처음 맞는 봄을 노래하고 있으나 1면에는 ‘쌀·쌀·쌀! 쌀이 어떻게 밥이 되나’라는 칼럼에서

“족식(足食)이 못 되는 지라, 예절(禮節)이 차려질 도리(道理)가 없어서 야단들이다.”⁵⁾

라고 하여 쌀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서민의 애환을 그리고 있었다. 최대다수의 근로층(勤勞層)이 기아선상을 헤매고 있고 먹을 것조차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1946년의 이러한 사정은 그 뒤 한국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도시로의 인구가동은 이 당시에도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산업화에 따른 서구의 도시화 과정과는 다른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제적 인

5) 동아일보, 「쌀·쌀·쌀! 쌀이 어떻게 밥이 되나」, 1946년4월1일, 2면.

내용에 언급된 “족식(足食)”은 《관자(管子)》에서 인용된 것이다. 《관자(管子)》 〈목민편(牧民篇)〉에서 관중은 《창고실즉지예절 의식즉즉지영욕(倉庫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의식이 갖추어지면 영욕을 안다》고 했다. 이는 백성은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예의나 체면, 법 따위를 알게 된다는 말로 이 당시 우리의 사정이 의식(衣食)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빗댄 기사이다.

플레이의 악순환, 정부의 유명무실한 중농정책 등으로 인하여 재산이 맞지 않는 농업과 황폐한 농촌을 등지고 모여든 과잉 인구, 그리고 북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과 한국전쟁으로 생긴 많은 이재민들이 일시에 무질서하게 모여든 도시화였다. 1950년대에 춘궁기를 견디기 힘들었던 농민들은 생계를 찾아 도시로 이주해 유랑하였다.

절량농가의 실태

내무부에서 전국 경무를 동원하여 조사한 농촌실태조사결과를 보면 곡가저락(穀價低落)으로 인한 농촌의 불경기와 징병징용(徵兵徵用)등으로 인한 노동력부족으로 지난 4월말 현대 총 농가수 2,058,404호중에서 74,354호 371,812명이 이농하여 도시로 집중하였으며 부채정리와 민수물자(民需物資) 고가공과금 다액실직(高價公課金多額失職)등의 관계로 452,284호 2,158,964명의 절량농가가 있어 농촌은 극도의 파멸상태라 아니 할 수 없는 현실이라 시급한 구호책이 요청된다고 관계부처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⁶⁾



<그림 1> 「절량농가 이농 점고」
(출처: 경향신문 1954년4월9일)

이런 절량농가(絶糧農家) 농민들의 도시 이주는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인 1960년대 중반까지 생계를 찾아 도시로 유랑·이주한 이들은 대부분 생계를 보장할만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였고, 사회조직에 편입 흡수될 능력도, 여유도 없었다.⁷⁾

이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에 67달러, 1960년에 79달러⁸⁾에 불과하였고 해마다 찾아오는 춘궁기(春窮期) 보릿고개에 사람들의 생존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다. 의식주조차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던 배고픈 시기에 사람들은 생활 속의 예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적

6) 경향신문. 「절량농가(絶糧農家)의 실태」, 1954년6월6일, 3면.

7) 이정규, 「시정을 위한 시민의식의 함양」, 특집 시정과 시민, 1969, pp.28~29.

8) 통계청, 「통계로 본 8.15광복 이후 경제·사회 변화상」, 2006, p.8.

인 도의를 찾고자 하는 문교부의 활동이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 올 수는 없었다.

196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으로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산업의 발전은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농촌의 젊은 층들이 도시로 유입되었다. 이들 이농인구들은 대부분이 젊은 남녀들이며 농촌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연령층이었다.⁹⁾ 이들은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농촌의 부모세대와는 분리되었다. 도시는 팽창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떠난 농촌은 쇠하기 시작했다. 전통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전통의 가치나 예절을 전승하던 농촌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지방에 남겨진 노부모들은 직장생활에 바쁜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가치기준을 자녀와 도시생활에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도시는 인구증가의 양적 팽창은 있었지만 질적으로는 기반시설조차 미비 되어 있어 도시민의 삶은 여전히 궁핍하였다. 또한 전후 출산률 증가에 의한 베이비붐세대가 학교를 다니던 시기로 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던 시기였다. 교사들은 지식을 전달하기에도 벅찬 학교 환경에서 예절을 가르치기 힘들었고 교과목에도 예절에 관한 것은 도외시하면서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도, 자각도 갖지 못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전통의 예절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예절교육은 단지 제도권에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하여 행해지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¹⁰⁾했다. 불과 17년 전 1950년대 세계 최빈국으로 무상으로 받던 해외 원조가 유일한 자본 공급원이었던¹¹⁾ 우리나라가 100억 달

9) 김대환, 「도시화시대의 시민의식과 시민도덕」, 특집 도시개발과 새마을 운동, 1972, pp.25-26.

10) 경향신문, 「강행군의 대드라마,메이드 인 코리아 100억불」,1977년12월22일 3면. 16면.

11)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대외원조 현황 및 정책 방향」,2008, p4.

리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였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기 시작하였다. 내핍과 근면함으로 일구어낸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였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아쉬운 새 시대의 예도(禮道), 낙제점의 예절

밥술이나 먹게 되었다는 오늘날 오히려 예절부재(禮節不在)의 풍토가 심화(深化)되어가는 듯한 세태는 “예의가 풍족한 다음에야 예절을 차리게 된다”는 격언(格言)을 허언(虛言)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경제입국(經濟立國)에 정신이 쏠리는 통에 정신면은 황폐해져가고 있는 것인가. 아무튼 “동방예의지국”이었다는 말을 들먹이기 쑥스러운 요즈음이다.¹²⁾

1970년대 들어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그 인구의 70%이상이 전입 시민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시민의식은 초보단계였다.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은 공익과 공적관계를 전제한 공동체의식보다는 사익이나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의식의 성격이 강했다.¹³⁾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가진 한국인에게 낮은 타인의 집단인 도시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공동체로의 소속을 의미했다.

사회가 발전되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함양과 공동체로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예의 지킴이 필요하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예절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관 주도도로 행해졌던 계몽식 예절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12) 동아일보, 「아쉬운 새 시대의 예도(禮道)」, 1977년3월10일, 5면.

13) 정성호, 「한국인의 시민의식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41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2002, p.150.

<표 1> 예절 혼란기의 사회적 배경

사회적 배경 특징	사회적 현상
-좌·우 이데올로기 이념대립 -한국전쟁 -한국적 도시화	-정치적·사회적 혼란 -경제황폐 -대외원조 -절량농가 이농 -한국전쟁 이재민 도시집중
-경제개발정책 -산업화 -도시화	-경제성장 -농촌 고학력 젊은층 이농 -농촌사회 붕괴 -도시 핵가족화 -공동체의식 부족

2) 예절 활동

(1) 도의교육위주의 예절 활동

① MRA운동과 도의교육 연구회

1950년대까지의 예절활동은 주로 제도권인 학교에서 도의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절이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때문에 도의과목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찬반양론이 제기되었을 정도로 사회제도적인 예절교육의 인식이 낮았다.

1950년대에 도의교육과 관련되어 MRA운동¹⁴⁾이 사회지도층에 보급되고 있

14) 제1차세계대전 후 프랑크푸르크맨박사가 제창, 절대정직(絕對正直), 절대순결(絕對純潔), 절대무사(絕對無私), 절대박애(絕對博愛) 4개조항을 신조로 하고 있다. MORALRE=ARMAMENT의 약자로 정신적 도덕재무장운동이다.

었다.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도덕재무장운동’인 MRA회의에 우리나라 대표가 참석하고 있었고,¹⁵⁾ 1957년에는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인사들이 국회에서 귀국보고¹⁶⁾를 할 정도로 과급되고 있었다. 이 운동은 기독교계의 운동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현실적인 예절 실천과는 거리가 있었던 정신적인 도덕운동이었으나 사회 지도층 사이에 도의재건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1957년 문교당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각층 문화인을 망라해서 도의교육 연구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도의 과’를 학교 과목에 신설하고자 하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예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일반적으로 예절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도의 과(道義科) 설치시비

금년 십 월에 실시되는 제5회 교육주간의 표어는 “교육으로 도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도의 과”를 학교과목에 신설하자는 논의 있고 이에 대하여 찬부양론이 있다.

일제시대 교육에는 대개 수신이란 과목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이념 하에서는 도의 교육은 교육 전체 면에서 시행할 것이요. 도의과목을 특설하는 것은 도의교육을 그 특수과목에서만 행하고 다른 과목에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관념을 주게 하는 것이라 하여 이 과목을 폐지하여 버렸다.¹⁷⁾

일부 논자(論者)들은

도의의 양양(昂揚)은 연구를 해야만 하는가. 도의를 학술처럼 생각한다면 이 이상 가는 년센스가 또 있을까, 연구하지 않아도 되는 뻔 한 것이 아닌가.¹⁸⁾

15) 동아일보, 「최창순 전 사회부장관등이 한국대표로 참석」, 1952년10월30일, 2면.

전사회부 장관 최창순씨와 변홍규박사 및 장명원씨가 콜롬보에서 개최하는 “도덕재무장” 아세아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고 있었다.

16) 동아일보, 「MRA대표 국회서 귀국보고」, 1957년4월17일, 1면.

MRA아세아대회에 출석한바있던 윤성순의원이 작심육일본회의서 귀국보고를 행한바 있다.

17) 경향신문, 「도의과(道義科) 설치시비(設置是非)」, 1957년10월7일, 4면.

18) 경향신문, 「도의와 연구」, 1957년9월20일, 1면.

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예절과목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논의에 그쳤다.

도의교육(道義教育)을 ‘도의(道義)’라는 추상적인 과목으로 하지 말고 ‘예의범절(禮儀凡節)’이라는 구체적인 과목으로 편성하자.¹⁹⁾

이와 같이 도의교육을 하고자 하는 당국의 시도는 있었지만 예절교육까지는 전개되지 못하였다.

② 의례규범 제정 시도

1950년대에 6·25전란으로 파괴화된 경제 환경에 비해 과소비로 흐르는 가정의례의 경제적 지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생겨난 집밖에서의 의례화가 진행됨에 따라 혼례 시 고급요정 등에서의 피로 연등 과도한 허례허식이 문제였다. 이와는 반대로 농촌지역은 상·제례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 상·제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그 절차나 경제적 지출이 농촌의 삶을 어렵게 하였다.²⁰⁾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례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의 의례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에 결혼식간소화도모를 위한 의례준칙 제정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²¹⁾ 1955년에는 각계유지들의 발기로서 혼상제례준칙제정위원회(婚喪祭禮準則制定委員會)를 결성하였고²²⁾ 보건사회부에서 의례규범(儀禮規範) 제정을 시도²³⁾하였다. 그러나 각계의 제정의도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 당시 혼인식과 상제례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가정의례를 주도하는 집안의 어른인 노인들의

19) 경향신문, 「앞의 기사」, 1957년10월7일, 4면.

20) 유재일, 「의례규범에 대한 문제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1957, pp.62~69.

21) 경향신문, 「결혼식간소화도모 의례준칙안협의중」, 1954년10월22일, 2면.

22) 홍춘미, 「가정의례(혼상제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pp.42~43-3. 동아일보, 「단상단하」, 1955년11월 8일, 1면.

23) 손창환, 「의례규범제정의의」, 국회보, 1958년3월, p.56.

반발 등으로 사회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혼상제 폐합리화

의례규범 초안 공청회 개최

...(중략)...많은 사람들이 한국고유의 습성 또는 선친에 대한 경술 등을 지적하였고 개중에는 분개하는 사람까지도 있었다....(중략)...²⁴⁾

의례규범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전통가정의례 중 하나인 관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²⁵⁾인데, 관례는 이후 제정되는 가정의례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²⁶⁾

③ 여성교양교육 필요성 대두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에게는 남성과는 다른 예절규범이 존재하였다. 여성에게는 내외법이 적용되어 대외적인 활동이 제한되었고 가정에서도 복종과 순종이 강조되었으며 교육의 기회도 제한되었다. 여성은 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예의범절과 살림에 대한 교육기회가 주어졌을 뿐으로 남성과 같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여성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²⁷⁾

그러나 1948년 제정헌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이 천명된 후 남녀평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이 실질적인 평등주의로 변화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²⁸⁾. 한국전쟁은 여성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고, 전통사회에서 지켜야만 했던 윤리적 질서를 뒤흔든 혼란을 겪게 했다. 그 와중에 물밀 듯 들어오는 서구문화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였고 여성들의 교

24) 동아일보, 「혼상제 폐 합리화 의례규범초안공청회 개최」, 1957년2월3일, 3면.

25) 손창환, 위의 논문, 국회보, 1958년3월, p.56.

손창환보건사회부장관은 “관례는 사실상 폐기된 하나의 옛이야기에 불과하므로 의례규범에서 제거하였다”고 기고하고 있었다.

26) 관례는 1999년 진전가정의례준칙에 ‘성년례’라는 명칭으로 포함되기까지 30년간 우리나라 가정의례법에서 사라졌었다.

27) 동아일보, 「여성 新教育 ‘100년의 成長」. 1986년4월4일, 7면.

1930년대 까지도 경기도를 비롯, 충북, 충남, 전북, 전남, 황해도등 6개도의 경우 여성문맹률이89.5%이었다. 그러나 1960년의 국제조사보고에서는 13세 이상 여자 인구 중의 문맹률은 39.8%로 감소하였고 70년에는 17.6%로 감소되었다.

28)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 2007, pp.14~15.

육률도 증가하면서²⁹⁾ 여성들이 새로운 시민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당시 ‘여성교양’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은 지식과 교양이 부족하여 문화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지식과 교양을 흡수하고 연마하여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⁰⁾ 그러나 당시 교양교육의 주 대상은 교양서적을 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정한 이상의 교육을 받은 중상층의 여성이었고, 이들은 이후 여성들의 예절교육을 주도하는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다.

(2) 관 주도 예절활동

1961년 5.16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가가 권위주의적 발전연합을 형성하고 그에 입각해 사회와 시장의 영역 속에 깊숙이 개입하여 급속한 자본축적과 산업화를 이루는 ‘국가주도’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³¹⁾.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근대적 국가 건설과 생산력 발전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고, 정권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일상생활의 변용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근대화 추진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의 일상생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고³²⁾ 이에 예절교육은 정부의 주도하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몽식으로 전개되었다(<표 2> 참조).

29) 동아일보, 앞의 기사, 1986년4월4일, 7면.

1930년대 까지도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여자가 경기도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황해도등 6개도의 경우 89.5%나 됐다. 그러나 1960년의 국세조사보고에서는 13세 이상 여자 인구 중의 문맹률은 39.8%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고등학교 여학생수를 보면 52년에 19,259명(남학생 104,368명)이었는데 비해 60년에는 66,900명(남학생 197,044)으로 증가하였다.

30) 김복순, 앞의 논문, 2007, p.18.

31) 고원, 「박정희정권 시기 가정의례준칙과 근대화의 변용에 관한 연구」 담론 201 9(3), 2006, p.204.

32) 고원, 위의 논문, 2006, p.204.

<표 2> 관 주도 예절활동과 주관기관

No,	예절활동	년도	주관기관
1	국민예절기준 마련	1963	문교부
2	예절의 달 제정	1965	문교부
		1967	국무회의 의결
3	가정의례제정	표준의례	1961 재건국민운동본부
		가정의례준칙	1969 대통령령
4	국민의례규범과 생활예절발간	1971	문교부

그러나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예절 교육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국가 기관의 정책 보조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국민의 부정적 시각으로 적극적인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로 1970년에 ‘성년의 날’을 제정하고자 할 때 각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기성세대의 어떤 야심에서 온 것은 아닌가” 주정일 (전 보사부부녀국장)³³⁾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나 국가의 현실적인 안보 및 교육면에서 볼 때 청년 계층을 동원해서 행사를 가질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무슨 날을 정한다는 의도에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부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색채를 띠고 청년계층을 동원할 경우 연령계층간의 대립현상이나, 약용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³⁴⁾

국가 기관과 지식인들 특히 학원가는 독재정치와 빈부격차, 산업화의 모순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정부의 시책에 그 정치적인 저의를 의심하

33) 동아일보, 「성년의 날 4월19일 제정의 의미」, 1970년3월13일, 7면.

34) 경향신문, 「성년의 날 시비」, 1970년3월16일, 3면.

던 시기였다.³⁵⁾

① 국민예절기준(國民禮節基準) 마련

1963년에 문교부에서 바르고 품위 있는 예절생활을 전 국민에게 보급시키기 위한 ‘예절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민예절기준마련-문교부서 도의과목에 넣어 보급키로

문교부는 그동안 국민예절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예절기준 심의위원을 구성, 충분한 연구와 심의 끝에 우리나라에서 고래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을 살리고 현대인의 감각에도 들어맞는 예절기준을 만들어내었다. 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 예절기준은 (1)기본예절 (2)의복과 식사예절 (3)혼례예절 (4)상례 (5)공동생활 등에 이르는 생활전반에 걸친 예절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개선과 생활간소화에도 중점을 두고 허례허식을 버린 이 예절기준은 앞으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도의과목으로 넣어 가르치는 한편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국민운동으로 보급시킬 방침이다.³⁶⁾

국민예절기준은 자세, 동작 등 기본예절에서부터 의복과 식사예절·혼상·제례·남녀교제·사교댄스 등 공공생활에 이르기까지 가정의례와 실천예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기준안은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서구의 에티켓도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를 하다 보니 내용상의 모순을 내포하기도 하였다. 미혼 남자를 ‘수재·도령’, 기혼 남자는 ‘선비’로 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한 내용이었고 에티켓의 무리한 도입으로 일부에서는 “양복입고 갓 쓴 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양복에 갓 쓴 격 안될까-예절기준안을 검토해 본다.-

문교부에서는 예절기준이라는걸 만들었다. 각계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서 만들었다는 이 예절기준을 보면 여러모로 한국(韓國)양(洋)풍(風)의 좋은 점을 살리느라고 애를 쓴 것 같지만 일부에서 “양복입고 갓 쓴 거”같은 인상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중략)... 5개분

35) 김정화, 「성년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13-2, p.36.

36) 경향신문, 「국민예절기준 마련」, 1963년2월1일, 7면.

과로 나누어져 마련된 기준은 각분과 연결에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³⁷⁾

기준안은 한식(韓式)과 양식(洋式)을 모두 소개하고자 하였고 이는 결국 환경에 따라 고유하게 발전된 이질적인 문화인 우리나라 예절과 서양 예절이 혼재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치관 혼란의 일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② 예절의 달 제정

1965년에 문교부는 땅에 떨어진 예절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도의 양양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그 첫 사업으로 4월 한 달을 ‘예절의 달’로 정했다.

국가원수가 뉴스화면에 나타나면 전원기립 경의 표하게...

문교부는 4월을 「예절의 달」로 정하고 학생·공무원·일반사회인을 망라한 범국민적인 예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문교부는 총무처, 공보부, 내무부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뒷받침을 얻어 국기 및 국가원수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시키기로 했다.

극장에서는 국기나 국가원수가 뉴스화면에 나타나면 관중들은 전원기립, 또는 박수 등으로 경의를 표하도록 아나운서를 통해 지휘키로 했다.

이 예절의 달 운동을 통해 문교부는 ①국기에 대한 존엄성 강조 ②국가원수에 대한 예절 지도 ③아침인사교환여행 ④공중도덕업수 ⑤고운말, 바른말하기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예절되찾기 운동을 벌인다.³⁸⁾

예절을 되찾기 위한 운동의 취지는 좋았지만 그 중심에는 국기 및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이 강조되었다.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한 정부로서는 국민통솔을 위한 강한 지도력을 원하였고 그를 위해 예절의 달을 이용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 극장에서 국기나 국가원수가 뉴스화면에 나타나면 관객들은 전원기립, 박수로 경의를 표하도록 한 것은 국민들의

37) 경향신문, 「양복에 갓 쓴 격 안될까-예절기준안을 검토해 본다.」, 1963년2월11일, 3면.

38) 경향신문, 「국가원수가 뉴스화면에 나타나면 전원기립 경의 표하게.」, 1966년3월28일, 7면.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문교부는 28일 오전에 예절의 달 계획을 발표했다가 오후에 그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³⁹⁾하는 등 예절의 달 제정의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따라서 문교부의 적극적인 ‘도의 양양운동’에도 불구하고 예절운동의 실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1967년 3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매년 4월을 ‘예절의 달’로 설정기로 의결했다.

매년 4월 예절의 달로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4월 ‘예절의 달’로 설정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기간 동안 지도계몽사업으로 민주시민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①범국민적 운동의 전개 ②각 기관의 자발적인 운동전개 ③각 학교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하도록 했다.⁴⁰⁾

이 의결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1966년과 마찬가지로 국기와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지도를 중점적으로 지도·계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예절의 생활화 촉진-범국민운동 벌여

문교부는 ‘예절의 달’인 4월을 맞아 대대적인 범국민운동을 벌여 국민생활의 기본이 될 예절의 생활화를 촉진기로 했다. 31일 문교부가 밝힌 이번 제3회 ‘예절의 달’ 행사내용을 보면 정부 각 기관 및 각급 학교가 다같이 ①국기에 대한 존엄성 강조 ②국가원수에 대한 예절지도 ③바른말 쓰기에 중점적인 지도계몽을 하는 것 등이다.⁴¹⁾

이후 매년 4월을 ‘예절의 달’로 정하고 국민계몽운동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계몽운동에 냉담하였다. 동아일보 3면 「장침단침」에는

사월을 예절의 달로... 올해도 범국민운동...그달 지나면 또 그 퍽, 인간성 먼저 고칩시다.⁴²⁾

라고 하면서 일회성의 발표에 그치는 예절의 달 운동을 비난하였다.

39) 동아일보, 「휴지통」, 1966년3월29일, 7면.

28일 오전에 발표했던 예절의 달 설정계획을 오후에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동기는 순수하나 자칫하면 국민의 오해를 살 염려가 있다’였다.

40) 경향신문, 「매년 4월 예절의 달로」, 1967년3월29일, 7면.

41) 매일경제, 「예절의 생활화 촉진」, 1967년3월31일, 3면.

42) 동아일보, 「장침단침」, 1968년3월23일, 3면.

③ 가정의례 제정

5·16 이후 정부는 당시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정의례의 실태를 바로잡고자 가정의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근대화정책과 경제개발에 주력하면서 국민들에게 내핍과 근검을 강조하게 되고 가정의례도 대폭 간소화하여 1961년 표준의례가 제정되었고, 1969년에는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었다.

표준의례는 1961년 혁명 이후 생활을 실질적이고 건실하게 하여 국가 재건에 힘을 기울이고자 표방하고 만든 것이었다. 그 내용은 약혼식과 잔치, 납폐, 청첩장, 혼인잔치를 폐지하고, 혼례식은 주례에 의해서 예식장에서 거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상례는 성복제, 명정, 노제, 졸곡, 상식, 삭망, 소상, 대상, 담제를 폐지하고, 3일장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상주 및 조객은 곡을 안 한다고 명시하였다. 제례는 2대 봉사를 기준으로 하고 제복은 평상복으로 하며 제수는 생전에 좋아하시는 것을 제물로 쓰거나 꽃을 제물대신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제례 절차는 단헌 단배하고 묵념한 후 다시 단배하고 사진으로 신주를 대신한다고 하였다.⁴³⁾

표준의례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가정의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전통적 가정의례를 서양식으로 표준화하여 범국민적 생활규범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고 그를 위해서 기존 전통사회의 가정의례의 개념을 크게 탈피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가정의례준칙은 1969년 1월 법률 제 2079호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3740호로 발포되었다. 2개월 후인 1969년 3월 5일 대통령령고시 제15호에 의한 전문(全文) 71조 부칙의 '가정의례준칙'이 선포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가정의례준칙의 목적은 기존의 가정의례절차를 경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대폭 간소화하는 것과 중국의 유교적 이념의 영향을

43) 홍춘미, 앞의 논문, 1970, pp.43-3~43-4.

받은 전통적 가정의례를 서양식으로 표준화·근대화하여 범국민적 생활규범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⁴⁴⁾

가정 의례준칙의 체계 구성을 보면 4개 4장(障), 71개 조(條)로 구성 되어 있으며 4개장은 총칙 혼례 상례 제례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장속에는 하위 조항들이 규정 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2장 혼례는 약혼, 혼인, 혼인초청, 혼례식장소, 주례, 혼례복장, 혼례 꽃, 혼례식순,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혼인신고, 신행을, 제3장 상례는 임종, 수시, 발상, 상제, 복인, 호상, 부고, 입관, 염좌, 명정, 성복, 상복, 조문, 장일, 장사, 장지, 천광, 횡대, 영결식, 운구, 하관·성분, 위령제, 첫 성묘 탈상을, 제4장 제례는 기제, 절사, 연시제, 성묘로 구분 하여 각각의 대상일, 시제, 기제, 주 참가자, 행사, 신위, 지방, 축문, 제수, 제복, 제식 절차를 규정 하고 있었다.

준칙의 각 조항들은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에 관한 기준과 양식들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었다. 준칙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 ▲혼례는 ①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고 약혼식은 하지 아니한다.
- ②혼례식 청첩장은 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혼례 답례품과 피로연은 하지 아니한다. ▲상례는 ①초혼과 사자밥은 하지 아니한다. ②발상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혀 머리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곡은 삼간다. ③부고는 서식을 간결하게 한글로 한다. ④입관은 제례의 염습절차를 없애고 간소하게 한다. ⑤장례는 5일 이내에 지내도록 한다. ▲제례는 ①제례는 기제·절사 및 연시제등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②기제의 대상은 부모·조부모와 배우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절사의 대상은 직계조상으로 한다. ④연시제의 대상은 부모·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⑤지방 및 축문은 한글로 새로 제정한다.⁴⁵⁾

1969년 보건사회부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첫째, 복잡하고 허례허식으로 치우친 가정의례를 국민 모두가 쉽게 알고 실행하게

44) 강선미, 「한국 혼인의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26~32.

45) 매일경제, 「가정의례준칙선포」, 1969년3월5일, 3면.

하여 어느 사람도 어색한 느낌이 없으면서 간편하고 정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새 기준의 설정을 기하고자 하며, 둘째, 지역이나 씨족에 따라 다양각색이던 지금까지의 가정의례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종파별로 시행되고 있는 종교의 예식까지도 그 기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범국민적 생활규범을 도출하고, 셋째, 합리성과 능률 위주의 현대적인 생활에서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엄숙하고 경건하여야 할 가정의례가 지나치게 간소화 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 선을 제시하는 것.⁴⁶⁾

이라고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의례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그 정신이 중요한 것으로 옛 의례에 따르는 고루와 낭비가 빨리 고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⁴⁷⁾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에도 반영하였다. 1965년 2차 교육과정 이후에 사회과 교과서에는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혼상제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었고 단지 형식과 체면을 차리기 위한 허례허식의 행사임을 강조하고 있었다.⁴⁸⁾

정부는 전근대성은 낭비와 비효율이고, 근대성은 근검절약과 합리화라는 논리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영역 속에 깊숙이 개입하여 내핍과 근검을 생활화하도록 통제하고자 하였다. 가정의례준칙도 이런 선상에서 가정 내의 사적 영역을 실정법령으로 규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일상생활영역에 깊숙한 개입과 정치화를 의미했다.⁴⁹⁾ 가정의례준칙은 1973년 이후 「가정의례법」을 제정·강화하면서 처벌 조항까지 만들어 법률적으로 강제할 정도로 잘 지켜지지

46) 보건사회부, 「가정의례해설」, 1969, pp.20-21. (고원, 앞의 논문, 답론 201 9(3), 2006, p.202, 재인용)

47) 경향신문, 「가정의례준칙선포」, 1969년 3월 5일, 7면.

48) 문종필, 「초등 사회과 관혼상제 관련 내용 및 학생인식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38
1955년 1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관혼상제에 대해 ‘인간 생활에서 중대한 의식으로 쳤으며 비용도 많이 들어서 치렀다’라고 언급하여 과비용이 사회문제화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전통가정의례 (관혼상제는) 1960년 이후 사회 교과서에서 언급되지 않다가 1980년 제4차 교육과정 이후에야 사회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였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학교 교과서에 우리의 ‘孝’등 전통가치관이 배어있는 가정의례가 20년이나 실종되어 있었고 이는 우리 사회 예절교육의 실종도 더불어 가져오게 되었다.

49) 고원, 앞의 논문, 2006, pp.202~206.

않았다.⁵⁰⁾

이 후 가정의례는 산업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붕괴,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 서서히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생활여건과 소비유형의 변화로 가정 내 의례가 가정 밖의 의례로 정착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반 대중의 의식변화가 한 이유였다. 서구의 가치관인 합리주의와 물질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온 세대가 가정의례의 주체가 되면서 서구문화를 모방하여 새로운 가정의례 형식으로 변형되었다.

④ 국민의례규범과 『생활예절』 발간

새 국민의례 마련, 새학기부터 각급학교서 교육

1971년 12월 6일 문교부는 국민교육헌장이념 구현을 위해 새로 국민의례규범을 만들어 새 학기 부터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키로 했다. 이 국민의례규범은 국민교육 헌장의 이념구현을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교육시켜 가정의례준칙과 함께 범국민적인 실천을 통해 올바른 사회기풍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새로 마련된 국민의례규범은 ①예절 ②공중도덕 ③사회생활 ④가정윤리(가정생활)⑤ 개인생활(인격) ⑥국민생활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⁵¹⁾

이 의례규범은 1968년 12월 5일에 반포한 국민교육헌장(國民教育憲章)과 1969년 선포한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국민 계몽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문교부는 1972년 9월 20일 『생활예절』 서를 발간하여 각급학교를 통해 교육을 하기로 발표하였다. 정부시책의 대국민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의 예절 도덕생활운동을 학교를 중심으로 펴기로 한 것이다.

호트러진 생활 바른 기틀 잡게

문교부 「생활예절」 책 발간 .. 각급교 통해 교육 강화

50) 1980년대에 정권이 바뀌면서 가정의례준칙이 국민생활여건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데다 풍속과 예절을 법률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폐지나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면서 1999년에 폐지하게 된다.

51) 경향신문, 「새 국민의례 마련, 새학기부터 각급학교서 교육」, 1971년12월6일, 7면.

문교부는 20일 각급 학교의 예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의 규범이 되는 『생활예절』이라는 책자를 발간, 국민의 예절 도덕생활운동을 펴기로 했다. 문교부 당국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예절과 서양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예절이 복합되어 일상생활에 흐트러진 예절이 많다고 지적, 이를 정리하고 바른생활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⁵²⁾

그러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정부의 시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⑤ 여학생 생활관 교육

1960년의 4·19 이후에는 여성에게도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요청되었다. 이제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국민으로서 독재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방관하지 않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양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5·16 이후 더욱 강조되는데 사회의 번영과 쇠퇴가 가정과 직접 관련된다는 자각 하에 여성들이 실생활을 통해서 애국심을 실증해야 할 것을 강요받았다.⁵³⁾

제3공화국에서는 국가의 근대화와 발전을 우선으로 하는 시책이 강조되었고 여성은 국가 또는 국민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강조되면서 여성의 가정 내 위상이 높아졌다.⁵⁴⁾ 1965년부터는 주부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전업 주부로 등장하게 되어 1965년 ‘여원’의 기사에 필자의 직책을 가정주부라고 표기하였다.⁵⁵⁾

산업화된 사회의 핵가족에서 주부는 가정 내의 모든 일상사 및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예전의 어머니의 위

52) 경향신문, 「국민예절운동」, 1972년9월20일, 7면.

53) 김복순, 앞의 논문, 2007,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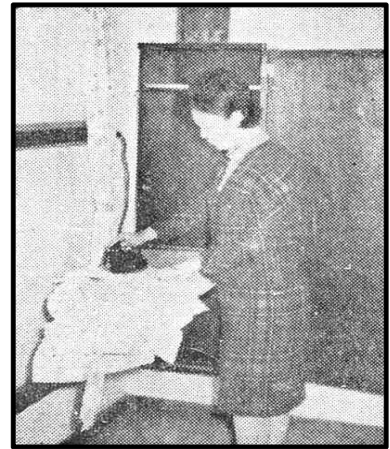
54) 매일경제, 「가정실습교육 강화, 문교부지시」 1972년5월18일, 7면.

1972년 문교부는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새마을 운동과 발맞추어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여학교의 생활관과 가정관리실을 통한 실습을 대폭 강화, 가정주부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일을 몸에 익히도록 지시했다.

55) 김복순, 위의 논문, 2007, p.45.

상을 수정하고 전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1960년대 주부는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권력의 기원이라 할 수 있었다.⁵⁶⁾

1960년대에 여성교양교육의 필요성과 미래 예비가정주부들을 위한 교양을 가르치기 위해 생활관 교육이 여자고등학교나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개설되고 있었다.⁵⁷⁾ 그러나 여학생 예절교육은 주로 가정 내에서 필요한 예절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이 당시 여성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던 시절로서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고 가정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성들의 대외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다리미질을 하는 동덕여대 동인재 예비주부」
(출처:경향신문1966년5월4일,7면)

⑥ 광주 학생 ‘생활태도확립운동’

1960년대에 예절관련 기사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학생과 교사가 주도하여 생활 속의 작은 예를 실천하자는 광주 학생 ‘생활태도확립운동’이었다.

소풍 길에 있었던 문제 학생들의 음주행위를 계기로 광주시내 각 학교 학생지도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시작한 이 운동은 고운 말 쓰기, 바른 예절 지키기, 건전한 학풍 조정 등 학생 생활의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시정하여 일제

56) 김복순. 앞의 논문, 2007. pp.45~48

57) 경향신문, 「예비주부들의 집 순례」 1966년4월27일에서 5월16일까지 격주로 7면에 서울사대 청량료, 서울여대 커티지, 동덕여대 동인재, 수도사대 사임당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주로 예절을 겸함 살림 실습 형식이었다.

하 학생독립운동에 이은 제2의 학생운동으로 발전·승화시키려 한 것이었다.

운동의 시작은 1966년 5월 6일에 광주 중·고교생들 대표가 모여 ‘생활태도 확립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면서 부터였다.

생활태도 확립 앞장..광주중고생들 결의

5일 오전 11시 광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전남학도종합체육대회식장에서 시내남녀 중고교 학생대표 45명은 학생생활태도확립운동에 앞장서서 2만 여명의 학생이름으로 자숙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학생대표 임종표(광주상고3년)군은 ①이번 경기에서 모범을 보여줄 것 ②스스로 봉사하자 ③사고발생을 막자 ④복장을 단정히 하자 ⑤바른 예절 고운 말을 쓰자고 선언했다. 이들은 학생생활태도확립운동의 실천방안을 매달 당번학교를 정해서 긴밀한 연락을 갖고 서로 좋은 실천방안을 내걸기로 하고 벽지학교와 나란히 학교운동을 항구적으로 이끌기로 했으며, 시내교장단과 학부형들도 이 운동을 적극 밀어주기로 했다.⁵⁸⁾

결의문 발표 이후 광주학생들의 운동은 문교부에 의해 전국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문교부는 이 운동을 전국 남녀 학생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각 학교에 유포하였다.

<행동 강령>

- ① 학생은 모범국민임을 자인하고 학교의 명예를 지킨다.
- ② 학생은 면학과 근로를 통한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기한다.
- ③ 학생은 예절을 지키고 명량한 생활을 이룩한다.⁵⁹⁾

광주학생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이 운동의 여파를 몰아 광주학생헌장(光州學生憲章)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그림 3> 참조).

진(眞) 선(善) 미(美) 지(智) 인(仁) 용(勇)

광주학생헌장 光州學生憲章 선포..‘바른 예절, 고운말 쓰기’ 건전한 학풍 다짐.

일찍이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로 유서 깊은 이 고장에서는 지난5일부터 학생생활태도

58) 동아일보, 「생활태도 확립 앞장, 광주중고생들 결의」, 1966년5월6일, 3면.

59) 동아일보, 「광주학생들의 ‘생활태도확립선언’ 전국운동으로 확대」, 1966년5월7일, 7면.

확립운동이 전개되어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으며 문교당국역시 이를 적극지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학생운동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온 권오병(權五柄) 문교장관은 이날 이번 운동을 지도한 문석주(19,광주농고3), 정인숙(19,전남여고3)양등 20명의 학생대표들을 표창하면서 ‘이번학생운동은 곧 거래의 운명을 가름하는 원동력이 될것’이라고 격려했다.⁶⁰⁾

<광주학생현장>

- 우리는 소박·건실하며 참된 생활을 한다. (眞)
- 우리는 자주정신으로 바르게 산다. (善)
- 우리는 밝고 고운마음으로 배움을 미화한다. (美)
-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식을 넓힌다.(智)
- 우리는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 돕는다. (仁)
-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이긴다.(勇)⁶¹⁾

이후로 전국 각지 서울, 인천, 원주, 강릉, 대전, 공주, 청주 등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정화 운동이 열렸다⁶²⁾(<그림 4 >참조).

학생운동의 지도교사들은 문교당국이 이를 적극 지원하자 운동이 순수성을 잃게 될까 우려 하였다.

학생들은 고운말 쓰기·바른 예절 지키기·건전한 학풍조성 등 학생생활의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여 사소하다고 여겨져 온 것부터 시정하여 일제하 학생독립운동에 이은 「제2의 학생운동」으로 발전·승화시키려하고 있다. 그런데 문교당국이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자 순수한 학생운동이 어용화(御用化)할 우려도 없지 않아 이를 조용히 밀어나가려던 학생 지도자사이에는 오히려 경계하는 눈초리마저 엿보이고 있다.⁶³⁾

결국 ‘학생생활태도확립운동’은 문교부 동원 학원정화운동으로 변질되면서 진정한 예절 실천 운동으로는 전개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광주학생들의 ‘생활태도확립운동’은 교사와 학생들이 생활 속의 작은 예절을 지켜야 됴 스스로

60) 동아일보, 「광주학생현장 신포」, 1966년5월10일, 7면.

61) 동아일보, 앞의 기사, 1966년5월10일,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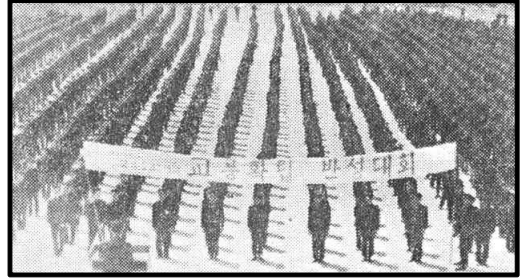
62) 경향신문, 「번지는 밝은 햇불-전국서 학생 정화 운동」, 1966년5월13일, 3면.

63) 동아일보, 「학생정신 증흥의 기치 진원지 광주서 벌인 정화운동 좌담회」, 1966년5월11일, 4면.

자각한 운동으로 예절 실천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그림 3> 「광주학생헌장선포대회광경」,
(출처:동아일보, 1966년5월10일,7면)



<그림 4> 「학원 정화 운동에 나선 경기 중고
생들」,(출처:경향신문,1966년5월13일,3면)

(3) 실천예절 교육기관 자생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관주도의 예절교육 대신 사회저변에서 시작된 예절운동이 움트고 있었다.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에 예절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절을 실천하자라는 실천예절운동의 선각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활동한 예절교육자들 중 개인으로는 한국전례연구원(원장:김득중)과 예지원(원장:강영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단체로는 서울YWCA, 전국주부교실과 성균관 여성유림회의 활동이 있었다.

① 예지원

예지원은 강영숙 원장이 1974년 9월 16일에 개원하였으며. 전통예절을 교육하고 예절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생활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수준과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한 예절교육단체였다.⁶⁴⁾

예지원-전통예절 창조적 계승 앞장-한국 여인상 정립 선도
다문화 전수, 해외동포 자녀교육도 펼쳐

64) 예지원 <http://www.yejiwon.com/>

예지원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 예절을 되살리고 계승하고 있다. (중략) 전통예절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온 예지원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예지원은 여성교육의 장으로서 한국의 전통 여인상을 정립하는데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예지원은 고도 성장의 후유증과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던 74년에 설립됐다.(중략) 예지원은 여성들의 예절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⁶⁵⁾

예지원은 사회지도층여성들을 대상으로 예지반을 열어 전통예절과 생활교양교육을 하였고 신부교육과정인 규수반을 개설하여 많은 미혼여성들에게 예절교육을 하였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여성들에게 우리 예절을 가르쳤고 해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특히 국내 각지에 지부를 개설함과 더불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지부를 개설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을 외국에 알리게 되었다. 예지원은 1974년 개설 이래로 예절의 불모지에서 꾸준히 여성과 청소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절을 교육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예(禮)를 바로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림 5> 「여성교육의 장-예지원 (원내는 강영숙원장)」
(출처:매일경제,1991년2월10일, 7면)



<그림 6> 「예지원 주최 ‘재일동포2세 숙녀위한 세미나」」
(출처:경향신문, 1980년4월8일, 5면)



<그림 7> 「전통생활예절 맥 잇기 혼신, 강영숙씨」 (출처:매일경제, 1991년7월11일, 25면)

65) 매일경제, 「전통예절 창조적 계승 앞장」, 1991년2월10일, 7면.

② 한국전례연구원

한국전례연구원의 김득중원장은 1977년부터 ‘실천예절운동’ 홍보활동을 시작하여 「예절의 전도사」라 불릴 정도로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예절전도사 김득중씨

家財털어 한국전례연구원 설립, 책 나눠주며 3년째 街頭 캠페인

“전통의례와 현대생활과의 엄청난 거리 때문에 예절을 지키고 싶어도 갈광질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적인 의례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김정두루마기 차림으로 예절을 존중하자고 외치고 다니는 김득중씨(55씨)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우리예절을 모르고 지낸다고 한탄한다.

김씨는 지난 77년 한국전례연구원을 설립, 82년부터 3명의 유급직원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과 서울역 주변등지에서 예의생활을 권장하는 전단과 ‘현대인을 위한 예의생활요강’이라는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예의생활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동안 나눠준 전단이 18만장, 곳곳에 붙인 표어판이 5백여개에 달한다.⁶⁶⁾

국민들의 예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예의생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행한 김득중원장은 이후 대중매체와 각 기업체 및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더욱 활발하게 실천예절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김득중원장은 한국전례연구원의 ‘실천예절’ 교육을 통해 많은 예절강사들을 양성했고 이들은 이후 전국각지의 예절교육현장에서 활동하며 우리 사회속의 ‘실천예절’의 생활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림 8> 「예절 전도사, 김득중씨」
(출처:동아일보 1985년3월20일, 7면)

66) 동아일보, 「예절전도사 김득중씨」, 1985년3월20일, 7면.

김득중원장은 예절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현대예절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첫째, 1980년 이후 ‘실천생활예절’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저서 『우리의 전통예절』, 『우리의 생활예절』을 집필하여 어렵게만 여기던 전통예절의 실천을 현대에도 쉽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생활예절』은 성균관의 의례로 집필하여 성균관 산하 전국의 향교에서 예절교재로 사용됨으로써 이후 현대 ‘실천예절’의 통일성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 ‘실천예절’에 있어서 모든 예절의 기본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통예절’을 확립하였다. 그동안 ‘공통예절’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예절을 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일반인들이나 그들을 가르쳐야 할 예절 지도 강사들에게 ‘실천예절’의 기본 틀을 제시하게 된 것이었다. ‘공통예절’은 위계와 질서, 공수법, 배례법, 예절의 방위와 상하식의 기준 및 좌석배치에 관한 예절로 1994년 보건사회부에서 전국의 예절과 관련된 단체에 전례연구원의 『생활예절』에 근거한 ‘공통예절’을 지킬 것을 권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 받게 되었다.⁶⁷⁾

셋째, 과거 전통사회에서 행해졌던 전통예절을 현대에 적합한 예절로 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대표적으로 배례법(拜禮法)에 있어서 사계 김장생(1548~1631)의 「가례집람」을 근거로 하여 현대 복식으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배례법’을 제시하였다.⁶⁸⁾

넷째, 전국 각지에 통일되지 않고 가가례(家家禮)라는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던 전통예절을 통일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예의생활 실천운동 협찬사보」를 간행하여 전국의 교육, 문화, 행정 기관에 무가(無價) 배포하였다.⁶⁹⁾

67) 한국전례연구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앞의 책, 중화서원, 2007, pp.25~30.

68) 여성의 경우 절을 ‘가부좌(跏趺坐)하고 앉는 것이 아니고 두 무릎은 꿇는 것이다’라고 하여 현대생활에 맞지 않는 절의 형태를 현대의 실생활에 맞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사계 김장생의 ‘가례집람’에 근거해 제시한 것이다.

69) 한국전례연구원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앞의 책, 중화서원, 2007, p.205.

최기호,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통생활예절의 생활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다섯째, 예절지도자의 전문교육을 시작하였다. 향후 우리사회에 ‘예의한국’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을 깨달은 김득중원장은 예절지도자과정을 개설하여 예절강사를 양성 하였다.⁷⁰⁾ 그리고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예절자격증제도를 실시하였다.

전통을 고루하다 거부하였던 이 시대에 전통예절의 실천이 우리국민들의 가치와 자존감을 일깨우는 방법임을 자각하고 전통예절을 현대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여 제시한 한국전례연구원 김득중원장의 ‘예의생활실천운동’은 예절의 실천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일익을 하였다.

③ YWCA

한국YWCA는 1922년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 선생에 의해 창립한 이래 교육, 생활개선, 여권신장, 민족운동을 해왔다.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쓴 YWCA는 여성들의 교육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⁷¹⁾ YWCA 서울 지부에서는 1964년에 여성을 위한 특별 강습이 있었는데 그 교육내용에 예법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혼여성을 위한 강습.. 13일부터 YWCA에서

서울YWCA성인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새 가정을 이룰 미혼여성을 위한 특별강습을 13일부터 5월4일 까지 매일 하오6~9시에서 서울YWCA에서 연다. 맞선과 교제, 침실과 거실의 장식, 가정경제, 예법, 결혼 전 피부미용법, 인형과 저고리 만들기, 외국여성과 요리, 정신위생, 꽃꽂이 조화 등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번 강습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오게 된다.⁷²⁾

논문, 1994, p.55.

「예의생활 실천운동 협찬사보」는 1985년 9월 7일 필기본으로 시작해서 1987년 1월 7일 「월간 실천예절」을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제작해서 전국 각급 학교 각 기관, 시, 군, 읍, 면, 동, 리까지 배포하면서 예절교육을 하였다.

70) 김득중, 앞의 책, 중화서원, 2008, pp.45~46.

2010년까지 1,334명이 배출되어 전국각지에서 예절을 지도하고 있다.

71) 한국YWCA연합회, <http://www.ywca.or.kr/>

72) 경향신문, 「미혼여성을 위한 강습」, 1964년4월10일, 5면.

서울YWCA는 약혼한 남녀를 위한 특별 강의도 있었다.

약혼남녀강습회

서울YWCA에서는 약혼한 남녀를 위한 특별강의를 연다. 강의에는 결혼의 제반의식과 예절도 포함된다.⁷³⁾

서울YWCA의 여성을 위한 교육은 1970년대에도 꾸준히 개설되고 있었다. 그러나 YWCA의 교육은 사회전반의 예절 실천과는 별개로 여성들의 결혼 준비 과정의 예절에 관한 내용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④ 전국주부교실

전국 주부교실은 1971년 12월에 뜻있는 여성들이 모여 주부들 대상의 재교육을 통한 자질함양으로 가정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부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위해 조직·창립한 단체였다.

인기 끄는 성인강좌

주부교실 중앙회에 의해 15일 문을 연 제1회 주부대학은 뒤늦게나마 다시 배우겠다는 열의를 가진 주부·미혼여성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가정살림을 주관하는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감당해야 할 스스로의 역할을 익히게 하고 지덕과 건강을 겸비한 지도적인 주부상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실시된 주부대학은 1학기 3개월 과정으로 규수반(미혼여성), 주부반으로 구분·강의내용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법, 영양, 요리, 응급법, 꽃꽂이, 실내장식, 양재, 미용, 아동 교육, 지압, 시사, 에티켓, 가족계획, 예절 등이다.⁷⁴⁾

전국 주부교실에서는 1977년 3월 15일에 제1회 ‘상설 주부대학(주부반, 규수반)’을 3개월 과정으로 개강한 이래 매년 개설하여 여성들을 교육하였다.⁷⁵⁾

73) 경향신문, 「약혼남녀 강습회」, 1964년5월21일, 8면.

74) 동아일보, 「인기 끄는 성인강좌」, 1977년3월17일 5면.

75) 제2기 주부대학(출처: 경향신문, 1977년6월1일, 5면), 제11기 주부대학(출처: 동아일보, 1980년6월28일, 5면) 제13기 주부대학개설(출처: 경향신문, 1981년3월2일 10면) 등 꾸준히 강좌개설에 대한 신문지상 공지가 있었다.

⑤ 여성유림회

여성 유림회(儒林會) 창설

유도(儒道)를 숭상하는 집안의 주부 1백여 명이 23일 여성유림회를 창설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 모임은 지금까지 여자가 유림이 될 수 없었던 선례를 깬 것인데, 효를 중심으로 가정윤리를 바로 잡고, 국가발전에 앞장서자는 것이 창립취지였다.⁷⁶⁾

새택교실 17일 개강 예절, 태교등 교육

여성유림회가 마련하는 성균관 명덕학당의 '새택 교실'이 17일 개강한다.⁷⁷⁾

성대 명덕학당 새택교실 개강

성균관내 명덕학당에서는 16일부터 결혼을 앞둔 여성들을 위한 새택교실을 개강한다. 조상의 슬기와 얼을 가르치기 위해 전통예절, 전통음식, 다도, 바느질, 서예, 고전강독 등의 교과목이 짜여져 있다.⁷⁸⁾

위와 같이 1975년 성균관에 여성들이 주체가 된 여성유림회가 창설되었고 1980년부터 미혼 여성들을 위한 새택 교실을 개설하였다. 성균관은 그 취지에 맞게 전통에 중심을 둔 교과목으로 미래 주부들에게 우리의 예절을 교육하였다.

⑥ 평생교육 도입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괄목할 정도로 신장하였다. 특히 여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⁷⁹⁾하면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확대되었고, 가정에

76) 경향신문, 「여성유림회 창설」, 1975년5월24일, 7면.

77) 경향신문, 「새택교실 17일 개강」, 1980년11월14일, 4면.

78) 동아일보, 「성대 명덕학당 새택교실 개강」, 1981년5월11일, 7면.

79) 동아일보, 앞의 기사, 1986년4월4일, 7면.

여학생들의 중학교 진학률은 1966년의 33%에서 1980년 92.6%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진학률의 경우 1966년의 19.6%에서 1980년에는 62.2%로 역시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서는 주부들이 집안의 경제권과 자녀들의 육아와 교육을 책임지게 되는 등 가정 내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학력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아진 중산층 주부들이 자아를 찾기 시작하면서 사회기관의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즈음 평생교육 개념이 도입되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조항에 「평생교육」이 명문화 된 후 국가적인 권장과 평생을 배워야 한다는 시민들의 자각(自覺)이 일치해 각종 대학이름을 붙인 사회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다.

대학 밖의 대학 붐

평생교육(平生教育)자각(自覺)이 모인 제3교실 -교양, 전문 분야 등 제각기 다른 특성, - 강사 대부분 대학교수, 입학 경쟁 치열한 곳도.-.

「대학 밖의 대학」 붐이 한 더위 속에서도 더욱 열기를 내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헌법조항에 「평생교육」이 명문화 된 후 국가적인 권장과 평생을 배워야 한다는 시민들의 자각(自覺)이 맞아 떨어져 각종 대학이름을 붙인 사회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노인대학, 주부대학, 교양대학, 민족대학, 박물관대학, 시민 대학 등 많은 강좌들이 생겼다.⁸⁰⁾

이때부터 주부교실이나 성균관 등에서 개설하던 주부대학이나 다도교육과 병행한 예절교육에 주부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절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향후 실천예절 운동이 활발해 질 때 예절 교육의 일선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림 9> 「평생교육 광경」
(출처:동아일보, 1981년6월16일, 7면)

80) 동아일보, 「평생교육자각이 모인 제3교실」, 1981년6월16일, 7면.

이상에서 살펴본 예절 혼란기는 광복이후 1980년까지의 시기로 주로 제도권인 학교에서 도의교육을 중심으로 예절활동이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제도권인 학교에서 시작하여 국민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혀가고자 했으나 혼란했던 사회 여건상 국민들의 호응은 얻지 못했다.

이 기간에 자발적인 예절실천운동으로 1966년 광주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한 ‘생활태도확립운동’이 있었다. 교사와 학생들이 예절 실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시작한 이 운동은 생활 속의 작은 예절부터 실천하여 건전한 학풍조성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더 이상 전개되지 않았다. 이후 주목할 만한 예절 실천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제력이 향상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예절의 필요성을 일반 국민들이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과거 전통사회의 예절을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서구문물의 도입과 함께 들어온 에티켓이 소개 되고 있었으나 서구의 가치관과 생활문화에 적합한 서양 예절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전통예절과 서양예절이 서로 모순된 채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실생활에 적합한 예절을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예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예절부재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일부 인사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예절 실천을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례연구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절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예지원, 서울 YWCA, 주부교실과 여성유림회 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실을 개설하여 교육하였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예절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증가하였다. 여성들은 1945년 이후 사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되면서 예절교육 분야에서도 수동적인 교육대상에서 1970년대 후반이후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표 3> 예절 혼란기의 예절활동

예절활동		내용
도의교육 위주의 활동	MRA운동	도덕재무장운동
	도의교육연구회	도의 과를 학교 과목에 신설하고자 함
	의례규범제정 시도	혼상제례 간소화 시도
	여성교양교육	시민으로서 여성 교양 교육의 필요성 대두
관주도 예절활동	국민예절기준	전통예절과 서양예절혼재
	예절의 달	문교부 지정
	예절의 달	국무회의 지정
	표준의례제정	1961년 표준의례 제정
	가정의례준칙제정	1973년 강제의례법 제정
	국민의례규범	국민교육헌장과 가정의례준칙의 국민계몽을 위하여 마련
	여학생 생활관 교육	가정 내 예절교육에 치중
	광주 학생 '생활태도확립운동'	광주시내 교사·학생 주도
실천예절 교육기관 자생	예절교육단체의 활동	예지원
		한국전례연구원
		YWCA
		전국주부교실
		여성유림회
	평생교육 도입	여성들 예절 교육 참가

3) 예절서

예절 혼란기의 예절서는 발간수가 많지 않았다(<표 4>참조). 1950년대는 5 종류의 예절서가 있었고 1960년대 십년간 12종, 1970년대 십년간 18종의 예절서가 발간되었다.

<표 4> 예절 혼란기 예절서 발간 수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1951	0	1961	1	1971	4
1952	0	1962	0	1972	3
1953	0	1963	0	1973	3
1954	0	1964	2	1974	1
1955	1	1965	1	1975	2
1956	0	1966	2	1976	0
1957	0	1967	1	1977	2
1958	1	1968	1	1978	1
1959	1	1969	3	1979	0
1960	2	1970	1	1980	2
소계	5	소계	12	소계	18
총 합계				35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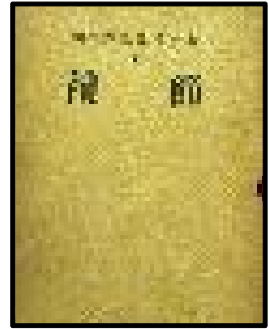
1950년대 예절서는 1955년에 『실천국민예법』, 1958년에 『의례전서』, 1959년 『현대여성생활전서』만이 검색 가능하였다(<부록 2> 참조). 1950년대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혼란을 겪던 시대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상은 예절을 논할 만큼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1955년의 『실천국민예법(實踐國民禮法)』은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국민도의회연구회(韓國國民道義研究會)에서



<그림 10>
『실천국민예법』

해방 후 혼돈된 사회 상태에서 절차를 몰라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발간하였다. 내용은 일상기거에서부터 가정생활, 전반적인 사회생활, 국제인으로서의 생활 등 생활예절에서 가정의례까지 현대 생활예절에서 언급되는 것은 모두 망라하여 언급하였다.⁸¹⁾

1959년에 발간된 『현대여성생활전서(現代女性生活全書)』는 1950년대 대표적인 여성교양지⁸²⁾인 여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총 10권이였다. 『현대여성생활전서』는 「여원」이 창간 1주년 기념 5대 사업 계획으로 기획하여 1959년 초판 발행한 것으로 10권 중 제8권이 「예절」이었다. 그 내용은 여성이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 일반 생활예절과 서구의 에티켓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풍속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인사법, 회화와 말씨



<그림 11>현대여성생활전서 제8권, 『예절』

의 예절, 남녀교제의 에티켓, 옷차림과 화장의 예절, 직장여성의 에티켓, 혼사의 예절, 신혼부부의 예절, 시집살이의 예절, 방문과 접객의 예절, 파티의 예법, 사교춤의 에티켓, 여러 가지 음식 먹는 법, 상사(喪事)와 제사의 예절, 축경사와 위문의 예절, 선사품의 예절, 공중도덕에 관한 내용으로 전통예절과 서구의 문화가 혼합된 형태였다. 여원에서는 에티켓을 ‘모랄’로서, ‘몸에 지닌 교양’으로 정의하였다.

에티켓을 여성에게 교육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여성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자의식 및 사회의식이 확장되었다⁸³⁾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양 있는 여성의 태도로 순종적 역할, 현모양처를 강조하고 있었다. 남성과 동일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여성을 위한 교양서이지만 사회생활예절에서의 역할조차 가정에서의

81) 한국국민도의연구회, 『실천국민예법』, 문교사, 1955.

82) 한국전쟁후 1950년대 대표적인 여성교양지는 1952년 창간한 「여성계」와 1955년 창간한 「여원」이 있었다. 두 잡지 모두 문화중심의 잡지였다.

83) 김복순, 앞의 논문, 2007, pp.22~23.

여성 역할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예절서는 30종이 검색 가능하였다(<표 4> 참조)

이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1966년에 신태민이 저술한 『에티켓 선생』 이었다.

시간리뷰 - 신태민저 『에티켓 선생』

이 책은 현대인의 현대생활을 보다 스무드하게 해주는 데 필요한 책이다. 부모, 형제, 친척,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남녀교제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목을 상하 2권으로 나누어 매우 친절하게 풀이하고 있다.⁸⁴⁾

신태민이 현대인의 생활 예절을 풀이하는데 에티켓이라는 외래어를 쓴 까닭은 현대 생활이 예전과 크게 다르고 복잡해져서 전통적인 예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생각에 말미암은 것으로⁸⁵⁾ 『에티켓 선생』을 쓴 동기가 현대 생활에 적용 가능한 예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 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예절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했음을 말해 준다.

신태민의 『에티켓 선생』은 일상생활의 예절을 상세하게 분류하여 풀이하였는데 1959년 여원의 『예절』과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교양인의 생활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즐거운 가정 생활 ② 이웃 친척 간의 에티켓 ③ 옷차림 에티켓 ④ 걸치장 에티켓 ⑤ 몸가짐과 행동 ⑥ 주거 생활 에티켓 ⑦ 테이블 매너 ⑧ 전화 걸고 받을 때의 에티켓 ⑨ 직장 생활 에티켓 ⑩ 공중 속에서의 에티켓 ⑪ 여행 중의 에티켓 ⑫ 언어 생활 에티켓 ⑬ 학



<그림 12> 「신태민 인터뷰」
(출처:경향신문 1966년 4월 4일, 7면)

84) 경향신문, 「신태민저, 에티켓선생」, 1966년2월21일, 5면.

85) 홍웅선, 「예절의 교육,현대사회와 예」. 현대사회와 예/연세대인문과학총서1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편, 탐구당. 1989. p.411.

원에서의 에티켓 ⑭ 숙녀의 에티켓 ⑮남녀 교제의 에티켓 ⑯ 약혼 에티켓 ⑰ 결혼에 관한 에티켓 ⑱ 자녀 교육 에티켓 ⑲ 방문할 때의 에티켓 ⑳ 손님맞이 에티켓 ㉑ 손님 초대와 초대 받았을 때 ㉒ 선물 받을 때와 보낼 때 ㉓ 사교상의 에티켓 ㉔ 편지 쓸 때의 에티켓 ㉕ 인사 소개의 에티켓 ㉖ 호감을 사는 방법 ㉗ 상업상의 에티켓 ㉘ 상제 에티켓 ㉙ 종교에 관한 에티켓 ㉚ 국민 의례 ㉛ 축하 및 연중 행사 86)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예절서는 우리 생활의 세부적인 곳까지 풀이하여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교양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60년대 예절서를 보면 예절서가 백과사전식으로 출간된 경우가 많았다⁸⁷⁾(〈표 2〉 참조). 이 시기의 예절서는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실천예절은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설명하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천예절은 서양의 에티켓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질적인 문화가 같은 책에서도 모순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에티켓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은 고등 교육을 받은 중상층이나 가능한 일로 소수에 불과하였고, 많은 대중들은 전통의 가치관에 의한 예를 실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도시화가 되면서 전통의 예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예절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의 예를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써 ‘예(禮)의 부재’ 시대가 된 것이었다.



<그림 13>
『현대라이브러리』

86) 신태민. 『에티켓 선생, 상·하』. 정음사, 1966.

87) 검색된 백과사전식 예절서가 60년에서 80년까지만 해도 10종이었다. 1959년에서 1980년 사이에 발간된 예절서의 1/3 정도가 백과사전류였다.

<표 5> 예절 혼란기에 발간된 백과사전류 예절서

	년도	서명	출판사
1	1959	현대여성생활전서	여원사
2	1960	사교예의전서	학원사
3	1964	현대여성라이브러리	삼중당
4	1969	새생활대백과사전	서문당
5		(원색) 현대여성백과사전	삼중당
6	1974	(생활인을 위한) 에티켓 백과	삼성출판사
7	1975	새여성 생활 대백과	중앙문화사
8	1977	새여성 생활 대백과	범양사
9		(원색)여성생활대백과	태극출판사
10	1980	현대생활백과대사전	금성출판사

2. 실천예절 정립기

실천예절 정립기는 1981년부터 2000년까지로 전통예절을 바탕으로 서양예절을 수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실천예절'로 정립한 시기였다.

1) 사회적인 배경

1980년대는 경제성장만을 위해 달려온 우리사회의 자화상에 대한 반성이 있기 시작했다. 1985년 11월 12일 경향신문 9면을 보면 우리사회를 '방임된 모방

문화'라고 지칭하고 있었다.

달려온 한국 '방입된 모방문화' 80%가 핵가족.. 윗사람권위추락

-유학지식인들의 '국적 없는 사고방식'도 주체성위기 불러-

모방속성이 짙은 국적 없는 대중문화와 청년문화의 잡다한 현상, 대중매체와 교육이 주입시킨 무분별한 서구의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의식은 모든 사회상하간 권위를 부정해 버렸다.

-사회지도력 공동 현상 -

집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교수들의 권위에 아랑곳하지 않게 됐다. 더 나아가 모든 사회적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이 의식 있는 젊은이로 통해 사회지도력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이 빚어졌다.⁸⁸⁾

광복 후 이 땅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국의 하위문화 등 서구문물이 들어오고, 지배계층을 이룬 외국유학 지식인들의 국제주의적 사고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고루한 옛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서구적인 것은 앞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 우리 문화체계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외국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모방은 예절까지도 서양예절인 에티켓이 고급문화라는 인식으로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개인의 수신을 강조하던 우리의 예절은 설자리를 잃었고 에티켓은 교양의 일종이었던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사회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불안한 시기였다. 1970년대의 유신체제에 투쟁과 혼란의 시기를 보냈던 사회와 학원가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치열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특히 민주화를 열망하던 학생들은 관제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였고 기성세대에 대해 반발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라는 예절의 기본 덕목을 가르치기에는 혼란한 사회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면서 시민의식이 함양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 전환의 기점으로서는 1981년 9월 30일에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렸던 국제올

88) 경향신문, 「달려온 한국 '방입된 모방문화」, 1985년 11월 12일, 9면.

림픽위원회(IOC)에서 발표한 88년 하계 올림픽 서울개최 확정이었다. 88올림픽 개최지 선정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1950년대의 참담한 현실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일구어 낸 성취감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였고 민족의 저력을 자각시켰다. 이는 우리민족의식의 근간인 전통문화와 주체성을 되살려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민족의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야”라는 광고 문안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⁸⁹⁾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예절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후 1988년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는 시민의식을 크게 진작시켰다. 국민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림 14> 「“서울개최”에 환성 올리는 한국대표단」
(출처:경향신문 1981년10월1일, 1면)

도정명은 「88 서울올림픽의 회고와 결산」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시민들의 의식구조가 한층 선진화되고, 수준 높은 질서, 친절한 시민,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참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외국의 모든 관광객들이 한결 같이 경탄해 마지아니한 것은 서울이 그림 같이 아름답고 서울 시민들의 성숙된 질서의식이 인상 깊다는 것이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하여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와 다양한 세계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겠다.⁹⁰⁾

89) 솔표 우왕청심환 광고, 판소리 인간문화재 박동진이 나와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야”라는 광고를 유행시켰다.

90) 도정명. 「88 서울올림픽의 회고와 결산」, 1988. p.11.

이제 사람들은 전통을 고루하다 배격하는 대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았고, 교양 있는 문화인으로서의 삶을 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급성장한 경제성장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진 것, 그리고 국민들이 열망하던 문민정부가 1993년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원인도 있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되면서 국민들은 풍요와 자유로운 삶을 원하게 되었고 그에 맞추어 다양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검절약이 강조되던 사회에서 갑자기 주어진 풍요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해외여행자유화로 제기된 국제 에티켓의 무지, 생활의 일부분이 된 자동차문화와 교통사고의 급증, 증가하고 있는 통신기기 사용 에티켓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우리사회에서 필요치 않았던 종류의 예절이 국제화와 신장된 산업기술의 혜택, 경제력 향상으로 얻게 된 풍요롭고 다양한 삶의 방식 변화로 필요하게 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제도권의 교육 여건은 좋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버릇없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한국인 지금, 버릇없는 아이가 늘어난다.

**빛바랜 예의지국(禮儀之國), 변화 물결 속 새 가치관(價値觀) 적응 못해,
훈계라도 받으면 재수 없다 투덜**

작게는 한 가정 내 부부간이나 부모자식간의 예절에서부터 크게는 이웃 간이나 지역사회내의 기본예절도 사라졌으며 관혼상제 등에 따른 세세한 예절은 아예 무시되기도 한다.⁹¹⁾

전문가들은 버릇없는 아이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재를 말하고 있었다.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적 풍요를 이뤘지만 그에 따른 정신적 문화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퇴보했

91) 경향신문, 「한국인 지금, 버릇없는 아이가 늘어난다.」, 1986년7월29일, 9면.

다고 보았다. 고려대학교 임희섭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해방이후 서구의 개방적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유교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예의범절은 많이 퇴색됐으면서도 아직까지 국제화시대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은 정립 돼있지 않아 혼란이 오고 있다. 특히 예의범절의 기본교육을 담당해야할 가정이나 학교가 부의 축적이나 입시위주의 교육에 밀려 제대로 기능을 발휘치 못했고 중산층의 형성역사가 짧아 건전한 새 행위양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⁹²⁾

가정에서는 부모 노릇으로 학비부담이 고작이고 자식에 대한 훈육이나 가정교육이 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부모노릇, 학비부담이 고작 실종된 가정교육

학교성적만 따지고 예절은 뒷전

우리의 전통적 뿌리가 해방이후 또는 60-70년대의 산업화, 핵가족화, 제도적교육의 과잉비대 등에 밀려 자취를 감추었음은 물론 가정에서 자식에 대한 훈육이나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높다.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는 과거 어렵게 자라고 공부한 불행한 경험의 유산이 강박관념처럼 자리 잡고 있다. 힘들게 자란 자신의 시절을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보상심리가 지나쳐 자식의 훈육보다는 자식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한 풍조를 만들고 있다.⁹³⁾

전통사회의 가족제도였던 확대가족에서는 다양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가치관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각종 덕목을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배우면서 사회화에 필요한 예절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제도에서는 부부와 자녀의 관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화에 필요한 예절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예를 가르쳐야할 아버지는 직장과의 분리로 가정에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예전과 같은 권위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 더구나 가족계획으로 외동아들·딸들로 가정 안에서 작은 황제로 군림하는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92) 경향신문, 위 기사. 1986년7월29일, 9면.

93) 경향신문, 「한국인 지금, 부모노릇, 학비부담이 고작, 실종된 가정교육, 학교성적만 따지고 예절은 뒷전」, 1986년7월22일, 9면.

힘든 현실이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 오직 성적이 최고의 선(善)이 된 현실에서 올바른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입시 위주의 지식습득과 산업발전과 관련한 과학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전인교육의 면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예절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었다.⁹⁴⁾ 공부만 잘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의 모든 것이 묵인되는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은 친구들 간의 따돌림, 폭력 등의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다.⁹⁵⁾

이와 같은 때에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사태가 일어났다. 스승을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가르쳤던 우리나라에서 스승을 향해 달걀, 밀가루 세례와 폭력을 행사한 이 행위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하여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정총리 외대생들이 폭행

어제저녁 마지막 강의 후 달걀 밀가루세례...주먹 발길질,

정원식 국무총리서리가 3일 오후 취임 전 시간강사로 출강해온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다 외대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수모를 겪었다. 정총리서리에 대한 학생들의 폭행사건은 사회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지성의 전당인 대학구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반인륜적 폭행이라고 규탄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⁹⁶⁾

예의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 문제들을 논외로 치더라도 정원식총리서리 봉변사건도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따진다면 도덕성 함양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실종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⁹⁷⁾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도덕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학생들의 올바

94) 장경선, 「가정과 교육을 통한 예절교육 실태에 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2.

95) 류칠선, 「사소절에 나타난 현대 유아예절교육의 암시」, 한국유아교육학회, 2003, p.284.

96) 동아일보, 「정총리 외대생들이 폭행」, 1991년6월4일, 1면.

97) 경향신문, 「민주시민 교실서 기른다」, 1991년6월10일, 23면.

른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한 것은 잘못된 교육이 원인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공경과 배려심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 예절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기면서 도덕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학원가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1992년 5월 18일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그림 15> 「왜들 이럴까...
정원식 총리의 모습」
(출처:동아일보, 1991년6월4
일, 1면)

변학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대학문화정착을 위한 새 생활 문화 운동이 전대학가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종전의 정치투쟁일변도의 학생회운영이 일반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건전한 대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을 길러낸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가 주축이 돼 벌이고 있는 새 생활 문화 운동은 학생들에게 학교역사바로알기, 자가용등고안하기, 담배꽂초 안 버리기 교수님께 인사하기 등 예절운동에서부터 대학주변에 깊숙이 침투한 록카페 노래방등 왜색문화추방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⁹⁸⁾

1990년대 민주화가 되고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원가는 운동권의 정치투쟁일변도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학원가로 변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성년례와 같은 전통의례를 행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의례와 예절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다.⁹⁹⁾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학생들은 경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고 취업에 관련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기본 소양 과목인 예절교육, 특히 직장예절 교육을 스스로 찾아서 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었다. 또한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98) 동아일보, 「대학가 '새생활운동' 확산」, 1992년5월18일, 23면.

99) 김정화, 앞의 논문, 2010, p.45.

글로벌 매너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한 학생들은 글로벌 매너에 대한 교과목 개설을 환영하고 있었다.¹⁰⁰⁾ 여기에는 세계화, 서비스 업종의 증가 등 기업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산업계의 영향도 있었다.

<표 6> 실천예절 정립기의 사회적 배경

사회적 배경 특징	사회적 현상
88 서울올림픽 개최	-시민의식 함양 -전통문화 재인식 -예절교육확산
삶의 질 향상	-정치적·사회적 안정 -경제력 향상 -문명이기 사용 증가 -다양한 생활방식
청소년 예절교육 필요성 대두	-핵가족 -가족계획 -입시위주의 교육 -가정교육 소홀 -서구주의 가치관
기업 환경 변화	-서비스업종 증가 -글로벌 기업

2) 예절 활동

100) 동아일보, 「3년연속 수강학생 2천명 넘는 ‘스타교수」, 1999년3월30일, 17면.

대학에는 수강학생 2천명이 넘는 스타교수가 등장하고 있었다. ‘현대인과 국제매너’강의의 청주대 손일락교수는 2천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다.

(1)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예절활동

①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한 예절 교육

국제올림픽위원회(IOC) 88년 하계 올림픽 서울개최가 확정되자 온 국민이 흥분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이처럼 들뜬 술렁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회를 맞을 준비에 나서야 하며 7년 후에 손색없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올림픽정신과도 상통하는 시민정신을 지금부터 길러나가야 한다고 각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¹⁰¹⁾

88서울올림픽 개최지 확정 후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면서 제기된 문제가 한나라의 문화수준을 말해주는 시민정신으로 공중도덕과 거리질서 그리고 의연하고 친절함 시민 태도 등의 확립이었다.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 대책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절 교육이었다.

88올림픽개최지선정을 계기로 예절교육의 당위성이 생기면서 예절교육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의 시작은 유림에서 시작되었다.

윤리(倫理) 회복 궐기 대회 유림(儒林) 대표 4백여명

유림대표 4백여 명은 최근 땅에 떨어진 사도와 관련, 10일 상오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 내 유림회관에 모여 현대물질문명에 밀려나는 인본적 윤리를 되살리자는 새 윤리관확립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유림들은 현대사회는 윤리, 도덕이 극도로 쇠퇴했고 사도가 추락했다고 개탄, 우리의 전통적 윤리사상과 충효상상을 바탕으로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했다. 또 유림들은 86년의 아시안 대회와 88년의 올림픽 대회에 대비, 예절바른 선비정신을 발휘해 문화민족임을 떨치자고 주장했다.¹⁰²⁾

101) 동아일보, 「부끄럽지 않은 ‘올림픽 시민’되자」, 1981년10월2일, 11면.

102) 경향신문, 「윤리(倫理)회복 궐기 대회, 유림(儒林)대표 4백여명」, 1981년 2월10일, 11면.

1982년 2월 20일에는 서울 올림픽 대회 범민족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올림픽을 앞두고 시민정신 운동을 주관하게 되었다.

범민족추진위 공지의 출범 - 올림픽 시민-

88서울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질서와 예절 상거래질서 확립 등 시민정신 운동을 주관하게 될 (서울올림픽대회 범민족추진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기인 총회를 가짐으로써 출범하게 됐다.¹⁰³⁾

1982년 7월 문교부에서는 국민예의·규범지침서인 「기본생활습관지도서」를 발간, 전국의 각급 학교, 사회단체, 주요 기관 등 각계각층에 배포했다.

이규호문교부장관은 규범생활습관지도서 발간과 관련 “가정교육을 맡고 있는 학부모, 사회 교육을 맡고 있는 모든 성인들에게 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득토록 해 문화국민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⁰⁴⁾

1983년 내무부는 전국의 향교 2백31곳에서 예절을 가르치는 교실을 열기 위한 교육계획을 세웠고, 성균관도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내무부는 이조 때의 지방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 서재등과 노인정을 주민들에게 한문과 서예 예절 등을 가르치는 장소로 이용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조후기의 지방교육기관인 향교(관립)와 서원 서재(사립)등은 대부분 일제 때부터 문이 닫혀진 채 공자나 유학자 등의 제사를 모시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각 시군이 유림 측과 협조, 청소년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전통 학문을 현대 감각으로 교육, 충효 사상 등을 가르치는 장소로 바꾼다는 것이다.¹⁰⁵⁾

성균관 전국향교명륜당에 일요학교 전통예절 가르친다. 유교전당인 성균관(관장 이재서)은 전국 2백31곳 향교의 명륜당을 개방,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계획을 세웠다.

103) 동아일보, 「범민족추진위 공지의 출범」, 1982년2월20일, 1면.

104) 경향신문, 「국민예의·규범지침서 발간 -문교부, 가정·학교등에 배부-」, 1982년7월12일, 11면.

문교부 장학자료의 형식으로 발간된 이 책자는 국민생활을 개인생활과 과정, 학교, 사회, 국가생활 등 5개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공·사생활에서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예절과 일상적인 행동규범을 도해를 곁들여 구체적으로 예시해놓았다.

105) 동아일보, 「향교개방 한문가르쳐, 내무부 현대감각에 맞춰-무료로」, 1983년6월24일, 11면.

그동안 향교라면 선유들에 대한 제향을 모시는 정도로 인식돼왔으나 젊은이들에게 유교의 참 모습을 보여줄 계기를 찾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¹⁰⁶⁾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은 대부분 일제 때 문을 닫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무부의 지원 아래 전통문화, 예절교육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전국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향교에서 교육을 시작함으로써 도시 위주로만 진행된 예절교육이 각지의 지역 사회로 까지 그 범위가 넓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당시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대 국민 예절교육을 위하여 기획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매일경제는 1982년 1월 7일부터 매주 한 편식 예절에 관한 칼럼을 김성배 동국대학교교수의 집필로 연재하였다.¹⁰⁷⁾ 경향신문도 1983년에 주간기획 어머니 교실을 매주 연재하기 시작하였는데¹⁰⁸⁾ 품안에서도 예절은 자란다는 취지로 ‘세 살 말버릇은 부모를 닮는다’, ‘식탁에서부터 예절을 배운다’와 같은 내용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예절교육을 기사화했다. 예절교육은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정에서의 교육이 우선해야 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연재 기사는 각 일간지, 잡지 등 대중 언론매체에서 국민의식 함양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올림픽 개최지인 서울시에서도 시민들의 예절교육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예절 지키기 시민운동 계몽책자 10만부 제작

서울시는 국제행사와 대회를 앞두고 시민들이 지켜야 할 예절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기 위해 예절 지키기 시민실천운동 리플렛 10만부를 제작, 이를 활용키로 했다.

106) 동아일보, 「성균관 전국향교 명륜당에 일요학교 전통예절 가르친다」, 1983년7월4일, 6면.

107) 매일경제, 1982년1월7일

1. 프릴로그 2. 가정생활 3. 직장생활 4. 지역사회생활 5. 언어생활 6. 행동규범 7. 신혼 여행 후 어른께 인사 8. 상고(喪故) 의 주제로 연재되었다.

108) 경향신문, 「주간기획 어머니 교실」, 1983년1월1일, 15면.

서울시는 올림픽과 예절, 예절의 기본, 일반생활예절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리플렛을 구청,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각급 학교나 직능단체의 교육자료로 사용하며 특히 외국인 집객업소 종사원에게 중점 홍보키로 했다.¹⁰⁹⁾

② 실천예절의 현대화와 통일화

우리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생겼지만 지역마다 가문마다 달랐던 가가례에 의해 예절의 모습이 혼재해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과거 유교 사회의 문화와 환경에 맞도록 발전해 온 전통 예절은 현대 생활환경에서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무리한 점도 있었다. 따라서 달라진 생활방식과 서구문화에 길들여온 젊은 세대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생활에 맞는 예절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80년대 말에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예절을 현대감각에 맞도록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한국전례연구원, 대한자녀교육선도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예지원등 사회단체에서 일고 있었다.¹¹⁰⁾ 이 중 한국전례연구원과 대한자녀교육선도회는 전통예절의 현대화 작업에 역점을 두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절을 보급하는 일을 앞장서고 있었다.¹¹¹⁾

한국전례연구원 김득중원장은

“흔히 전통예절을 형식적이고 번거롭다고 비판하는데 전통예절 중에도 현대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면서 전통 예절 중에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예절을 고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¹¹²⁾

109) 경향신문, 「예절지키기 시민운동 계몽책자 10만부 제작」, 1985년5월29일, 11면.

110) 출처:동아일보, 「전통예절 ‘시대에 맞게 되살리자」, 1987년6월2일, 7면.

111) 동아일보, 「예절실천운동 번져」, 1988년2월1일, 7면.

이 당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전례연구원, 대한자녀교육선도회, 예지원, 성균관, 한국청년여성교육원, 서울YWCA, 주부클럽등 10여개단체에 이르고 있었다. 이 중 한국전례연구원과 대한자녀교육선도회는 예의실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급학교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서울 YWCA의 ‘규수학당’ 성균관의 ‘신부학교’ 주부클럽의 ‘신사임당학당’ 예지원의 ‘예지강좌’들은 주로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절하는법 상차리기 바느질법 다른호칭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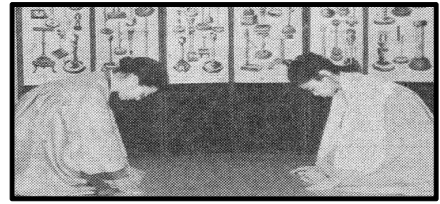
112) 동아일보, 앞의 기사, 1987년6월2일, 7면.

이라고 하며 현대에 맞는 전통예절을 발굴하고 제시하고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절하는 법’이었다.

이 당시 예절교육단체의 교육내용은 단체에 따라 각양각색이었지만 여성 큰절의 경우 주저앉아 하는 절 대신 평상복을 입고도 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하는 절로 통일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예절의 현대화’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한양대 최래욱교수(국어교육학)는 “전통예절의 현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멋대로 변형시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전통예절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현대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¹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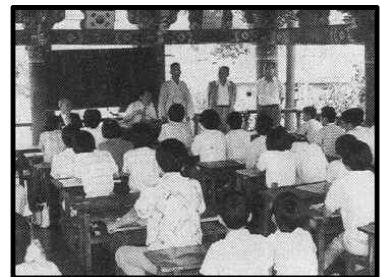


<그림 16> 「주저앉아 하는 큰절 대신 무릎을 꿇고 하는 절.」
(출처:동아일보, 1987년6월2일, 7면)

(2) 청소년을 위한 예절활동

① 예절교육기관의 다양화

청소년 예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예절교육기관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우선 지역적으로 편중해 있던 교육기관이 성균관에서 전국 231개소의 향교를 교육장소를 개방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성균관은 1990년부터 전국 각지의 향교에서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개구쟁이 예절학교를 개설하였다. 향교 예절학교는 방학기간 중 현대사회 속에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윤리와 예절을 되새기는데 그 목표



<그림 17> 「전북도내 향교의 일요학교」 (출처:경향신문, 1990년 6월23일, 9면)

113) 동아일보, 앞의 기사, 1987년6월2일, 7면.

를 두고 있었다. 향교 예절학교가 개설되면서 그동안 도시에서만 개설되었던 청소년을 위한 예절교육이 전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향교 예절학교 외에 청소년들을 위한 방학 캠프에서 생활예절을 가르치는 곳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캠프가 올바른 인관관계를 배우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본 생활 예절 교육을 하였다.¹¹⁴⁾



<그림 18> 「청학동 예절캠프」
(출처:동아일보, 1996년7월22일, 17면)

특히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예절교실이 활성화되었다. 1991년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뽑게 되면서 각 지자체장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원하게 되었고 그 방법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회제공이었다. 특히 많은 지자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¹¹⁵⁾에 의해 문화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문화원내에 예절기관을 두고 시민대상 예절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노인정을 노인들이 예절과 한문 등을 가르치는 예절교육장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노년층의 지역사회 봉사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예절교육도 할 수 있게 하였다.¹¹⁶⁾

이처럼 예절교육을 하는 지역과 기관이 다양해지고, 예절교육을 담당할 예절지도 강사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전례연구원, 예지원과 같은 예절교육단체에서 예절지도강사를 양성·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배출한 예절지도강사들이 전국에 예절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예절교육의 활

114) 청소년을 위한 예절캠프교육은 1990년대 후반 청학동 예절캠프가 대표적인 장소가 된다. 청학동은 한문서당을 시작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캠프가 활성화하면서 예절교육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2011년 4월말 현재 청학동에만 8개 이상의 서당이 운영되고 있다.

115) 네이버백과사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994. 1.7. 법률 4718호)」, <http://100.naver.com/>

116) 경향신문, 「초·중·고생 예절·한문교육 노인정 67곳서 실시」, 1993년7월16일, 21면. 1993년에는 노인정 67곳에서 예절·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② 예절교육현장의 남녀차별 감소

1980년대 말에는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다. 교육에 있어서도 성차별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관 교육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부덕(婦德)과 가사실습 예절교육 위주로 되어 있음을 문제시 하였다.

구태의연 부덕교육 고칠 때 한명희교수 동국대 교육철학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가면서 최근 들어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문제 자주 거론 하지만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관교육을 살펴보면 2000년대를 살아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구태의연한 부덕과 가사실습 예절교육으로 점철돼 있다.¹¹⁷⁾

한편 기존에 신부수업을 하던 규수학당이나 신부교실 등이 여성들의 외면으로 강좌를 폐강하고 있었고, 혼인을 위한 교육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여성이 같이 받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지나친 격식,-순종강요 싫다. 결혼예비교실 발길 뚝 - 강좌 수강생 없어 개점휴업 속출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결혼관 변화 등으로 다도와 한복 입는 법 같은 예절교육에 관심을 쏟지 않아 결혼예비교실이 사라져가고 있다. '신세대'들은 달라진 결혼관과 가족 내의 엄격한 규율이 사라져가는 핵가족화에 따라 결혼 뒤 갖춰야 할 갖가지 예법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중략)...여성단체 등에서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제레법, 생활예절을 가르치거나 행복한 결혼생활, 성과 사랑 등에 대한 강좌를 열었던 결혼예비교실이 최근 들어 수강생부족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¹¹⁸⁾

이와 같이 여성들의 의식은 변화하고 있었으나 교육현장에서의 남·여차별적

117) 동아일보, 「구태의연 부덕교육 고칠 때」, 1989년4월1일, 9면.

118) 동아일보, 「지나친 격식, 순종강요 싫다. 결혼예비교실 발길 뚝」, 1993년5월22일, 17면.

교육은 여전하여 이에 대한 의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1991년 1월 10일 경향신문에서 언급된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인식이 유교적인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 14개 교육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예절교육에 있어서 여학생에게는 가정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적영역에서의 관습적, 타율적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반면 남학생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자세와 판단력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등 탈관습적, 자율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관련수업에 있어서도 여학생에게는 원칙론적인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는데 그친 반면 남학생에게는 구체적인 직업이 제시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남녀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언어사용 양태, 회의진행법, 순결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중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¹¹⁹⁾

이와 같이 여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남학생들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어졌던 이 시기에도 교육 내용에 남녀 차별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절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만을 강조하던 구태의연한 교육을 여성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활동하며,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③ 예절교과목의 도입

1992년 9월 30일에 국교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편 되었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전 교과에 걸쳐 기본생활습관지도와 실생활과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또 우리전통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도록

119) 경향신문, 「중고생 대상 학생교육원 프로그램 “男尊女卑式” 성차별」, 1991년1월10일, 9면.

중고생 대상 학생교육원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이 여전함을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후 이러한 성차별적인 교육이 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였다. 교육부는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태도의 육성을 초등학교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1·2학년에서 배우는 바른생활의 주요내용을 인사·말씨·정리정돈·식사예절·절약·효도·방문 예절 등 45개 기준으로 세분화시킨 것은 최소한 버릇없는 아이, 자기만 아는 아이를 기르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었다.¹²⁰⁾

이외에도 1992년 제6차 중학교육과정은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고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력 개발과 시민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¹²¹⁾

1993년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유아예절교육지도서인 ‘유아를 위한 전통예절 지도자료’를 발간, 9개 지역 교육청과 시내 1천4백5개 유치원에 배부했다. 그 내용은 ‘한복바로입기-인사예절-바른 몸가짐-언어예절-식사예절 등을 유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과 사진을 곁들인 것¹²²⁾이었다. 이 책은 조기교육열풍 속에 소홀해지기 쉬운 유아들의 예절교육을 위하여 발간한 지도서로 예절교육의 부재 속에 성장한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예절교육의 본질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행하여 습관화하는 체득 화에 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과목에 예절과목을 신설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④ 예절 공익광고

예절 공익광고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는데 청소년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한 광고로 어려서부터의 예절 습관화 교육이 강조되었다(<그림 19> 참고)



<그림 19> 「예절 공익광고: 예절교육의 요람은 언제까지나 가정입니다.」
(출처:동아일보, 1989년12월13일, 19면)

120) 동아일보, 「지식보다 인성교육에 치중」, 1992년9월30일, 21면.

121) 경향신문, 「학습부담 덜고 전인교육 초점」, 1992년6월28일, 18면.

122) 경향신문, 「유아예절교육지도서 발간」, 1993년3월21일, 15면.

(3) 삶의 질 향상에 의한 예절의 변화

① 해외여행자유화

1980년대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1983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된 해외여행자유화¹²³⁾가 1987년 9월 해외관광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추고 2백만원씩 예치하던 관광예치금 제도를 폐지했다. 1988년 1월에는 연령을 다시 40세로 낮추고 관광여행회수제한도 연1회에서 연 2회로 완화했다. 이후 1988년 7월 30세로 낮추고 연 2회 이하라는 여행횟수 제한도 철폐했으며, 마침내 1989년 4월2일 누구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전면자유화 조치를 단행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시책은 즉각 실효를 거두어 1970년대 7만 명에 불과하던 공항 출국자가 1990년에는 836만명에¹²⁴⁾ 이를 정도로 해외여행은 붐물 터지듯 늘어났다.

경제력 향상으로 갖게 된 여유와 함께 그동안 갈망해 오던 해외여행의 자유화는 국민의 시야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앞서가는 세계인으로 선진국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과소비와 여행 에티켓 등으로 인한 국제적 망신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외국의 매너를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글리 코리아’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국제 매너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도가 증가하였다.

1989년 2월 13일 경향신문 11면에 ‘가이드에게 들어본 실수유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상의 실수유형은 대부분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국제 매너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123) 동아일보, 「문열린 해외여행 50세 이상 관광허용계기 절차 요령」, 1983년1월7일, 7면.

50세 이상 해외여행 희망자의 경우 2백만원을 은행에 예치해야 되고 여행기간도 2개월로 한정된데다 1년이내에 재출국할 수 없다는 제한 조건이 붙여있고 첫 해외여행 자유화란 점에서 여행기간은 1개월, 재출국기간은 2년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아직은 개방초기단계였다.

124) 서울신문, 「관세청 단속품목으로 본 해외여행 40년」, 2011년3월2일, 11면.

<http://www.seoul.co.kr/>

- 비행기내 앞부분 좌석이나 화장실 공공건물 내 엘리베이터 등 금연 장소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궤초를 아무데나 버린다.
- 거리에서 셔츠앞단추를 풀어헤치고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 나다닌다.
- 호텔, 식당 등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택시에서 내릴 때 팁을 너무 많이 주거나 어떤 경우는 아예 주지 않는 등 팁에 대한 원칙이 없다.
- 호텔방 욕실에서 커튼을 욕조 안에 넣지 않고 샤워를 하는 바람에 방바닥의 카펫을 젖게 한다.
- 호텔방 침대에선 깔고 자야할 시트 밑에 들어가 자기 일쑤다
- 슬리퍼를 신은 채 호텔 로비 라운지에 술 마시러 갔다가 종업원들로부터 입장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 트립이나 방귀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방출한다.
- 식당에서 종업원의 안내도 받지 않고 아무 빈 좌석에나 앉고 식사 중 큰 소리로 웃고 떠든다.
- 대개 1시간 30분정도 걸리는 식사를 제공하는 홍콩, 대만 등에서의 중국식당에서 빨리 가져오라고 재촉하는가 하면 이가 빠지거나 금간 그릇을 오히려 오랜 전통으로 여기는 풍습을 이해 못하고 이를 불평하며 바꿔오라고 요구한다.
- 박물관등 촬영금지구역에 아랑곳 하지 않고 사진 찍기를 끝까지 고집한다.¹²⁵⁾

이와 같은 실수담은 외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으로 해외여행자유화 초기에 피해 갈 수 없는 과도기와 같은 현상이었다.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우리도 이러한 실수에 대해 웃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여행객들의 추태가 연일 신문기사화 되는 등 국가 이미지 실추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여행객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 등 대책을 세



<그림 20> 「관광예절」 하나 때문에」 (출처:매일경제, 1989년 8월12일, 5면)

125) 경향신문, 「해외여행자유화, 가이드에게 들어본 실수 유형」, 1989년2월13일, 11면.

우고 여행상식과 교양, 각 나라에서 지켜야 할 예절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자 하였고, 신문에 관공예절에 대한 대국민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1992년부터 시대상을 반영하듯 시중에 국제매너에 대한 책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해외여행자유화라는 상황변화로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요구되지 않았던 국제매너가 시대적 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예절의 한분야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통에는 없던 다양한 분야의 예절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전화 바로 쓰기

199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전화보급률이 세계 9위로 발돋움했다. 1990년 말에 1천5백29만3천회선에 1천3백27만6천여명의 가입자를 수용함으로써 세계 제9위 아시아 2위의 시설보유국이 되었다.¹²⁶⁾ 전화보급률이 늘면서 전화바로쓰기 예절에 대한 시민 교육이 시급해질 만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화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다.

전화폭력 갈수록 심각, 2만명 번호변경 요청

1990년 11월부터 1991년 2월까지 4개월여 동안 전국에서 2만여 전화가입자들이 전화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한국 통신에 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 번호를 바꾸었다. 또 전화폭력으로 피해를 본 후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114안내를 통해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했거나 심지어 전화번호부에서 번호를 삭제한 전화가입자가 1만5천여명이나 됐다. 1991년 한국통신은 협박전화와 음란 장난전화 등 전화를 이용한 횡포행위가 날로 심각해져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성숙한 전화문화정착을 위한 전화문화 창달 캠페인을 5월부터 벌이기로 했다.¹²⁷⁾

1990년대 중반부터는 휴대폰 예절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처음 서

126) , 「전화보급 세계9위 발돋움 -한국 체신사 어제와 오늘」, 1991년4월23일, 21면.

우리나라 통신사업은 한국전쟁으로 시설의 80%를 잃었다. 1961년부터 5차에 걸친 통신사업5개년 계획을 추진, 80년대 이후 선진국수준으로 진입했고 1984년에는 우리 기술로 全電子교환기 TDX1을 개발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127) 동아일보, 「전화폭력 갈수록 심화, 2만명 전화번호 변경 요청」, 1991년5월1일, 23면.

비스가 시작된 휴대전화는 90년대 초반까지 가입비와 단말기가 2백만원을 넘어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94년 신세기통신의 출범으로 휴대전화 경쟁이 시작되고 97년 PCS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가입자가 폭발적



<그림 21> 「전화예절 공익광고」,
(출처:매일경제, 1992년6월26일, 5면)

으로 늘어 1999년 3월말 가입자 수가 1천6백만 명을 돌파했다.¹²⁸⁾ 늘어나는 휴대전화와 더불어 통신예절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새로운 문화인 휴대전화예절은 그 정립부터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휴대폰예절의 부재는 1999년에 학생과 교수가 버스 속에서 주먹다짐을 하다 입건되는 사고까지 생기는 원인이 되었다.

참을 수 없는 ‘휴대폰 소음- 학생·교수 버스 속 주먹다짐 입건

시내버스 안에서 큰소리 휴대폰을 쓰던 여대생이 이를 나무라던 50대 교수와 시비 끝에 주먹다짐까지 벌인 일이 발생했다.¹²⁹⁾

큰소리로 통화하는 여대생을 교수가 꾸짖으면서 발단이 된 이 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예절불감증과 어른의 권위가 실종된 현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때와 장소를 안 가리는 벨소리와 통화소음은 공중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휴대전화사용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휴대전화 공해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서게 되었다.¹³⁰⁾ 또한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예의지국’을 기치로 내걸고 ‘폰티켓 캠페인’, ‘휴대폰 예절 지키기

128) 동아일보, 「전화보급 100명당 43.2대 ‘선진국 수준’ 휴대전화 폭발적 증가 1천 6백만명 돌파」, 1999년4월22일, 29면.

129) 경향신문, 「참을 수 없는 휴대폰 소음」, 1999년12월8일, 23면.

130) 동아일보, 「때 장소 안가리는 벨리릭 추방」, 1999년 2월 19일, 3면.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¹³¹⁾ 한솔PCS는 휴대폰 예절현장인 '원샷 018 예절현장'을 선포하고 무기한 캠페인에 들어갔다.

● 한솔PCS 의 '원샷 108 예절현장'

△휴대전화는 필요할 때만 사용

△통화는 용건만 간단히 짧게

△모임에서는 벨소리를 진동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조용하게 통화

△중요장소 병원 공연장 비행기 학교 등에서는 휴대전화를 꺼 놓는다.

△운전 중에는 반드시 갓길에 정차한 후 통화

△벨소리는 최대한 낮추고 여러 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통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¹³²⁾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소음공해의 수준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에서 휴대폰 예절모드를 개발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③ 컴퓨터 통신

1992년 말 개인용 컴퓨터 보급대수가 3백만 대를 돌파했다. 이는 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가 1988년 0.8대에서 1992년 말에는 7.1대로 증가한 것이었다.¹³³⁾ 1993년 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PC를 이용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찬반의견이 갈릴 정도였다.¹³⁴⁾ 1993년 10월에 데이콤이 '천리안'의 새로운 접속번호인 「01420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컴퓨터 통신 예절 가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이는 회사 홍보차원으로 시작한

131) 경향신문, 「휴대폰 예의지국 만들어봐요」 정통부·업계 내달부터 '폰티켓' 캠페인, 1999년4월22일, 15면.

132) 매일경제, 「휴대전화 예절현장 선포」, 1999년4월22일, 39면.

133) 동아일보, 「PC보급대수 3백만대 돌파」, 1993년6월16일, 11면.

134) 동아일보, 「학계도 외국과 컴퓨터 통신 바람」, 1993년7월7일, 13면.

우리나라는 1992년 5월부터 한국통신 하나망과 대학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교육전산망이 상호연결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통신의 통신망이 이용되면서 안정성이 확보됐다. 그러나 이때 까지도 일부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수준이었다.

캠페인이었지만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컴퓨터통신예절의 시작이었다. 불과 2년 후인 1995년에는 2백만대 이상의 컴퓨터들이 3천1백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었고 네트워크(Network)와 시민(Citizen)의 합성어인 네티즌(Netizen)과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이 합성된 네티켓(Netiquette)¹³⁵⁾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었다. 1998년에는 인터넷 이용자 수가 31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하는 인터넷문화 이면에는 통신예절의 부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도 비례하여 급증하고 있었다. 이에 현대 실천예절의 한분야로 통신예절과 인터넷상의 예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22> 「‘컴퓨터통신 예절’ 거리 캠페인」 (출처: 매일경제, 1993년 10월12일, 32면)

④ 손수운전시대¹³⁶⁾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 우리나라 자동차 총보유대수가 60만대에서 1997년에는 천만대를 돌파하게 되었다.¹³⁷⁾ 급증하는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 자동차운전예절은 아직 초보단계였다. 자동차운전예절의 미흡은 교통사고 발생건수와도 관련이 있는데 1989년에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55,787건, 사망자수가 12,603명에 달할 정도였다. 높은 자동차 사고율과 더불어 주차문제로 이웃과 불화를 겪는 등 준비되지 않은

135) 경향신문, 「네티즌, 네티켓」, 1995년6월7일, 27면.

네티즌은 통신네트워크상의 일원, 네티켓은 네티즌이 지켜야할 예절이라는 의미이다.

136) 경향신문, 「손수운전시대, 올바른 매너」, 1990년4월4일, 19면.

오늘날의 자가운전의 의미로 손수운전이라는 표현을 쓴 기사가 눈에 띈다. ‘손수운전’용어 사용은 1990대 이후 감소하고 ‘자가운전’용어로 대체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37) 국토해양부, 「자동차 등록대수 1세대당 1대에 접근(0.91대)」, 2011년 4월7일

<http://www.mltm.go.kr/>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2011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813만대(자동차 1대당 주민등록인구수 : 2.79명, 1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 0.91대)를 기록하였다.

손수운전시대의 도래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회 각계에서는 교통캠페인을 하고 자동차운전, 보행자에게도 ‘예절’이 있음을 계몽하기 시작했다.¹³⁸⁾ 사고율을 줄이고 전쟁과 같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꾸준히 타인을 배려하는 자동차 운전예절, 보행예절이 강조되고 교통신호 체계가 정비되면서 매년 사고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⑤ 설날의 부활

1989년 2월 2일을 기해 그동안 민속의 날로 격하하여 있었던 음력 정월초하루가 3일 연휴가 되고 그 명칭도 설날로 완전 복귀됐다. 이는 우리 전통문화의 부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정신적 실향민에서 전통 자산을 되찾았다.”¹³⁹⁾라고 하면서 환영하였다. 우리 고유의 명절이었던 설을 일제는 강제로 신정으로 대체하게 하였다. 설날이라는 고유 명칭마저 쓰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이중과세’라는 비난 속에서 우리 민족은 설을 지내고 있었다. 그 설날이 다시 제 이름을 되찾고 명절로서 국정공휴일로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명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예절도 풍속도 윤리도 정서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결과가 되어 경제적으로는 옛날에 비해 훨씬 잘 살고 있지만 그 대신 가족도 이웃도 인정도 그리고 고향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은 현대인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날을 되찾았다는 것은 우리의 잃었던 전통을 바로 세운 셈이며 우리의 예절, 윤리, 생활풍속과 세시기(歲時記)를 되찾은 것을 의미하였다.

예절단체나 언론에서는 재정립된 명절인 설날을 위해 바르게 차례 지내는

138) 동아일보, 「교통캠페인 차선을 지킵시다. 손해보험협회 협찬 교차로 통과에도 ‘예절’ 있다.」, 1999년6월21일, 34면.

동아일보는 1996년부터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였다.

139) 매일경제, 「근본을 택한 설날 복원」, 1989년2월4일, 3면.

방법, 세배하는 법·한복 입는 예절 등을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설날을 계기로 우리 전통을 되돌아보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된 것이다. 또한 한글세대를 위하여 차례나 제사 홀기·축문·지방을 한글로 옮겨 보급하여 한문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도 친숙하게 전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3> 「조상의 얼·뿌리 되살린다」
(출처:매일경제 1990년1월25일 19면)



<그림 24> 「올바른 전통예절」
(출처:경향신문 1994년2월9일 27면)



<그림 25> 「차례상」
(출처:경향신문 1991년2월13일, 9면)



<그림 26> 「민속놀이」
(출처:동아일보 1989년2월2일, 9면)

⑥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

박정희 정권이 1969년에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은 정권이 바뀌면서 그 시행이 호지부지되었고 1980년대 이래 끊임없이 폐지론이 제기되었었다. 1999년 2월에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되면서, 대신 8월에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성년례(成年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수연례(壽宴禮) 등 가정의례에서 모든 국민이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할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1999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이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도록 되어 있다.¹⁴⁰⁾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처음으로 성년례를 가정의례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가정의례에서 제외되었던 관례가 청소년들에게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성년례로 부활하게 되었다.

(4)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예절교육 확대

① 직원 예절교육 확대

기업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서비스 분야가 중요해졌다. 이는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직원들의 예절교육이 필요해짐을 의미하였다. 이에 각 업체에서는 직원들의 예절교육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업체 직장예절교육 “화제”

고객서비스제고일환, 말씨·웃입기 등 가르쳐

주택건설업체인 청구가 직장예절에 대한 교범을 펴내고 직장동료 간 예절은 물론 전화받기, 고객 상담 예절에서 옷매무새까지의 예절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예절교육은 지난해부터 새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이 종래의 공급자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자는 경영전략의 일환이다.¹⁴¹⁾

또한 수출위주의 성장을 지속해온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한 시대에 알맞은 사원들의 예절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¹⁴²⁾

140) 네이버 백과사전, 「건전가정의례준칙」, <http://100.naver.com/>

141) 매일경제, 「건설업체 직장예절교육 “화제”」, 1993년5월12일, 21면.

142) 1995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돌파했고 국민소득이 10,000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예절교육의 부재시대였던 70년대에 성장기를 보낸 신세대들이 입사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에게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예절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기업연수원에서는 옷차림, 몸가짐에서부터 출퇴근 보고, 상담, 전화, 술, 담배, 식사, 연회, 승차, 손님 접대 등에 관한 예의범절을 교육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즈니스예절과 서비스예절을 교육하는 서비스예절전문교육기관이 등장하였다.

각 기업들이 이처럼 신입사원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신세대들이 구세대들에 비해 정보처리능력, 모험과 도전의식, 분석 비판능력 등은 뛰어난 반면에 공동체의식 인내심 예의 및 교양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한 기업의 보고서는 신세대의 특성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다. ‘신세대가 교육받고 사고의 틀을 형성한 70,80년대는 산업화와 개방주의가 전통윤리 및 도덕관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시기다. 또 행정조직과 군부에 대한 저항이 일상태도와 사고에 큰 영향을 끼쳐 신세대일수록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하다. 핵가족 가정에서 풍요롭고 자유분방하게 자라 감정표현에 솔직하면서도 조직에 구속되기를 싫어하고 예의범절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¹⁴³⁾

예절 알아야 성공 경영인

MBA대상 ‘매너 교실’인기, 대학마다 잇단 개설

성공한 경영인이 되려면 예절부터 배워라. 최근 미국에서는 경영학 석사MBA나 과정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매너 교실이 인기다.

많은 경영대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아예 한 학기에 걸쳐 에티켓 강좌를 신설해 각종 예절, 특히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사설에티켓 학원도 MBA출신으로 북적댄다.¹⁴⁴⁾

② 서비스 예절 전문 교육 기관

기업체에서 사원교육을 필요로 하면서 직장예절 교육과 글로벌 예절 교육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예절 전문 교육기관의 선구자는 대한항공산하 종합예절전문교육기관인 서비스아카

143) 동아일보, 앞의 기사, 1993년4월19일, 11면.

144) 동아일보, 「예절 알아야 성공 경영인」, 1998년 11월 5일, 3면.

데미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사에서 직원들을 교육했던 예절교육이 금융회사·백화점 등 대고객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1992년 10월에 서비스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다.¹⁴⁵⁾ 이후 유사한 서비스예절전문교육기관들이 개설되어 기업들의 직원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더욱 활성화하게 되었다.

<표 7> 실천예절 정립기의 예절활동

예절활동		내용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예절교육		전사회적인 예절교육 확대
‘실천예절’의 정립		예절의 현대화, 통일화
청소년을 위한 예절활동	예절교육기관 다양화	예절교육 확산
	예절교육현장의 남녀차별 감소	생활관 교육 재정비
	예절교과목의 도입	인성 기초 마련
	예절 공익광고	예절교육 중요성 강조
삶의 질 향상에 의한 예절의 변화	해외여행자유화	국제매너
	전화 바로 쓰기	전화예절
	컴퓨터 통신	통신예절
	손수운전시대	운전예절
	설날의 부활	전통문화인식 제고
	건전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 폐지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
직원 예절교육 확대		서비스예절전문교육기관 등장

위와 같이 1981년부터 2000년까지의 ‘실천예절 정립기’는 88 서울 올림픽 개최,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 필요성 제기, 사회·경제적 안정에 의한 삶의 질

145) 매일경제, 「예절전문교육 큰 인기」, 1993년5월20일, 27면.

향상, 기업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 상황으로 예절교육이 확산되었던 시기였다. 예절교육이 확산되면서 예절교육기관들의 노력으로 전통예절의 바탕위에 서양예절을 적극 수용하여 현대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예절’을 정립하였다. 이 시기에는 예절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실천예절’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3) 예절서

‘실천예절’ 정립기에는 예절서 발간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부록 2> 참조).

가정의 달 : 예절다룬 책자 발간 “봄”

어린이·학부모·직장인 등 대상도 다양, 산업화 과정 속 잃어버린 덕목 되살리기 취지, 가정의 달인 5월로 접어들면서 예절에 관한 책들이 잇달아 발간되고 있다.¹⁴⁶⁾

1982년에는 이덕무의 『사소절』이 『생활의 예절』이라는 명칭으로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번역·출간되었다¹⁴⁷⁾. 조선시대 규범서인 사소절이 번역·출간됨으로써 전통예절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게 되었고 이후 유사한 예절서들이 번역·출간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전통예절을 현대 산업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예절로 현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작업의 시작으로 1988년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주관하여 김득중·유승욱·황혜성이 공저한 『우리의 전통예절』이 발간되었다. 1992년에는 실천예절의 정립에 중요한 기점이 된 책으로 성균관의 『우리의 생활예절』이 발간되었다. 이



<그림 27> 『우리의 전통예절』

146) 매일경제, 「가정의 달, 예절 다룬 책자 발간 “봄”」, 1991년5월7일, 11면.

147) 경향신문, 「조선때 『사소절』, 『생활의 예절』로 번역출간」, 1982년3월18일, 9면.

예절서에는 공통예절이 이론적으로 확립되어 있었고, 현대적으로 정립한 ‘절하는 법’이 제시되었다. 1996년에는 예절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남상민의 『예절학』이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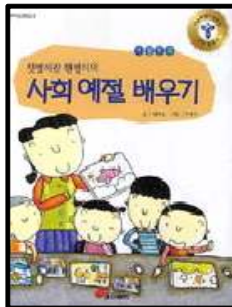


<그림 28> 『우리의 생활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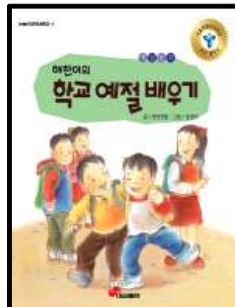
또한 청소년예절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절서가 발간되었다(<부록 2> 참조). 1993년에 성균관에 서 『청소년을 위한 생활예절』을 간행하였고, 『사소절』, 『소학』, 『명심보감』과 같은 청소년 생활규범서가 발간되었다. 이는 우리의 전통가치규범을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예절서로 만화나 동화 같이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류가 발간되었다. 1995년 『만화로 익히는 우리말의 예절』, 2002년 『셋별이랑 한별이의 사회 예절 배우기』와 『해찬이의 학교예절 배우기』 같은 동화가 발간되었다. 대학에서도 대학생 예절교육을 위한 예절서가 검색되었는데, 조기홍의 『예론』, 최성호의 『대학예절』이 발간되었다(<부록 2> 참조)



<그림 29> 『예절학』



<그림 30> 『셋별이랑 한별이의 사회예절 배우기』



<그림 31> 『해찬이 학교예절 배우기』



<그림 32> 『예론』

1990년대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면서 국제매너 관련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비즈니스 예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해외경험 담은 책 조용한 인기
현지관습 예절 등 유익한 정보 제공, 비즈니스 여행 알고 떠나면 큰 도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기업체 해외주재원이나 항공사 승무원의 해외경험을 담은 책들이 최근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책들은 특히 비즈니스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의도로 제작됐으나 세계화 바람을 타고 일반 독자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¹⁴⁸⁾

1990년 말부터는 인터넷 에티켓에 관한 예절서가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 하듯이 세계화와 관련된 글로벌 매너, 직장예절, 서비스와 이미지 관련 예절서가 20종 가까이 발간되었다. 이제 예절을 갖추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을 만큼 예절에 대한 대중의 사고가 바뀌고 있었다.



<그림 33> 해외경험 담은 책 (출처:동아일보, 1995년2월10일, 19면)



<그림 34> 『글로벌에티켓을 알아야 비즈니스에 성공 한다』



<그림 35> 『직장예절』

148) 동아일보, 「해외경험 담은 책 조용한 인기」, 1995년2월10일, 19면.

<표 8> 실천예절 정립기 예절서 발간 수

1980년대		1990년대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1981	1	1991	6
1982	3	1992	9
1983	1	1993	10
1984	4	1994	15
1985	2	1995	14
1986	1	1996	18
1987	4	1997	15
1988	8	1998	9
1989	5	1999	14
1990	5	2000	19
소계	34	소계	129
총합계		163	

3. 실천예절 발전기

실천예절 발전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로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예절교육의 장이 활성화되어 실천예절의 저변이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는 시기이다.

1) 사회적인 배경

2000년 들어 우리사회는 정보화,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가족의 해체, 고령화 사회의 특징을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그중 정보화는 급속한 산업기술의 발전에 의해 전 사회계층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2010년 가

구 컴퓨터 보유율이 81.8%, 인터넷 보급률이 81.6%¹⁴⁹⁾이었으며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동통신망¹⁵⁰⁾을 포함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정보교환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 보급 및 넷북, 스마트폰 등의 인터넷 접속 기기가 다양해지면서 앞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망이 접목된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인 공간의 경계나 시간의 제한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활동 공간인 사이버 공간은 성별, 나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경계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가상공간으로¹⁵¹⁾ 신체적 대면이 필요 없는 익명성·개방성·다양성·시간과 공간을 제약 받지 않는 연결성과 전파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¹⁵²⁾ 반면에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무절제등 윤리의식이 약화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반사회적 행위 등이 확산되며,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은 현실감각을 약화시켜 반사회적인 비정상적 행위를 조장하는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¹⁵³⁾ 이러한 부정적인 면으로 사회적인 갈등과 잠재적인 마찰의 소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

2000년대 우리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이다. 출입국현황을 보면 2009년 출국자 1,759만 명, 입국자 1,762만 명으로 총출입국자가 3,521

149) 통계청,가구 인터넷보급률및 컴퓨터보유율, <http://www.indes.go.kr/>

150)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2010년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인구 백명당 103.9대로 모든 국민이 이동전화를 1대씩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1) 김경동외, 「사이버시대의 사회변동」. 집문당, 2002. p.19.

152) 일례로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튀니지에서 일어난 튀니지 혁명 또는 재스민 혁명은 그 형성과 진파에 인터넷에 의한 정보교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혁명의 결과로 1987년부터 튀니지를 집권한 제인 엘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이 23년 만에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153) 조동기·김병준·조희경,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pp.142~143

만 명이었다. 이는 1996년의 총출입국자 1,771만 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또 외국으로 출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⁵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8년 이후 113만 명이 넘고 있고,¹⁵⁵⁾ 귀화신청자는 2002년 5,147명에서 2007년 23,485명으로 증가하였다. ¹⁵⁶⁾

이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고, 그 중 10명당 1명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며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2002년 3만4710여 명에서 2007년 10만474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업무, 학업 등을 이유로 국내에 단기 거주하는 외국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영구 혹은 장기 거주하며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¹⁵⁷⁾ 배우자의 국적은 2009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경우 총 2만5천1백건에서 중국(45.2%), 베트남(28.8%), 필리핀(6.5%)등 3개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8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⁵⁸⁾ 특히 농림어업종사자 남자의 경우, 2008년 혼인한 남성 6,500명 중에서 2,500명 즉 38.3%에 해당하는 남성이 외국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⁹⁾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인 국제결혼이민자 이외에 이주노동자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3D 업종¹⁶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인력을 충원하면서 국내에 들어왔다. 내국인의 3D업종 기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도 1993년 외국인 산업연

154) 통계청, 「총 출입국자 현황」, <http://www.index.go.kr/>.

155)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인구는 91만9천명으로 전체인구중 1.9%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의 전체인구 중 0.1%대비 18배가 증가하였다.

156) 법무부, 「‘다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구축방안’ 공청회 개최」, <http://www.moj.go.kr/>.
2007년도 귀화신청자 23,485명 가운데 13,908명이 결혼이민자로 전체 귀화신청자의 59%를 차지했다.

157) 동아일보, 「새 이웃사촌 ‘다문화 가정」, 2008년1월2일, <http://www.donga.com/>.

158) 통계청, 「국제결혼현황」, <http://www.index.go.kr/>
2009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33,300건으로 이중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의 혼인은 8천2백건이었다.

159) 통계청, 「2008 혼인통계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160) 3D업종 :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직업.

수제도, 2000년 연수 취업제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었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증가하였다.¹⁶¹⁾ <표 9>에서 보듯이 2009년에 취업외국인은 55만 명을 넘고 있으며 단순 기능 인력이 많다. 이들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며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9> 취업외국인 현황

체류현황 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체류자	551,858명	30,698명	511,160명
합법체류	503,829명	38,497명	465,332명
불법체류	45,683명	2,180명	43,503명

(출처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2010)

우리사회는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금과 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나 이주노동자들과 공존해야 한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으며, 그들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피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탈북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1월까지 총 20,108명이 입국했다(<표 10> 참조),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39세가 5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9세 이하가 16%이며, 40-49세가 15%, 50세 이상이 10%이다 (<표 11>참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161)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2011, 국가인권위원회, p.54.

년 1월 13일 시행)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조사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되어 12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은 연령대별(성인반, 청소년반, 경로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반(하나둘학교)에서, 초등·유치원생은 인근 초등학교 위탁교육을 통해 정규 학교생활을 체험하게 된다.¹⁶²⁾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교육 후 남한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쉽지 않은 적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난과 오랜 탈북생활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이나 체력이 약해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과는 전혀 다른 체제와 환경인 남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도 남한 주민도 아닌 일종의 주변인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⁶³⁾

광복이후 60년 이상을 남한과는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북한 이탈주민들은 사회 적응 문제에 있어서 같은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사람이나 한민족이 아니라 단지 언어만 통하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의 집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¹⁶⁴⁾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원에서의 12주 420시간의 교육만으로 한국사회에 정착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교육 내용을 보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예절부분의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¹⁶⁵⁾

162)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163) 정주신, 「탈북자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7(재인용; 박영호,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과 미디어 교육」,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학석사 학위논문, 2010, p.2.

164) 박영호,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과 미디어 교육」,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학석사 학위논문, 2010, p4.

165) 인천 명진 직업전문학교 <http://blog.naver.com/>

하나원에서는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준비하게 된다. 하나원의 교육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으로 50시간, 우리 사회의 이행증진 시간 135시간, 진로지도·직업기초 능력훈련(177시간), 초기 정착지원(58시간)으로 총 12주에 420시간의 교육과정이 있다. 그중 우리사회의 이행증진 시간을 보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표 10>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0.11월 입국자 기준 : 총 합계 입국 인원 : 20,108명)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0
남(명)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496
여(명)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628
합계 (명)	947	1,043	1,138	1,281	1,894	1,38	2,018	2,544	2,809	2,927	2,124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7%

(출처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표 11>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현황

(~'10.11월 입국자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누계(명)	777	2,327	5,510	6,481	3,136	965	912	20,108
비율(%)	4	12	27	32	15	5	5	100

(출처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근래 다양한 정보와 문화의 유입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가족구조가 변화¹⁶⁶⁾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혼인건수 감소, 이혼건수 증가, 독신가구 수의 증가¹⁶⁷⁾가 가속화 되고 있다.

혼인건수의 감소는 결혼 적령기 남녀의 학업연장, 경제활동 등에 따라 결혼을 늦추거나 독신선호 등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와 관련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해, 한국사 및 관련국가 역사교육, 생활현장 체험, 지역 문화 탐방 등 실생활 위주의 현장학습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166)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 형태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 딩크족, 1인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재혼 가정, 동성커플 가정 등으로 부부와 미혼자녀의 구성이었던 핵가족의 형태에서 가족해체(家族解體)가 일어나고 있다.

167)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보도자료
혼인건수는 1990년 399,312건에서 2010년 326,200건, 이혼건수는 1990년 45,694건에서 2010년 116,900건, 독신가구(1인가구)수는 1990년 10가구 중 한 가구도 채 되지 않았던 비율(9.0%)이 2010년 10가구 중 23.3%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가 전망된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성을 지닌 젊은 독신 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부모세대와 독립함으로써 1인 가정으로 변화된 가족 형태를 구성하게 되었다.

부부의 이혼은 2010년 한 해 동안만 116,900건으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한 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이 증가¹⁶⁸⁾하고 있고, 자녀양육과 가정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인가정 중에는 독거노인가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¹⁶⁹⁾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는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0%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14%이상, 2026년에는 20% 이상의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¹⁷⁰⁾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생산해내는 새로운 세대가 되고 있으며, 공경과 부양의 대상만이 아니라 쌓아온 지식과 노련함으로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세대로 변하고 있다.

16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부모 가구 비율」

한부모가정은 1990년 662,000가구에서 2005년 1,042,000가구로 증가하였고, 이중 이혼에 의해서는 1990년 79,000가구에서 2005년 399,000가구로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대부분 사별이었으나 최근에는 이혼이나 미혼으로 인한 비율이 증가추세이다.

169) 통계청, 「2006년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은 9.5%로 고령화 심화」, 통계청 정책뉴스, 2006년6월29일
2005년 노인부부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비중이 2000년 대비 각각 4.3%p, 1.9%p씩 상승하였다.

170) 통계청,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http://www.index.go.kr/>

고령사회에는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2005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5-64세)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6명당 노인1명을 부양할 것으로

<표 12> 실천예절 발전기의 사회적 배경

사회적 배경 특징	사회적 현상
정보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혁신 -컴퓨터와 통신망이 접속된 인터넷 보급 확산 -사이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징 :의명성·개방성·다양성·연결성·전파성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 공유 ·다양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 가능 ·의명성에 의한 무책임과 무절제등 윤리의식 약화 ·반사회적·비정상적 행위 조장 -휴대폰 보급 확산
다문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화 -체류외국인 증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증가 -장기 체류 이주 노동자와 인력난 해소 -다양한 문화의 유입과 공존
북한이탈주민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정책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하나원 입소 교육 -언어만 통하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 집단으로 인식·배려 필요
가족의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건수 감소 -이혼건수 증가 -독신가구 증가 -가구 구성형태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딩크족, 1인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재혼 가정, 동성커플 가정
고령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1.0%

2) 예절 활동

(1) 정보화 기기 예절

정보화 기기의 급속한 보급률로 사이버 공간상의 예절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실제적인 접촉은 없지만 생각과 관심의 공유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같은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때론 무차별적으로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사이버 상에서 공격하는 사이버폭력을 행사하곤 하는데 현실적인 폭력에 못지않은 파괴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¹⁷¹⁾ 또한 사이버 공간의 비속어와 국적불명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의 사용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다. 청소년들은 가치판단조차 쉽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정보화기기에 노출되어 있고 통제되지 않는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으로 온라인세상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고 현실감이 약화되어 은둔하거나, 게임과 같은 폭력성을 보이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일시적인 학업 부진 및 생활 곤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¹⁷²⁾때문에 구체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공간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사회의 발전을 가져 오고 있지만, 잘못된 활용으로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정보화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각 교육기관에서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71) 사이버 폭력은 현실 공간에서 드러나지 않는 극단적인 사고나 행위가 쉽게 표출되고 전파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일부 연예인들의 자살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172) 최두진·오강탁·서보경(2010).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p.129.
인터넷 중독은 2010년 청소년은 12.4%, 성인은 5.8%, 전체적으로 8%가 인터넷 중독률을 보이고 있다.

① 네티즌 윤리 강령

네티켓은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네티즌이 네트워크상에서 지켜야 할 상식적인 예절을 말한다. 2000년 6월 15일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네티즌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고, 각 학교에서는 네티켓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¹⁷³⁾

네티즌 윤리강령

◆ 네티즌 기본 정신

- ①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 ②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 ③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 ④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진하게 가꾸어 나간다.

◆ 네티즌 행동강령

- ①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②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③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 ④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⑥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 ⑦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⑧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⑨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⑩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②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네티켓

◆ 채팅 네티켓

- ① 입장 혹은 퇴실할 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눈다.
- ② 상대방의 호칭은 대화명님이라 한다.

173)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③ 진행되는 주제에 맞는 대화를 한다.
- ④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 ⑤ 초보자를 위해 배려한다.
- ⑥ 불건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 ⑦ 바른 언어, 좋은 말을 사용한다.
- ⑧ 거짓말은 나쁜 습관, 사이버 공간에서도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 ⑨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 ⑩ 채팅방에서 만난 잘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는다.

◆ 게시판 네티켓

- ① 게시판의 글은 짧고 명확하게 쓴다.
- ② 게시물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제목을 붙인다.
- ③ 문법에 맞는 표현과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한다.
- ④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지 않는다.
- 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다.
- ⑥ 같은 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올리지 않는다.
- ⑦ 태그 사용을 자제한다.

◆ 이메일 네티켓

- ① 이메일 내용은 짧고 간단하게 쓴다.
- ② 첨부파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낸다.
- ③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당한 제목을 붙인다.
- ④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힌다.
- ⑤ 읽기 편하게 줄 간격을 넓혀 쓴다.
- ⑥ 메일 내용을 쓴 후 한번 검토하고 보낸다.
- ⑦ 욕설이나 헐담이 담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 자료실 네티켓

- ① 불법 소프트웨어는 올리지 않는다.
- ② 음란물은 올리지 않는다.
- ③ 자료를 올리기 전에 바이러스 체크를 한다.
- ④ 올릴 자료는 압축해서 용량을 줄인다.
- ⑤ 유익한 자료를 받았으면, 올린 사람에게 감사의 메일을 보낸다.

⑥ 자료를 올릴 때는 이름을 밝힌다.

◆ 게이머를 위한 네티켓

- 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다.
- ② 욕설, 비방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사용한다.
- ③ 게임도 스포츠의 한 종류로 생각하고 정정당한 자세로 임한다.
- ④ 같이 게임하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 ⑤ 게임 종료 후 이기고 집에 상관없이 정중히 인사한다.



<그림 36> 「인터넷 악플 없는 대한민국」
(출처: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

③ 이동전화 예절 6계명

이동전화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통화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전화예절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각계에서 ‘휴대전화 예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 한국통신문화재단(이사장 성영소)에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주제로 ‘엔조이 커뮤니케이션21(Enjoy Communi-cation 21)’ 캠페인을 벌이면서 휴대전화 예절 6계명을 발표하였다.

◆ 휴대전화 예절 6계명

- ①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잠시 꺼두자=공연장 극장 상가 등에서는 벨소리가 일순간에 분위기를 망친다. 잠시 전원을 끄고 쉬는 시간에 음성이나 문자사서함을 확인하자.
- ② 불륨을 최대한 줄이자=낮은 목소리로 통화하자.
- ③ 걸려오는 전화는 바로 받자=여러 번 울리는 전화벨은 주위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

- ④ 전화를 먼저 건 사람이 먼저 끊는 게 원칙=단 손님과 상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끊은 것을 확인하고 끊는 것이 예의다.
- ⑤ 항공기와 주유소, 병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자=비행기 안에서 전화를 걸면 자동기기 오작동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 전자파는 주유소에서는 스파크로 인한 화재를, 병원에서는 정밀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 ⑥ 운전 중엔 반드시 핸드프리 사용을=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소주 6, 7잔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 사고확률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 4배나 높다.



<그림 37> 「서울메트로 지하철 휴대전화예절」
(출처: Seoul Metro, <http://blog.naver.com>)

(2) 예절교육기관과 예절자격증제도

197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예절교육단체들은 그동안 예절교육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활약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 각 예절교육단체에서 교육받은 예절강사들이 전국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예절교육단체 산하 지부를 개설하였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절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1994년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문화원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 문화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예절교육의 장이 되었다. 일부 시도의 장들은 이전의 시장관사를 시민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예절, 다례, 학교방문 예절교육 등 다양한 예절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예절관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¹⁷⁴⁾ 이와 같은 예절

174) 국민일보, 「단체장 관사 시민걸음으로」, 2002년7월14일, <http://news.naver.com>

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이를 위탁 교육할 예절 강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절강사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예절교육단체와 예절강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하였고, 양성된 예절강사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예절전문인 자격증 제도’가 도입 되었다.

① 예절교육단체

2011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절교육단체는 <표 13> 과 같다. 지역별 예절교육단체의 현황을 보면 서울이 17개, 경기지역이 19개, 경북이 9개, 경남이 10개, 전북이 5개, 충북이 1개, 충남이 3개, 강원이 1개, 제주에 1개의 단체가 있었고, 전남지역은 검색이 되지 않았다.¹⁷⁵⁾

전국에서 한 지역에 예절교육장소가 몰려 있는 곳이 경남의 청학동 지역으로 경남지역 10개의 예절교육장 중 청학동에만 8개의 예절교육장이 몰려있다. 청학동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한문서당으로 개설하였으나 개인수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절교육을 병행하기 시작하였다.¹⁷⁶⁾ 이들은 주로 청소년 대상의 예절교육기관으로 간단한 생활예절위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8> 「청학동에서 전통문화교육」 (출처:매일경제, 1998년 12월12일 25면)

처음 소수의 예절교육단체가 자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하였을 때인 1970년대에 비하면 현재는 전국 각지에서 예절교육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절교육단체 중 지부를 갖고 있는 단체를 살펴보면, 성균관은 전국 234개 지역향교에서 예절캠프와 예절교육을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장 관사를 예절관으로 바꿔 운영한 곳이 안양예절관이다.

175) 전남지역은 “순천향교 소속 예절교육관”이 활동 중이나 성균관 소속 향교는 개별 단체로 표시하지 않았다.

176) 경향신문, 「청학동 ‘땡기머리 총각’ 다음 달 예절학교」 연다, 1999년4월29일, 25면.

다.¹⁷⁷⁾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전국적으로 22개의 예절지도사회가 있어 예절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¹⁷⁸⁾ 한국전례연구원은 전국에 29개의 예절교육기관과 제휴하고 있다.¹⁷⁹⁾ 한국전례원은 전국 17개 한국전례원지부가 활동하고 있고,¹⁸⁰⁾ 사단법인 한국예절교육협회도 8개의 지부가 있다.¹⁸¹⁾ 예지원은 3개의 지부 중 미국뉴욕에 지부가 있어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예절을 알리는데 한발 앞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명원과 한국 차문화협회가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② 예절자격증 제도

예절자격증은 전국 15개의 예절교육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표 14> 참조). 자격증은 주로 민간자격증이며,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실천예절지도사만이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각 예절교육단체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주게 되는 예절자격증 제도는 각지에서 활동하는 예절강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예절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 중 차(茶)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7개의 자격증은 차와 관련된 예절을 교육하는 지도사자격증으로 실천예절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예절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절자격증발급기관 중 한국전례연구원은 유치원 원아에서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별로 예절의 교육정도와 실천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천예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인증제도는 앞으로 연령별 예절교육의 사전계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7) 성균관 <http://www.skkok.com/>

178)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http://www.kace.or.kr/>

179) 한국전례연구원 <http://www.wooriyejeol.or.kr/>

180) 한국전례원 <http://junrewon.or.kr/>

181) 사)한국예절교육협회(<http://www.koreaetiquette.com/>)

<표 13> 예절교육단체 지역별 분류

(2011년 4월말 현재)

지역	개소	예절교육기관	지역	개소	예절교육기관		
서울	17	관악예절원	경기	19	고양예절원		
		색동예원 유아아동 예절연구소			가평다예린다도원		
		서비스플아카데미			과천예원		
		성균관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예명원			도립서당		
		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서봉서원		
		예지원			수원시에절교육관		
		운현궁 예절학교			안산시행복예절관		
		청년여성문화원			안양시에절교육관		
		탑서비스아카데미			안양예절원		
		한국서비스아카데미			예사랑예절교육원		
		한국예절교육협회			용인시 예절교육관		
		한국예절문화원			인천예절원		
		한국전래연구원			청학서당(경기도 이천)		
		한국전래원			청학동 흥문서당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평택시에절교육관		
		전국예절지도자회			한국서비스연구소		
한국차문화협회	화성예절원						
경북	9	경주예절원			경남	10	현대도예문화원
		도산우리에절원	(사)예종원				
		고령군향토문화학교	부산전통문화원				
		선비촌	청학동고목당예절학교				
		안동예절연구원	청학동명륜학당				
		안동예절원	청학동명심서당				
		안동예절학교	청학동 수신정				
		우리에절연구회	청학동서당 예절학교 청소년수련원				
		유빈차명상예절교육원	청학동 선비학교 지산관				
전북	5	경화궁 서당 (인원서당)	충남				청학동예절학교 선비서당
		남원서당					청학동예절학교 청림서당
		선비문화체험관 우리누리					공주도령서당
		전북예절원					양지서당
강원	1	김봉곤의 청학동예절학교	충북	1	옹진예원		
		운봉 공안서당			청주예절원		
제주	1	제주예절원					

<표 14> 예절자격증현황

No.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주관기관
1	2011-0022	전통예절지도사	-	(사)도산서원선비문화
2	2010-0420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1급, 2급	(재)명원문화재단
3	2010-0412	전통차예절사범증	-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4	2010-0384	예절지도사	전문가과정	(사)한국문화교육협회
5	2010-0264	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사)한국차문화협회
6	2009-0330	예절교육지도자	1급	(재)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7	2009-0288	전통차예절지도사	-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8	2009-0285	예절교육지도사	-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9	2009-0252	차도예절사 자격증	-	(사)한국담마요가협회
10	2009-0227	예절지도사	1,2급	(사)한국전례원
11	2008-0591	예절지도사자격증	1,2급	(사)설가차문화연구원
12	2008-0448	청소년예절지도사	1,2,3급	(사)월드유스비전
13	2008-0427	예절자격증	전문인1,2,3급, 소양인증	한국전례연구원
14	2008-0142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15	2008-0085	차예절지도사	-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

(3) 예절활동의 주축이 된 여성들

경제력이 향상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주부들이 삶의 여유를 갖기 시작하였다. 주부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품격 있는 문화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럽게 생겼다. 또한 평생교육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와 자원봉사에 대한 자각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움을 찾아다녔고 사회단체의 예절교육과정과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다도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러한 교육을 주도한 대표적인 여성으로는 예지원 강영숙원장과 청년여성문

화원 진민자원장,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레이사장, 예명원 손민영원장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예절과 차를 교육하면서 여성예절교육을 선도하였다. 이외에 성균관의 여성유도회와 주부클럽, 전국 주부교실 등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예절교육을 하였다.

1990년대에 예절교육이 확산되고 예절지도강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각 예절교육단체에서 교육받은 많은 여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후 예절교육의 주축이 되어¹⁸²⁾ 가정과 각 학교, 사회단체에서 예절을 지도하고 올바른 예의문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9> 「부모님과 함께 예절교육」
(출처:인천실버기자단,2011년1월27일)

(4) 노인들에 의한 예절활동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정책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 분야의 예절강사제도이다.¹⁸³⁾ 예절강사 제도는 ‘예절지킴이 활동’으로 명명되어 지방자치단체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초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의 예절지킴이 활동은



<그림 40> 「시립도봉노인복지관 노인들의 예절지킴이활동」
(출처:http://dobongnoin.or.kr/)

182) 한국전례연구원 <http://www.wooriyejeol.or.kr/>

한국전례연구원의 경우 1993년부터 2011년 1월 말까지 배출된 예절지도강사는 총인원 1,334명이며 이 중 남성은 367명, 여성은 967명으로 여성이 3배 가까이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183) 보건복지부, 「노인지원정책」, <http://www.mw.go.kr/>

어린이들의 예절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2001년 이후의 ‘실천예절 발전기’는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문화 유입으로 예절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문화원과 예절원이 설립되면서 예절교육의 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예절교육단체에서 예절전문강사들이 우리사회의 올바른 예의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을 위한 예절강사 양성프로그램과 예절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예절강사의 주축이 되어 청소년예절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예절지킴이 활동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5> 실천예절 발전기의 예절활동

예절 활동	내 용
정보화 기기 예절	-사이버공간 예절 ·네티즌 윤리강령 ·네티켓 -휴대전화예절 6계명
예절교육기관과 예절자격증 제도	-지방문화원진흥법제정 -예절교육기관의 전국적 분포 -예절강사인증 -예절소양인증
예절활동의 주축이 된 여성들	-다수의 예절강사 배출 -전국적인 활동
노인들에 의한 예절활동	-예절지킴이 활동

3) 예절서

도서관 4곳의 장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예절서의 연도별 발간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매년 다수의 예절서가 발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매년 30종이 넘는 예절서가 발간되고 있었다(<표 16> 참조). 2000년대 예절서를 살펴보면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는 세계화·다문화·정보화와 관련된 예절서가 발간되고 있었다. 특히 세계화와 관련하여 국제 매너에 관한 예절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2010년 한해의 경우 전체 예절서 17종 가운데 8종이 국제매너 예절서였다(<부록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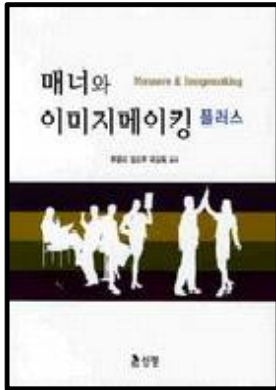
비즈니스 예절서도 다양하게 발간되고 있는데 직장예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예절서,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장을 위한 골프장에서의 매너, 와인 레스토랑에서의 매너 등과 같이 시대적 추세에 따른 예절서가 발간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에 관련된 예절서, 타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절서가 발간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예절교육서도 발간되고 있었다.

<표 16> 실천예절 발간기 예절서 발간 수

2000년대	
연도	예절서
2001	14
2002	14
2003	24
2004	20
2005	12
2006	30
2007	31
2008	19
2009	27
2010	17
합계	208



<그림 41>
『이슬람의 에티켓과 금기』



<그림 42>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



<그림 43> 『매너골프로 승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그림 44> 『와인 레스토랑 이용 에티켓』



<그림 45> 『e시대의 정보통신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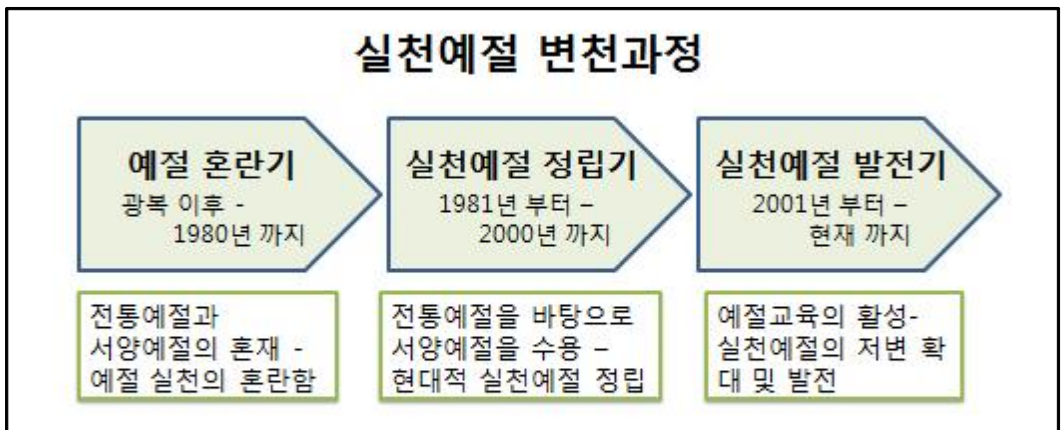
<그림 46> 『청소년예절교육』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사회 상황과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의 사회 상황에 따른 예절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실천예절의 변천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예절 혼란기, 실천예절 정립기, 실천예절 발전기로 구분하였다.



<그림 47> 실천예절 변천과정

예절 혼란기는 광복이후부터 1980년까지로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제개발을 이루기 위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중심 사회에서 현대 도시사회로 사회구조가 변화된 시기였다. 사회구조가 도시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 생활에 적합한 예절의 격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전통의 가치관을 내포한 전통예절과 서구 산업사회에서 들어온 서양예절은 서로 양립하면서 필요한 예절의 격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당시의 예절 교육은 기관에 의해 제도적인 방법으로 권장되고 시도되었으나 국민의 호응을 얻

지 못하였고 교육현장의 도의교육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다. 예절은 실생활에서 실천될 때에 그 의미가 있고 예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나, 생활에 맞는 적합한 예절을 찾지 못한 사회적 상황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절 실천의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식부족으로 우리사회는 예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었다. 또한 사람들에게 예절 실천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실천을 도울 지침서가 될 만한 예절서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사회적으로 필요성 자각부족과 실생활에서 실행 가능한 격식이 약속되지 않았을 때 예절의 실천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혼란기 예절 부재의 상황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예절교육단체의 활동은 실천예절변천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시기의 예절교육단체는 예절실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실천예절 정립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실천예절 정립기는 1981년부터 2000년까지로 사회적으로 예절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면서 우리의 민족의식과 가치관을 지닌 전통예절에 서양예절을 접목하여 산업화된 도시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현대적 ‘실천예절’을 정립하게 된 시기였다. 시민의식함양에 필요한 예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회적 상황과 예절교육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사회적으로 예절을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실천예절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예절실천의 필요성 자각은 예절서 출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88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예절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이 여유를 갖게 되자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에 예절서의 내용도 다양해졌다. 실천예절 정립기에는 현대 생활에 실천하기 적합한 예절이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예절’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였다.

예절을 실천해야 하는 대상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나섰을 때 예절실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생활에 적합한 예절의 격식도 자연스럽게 갖

추계 뒀을 실천예절정립기의 전개상황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88 서울올림픽이 예절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전체적인 자각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합한 예절교육을 제공하고 실행 가능한 현대적 실천예절을 정립하는 데에 앞장서서 활약한 예절교육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실천예절 발전기는 2001년부터이며 기술혁신으로 정보화기기와 문명이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예절이 필요해지고 있다. 예절교육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예절교육단체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등 실천예절의 발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질적인 발전을 도모한 시기로 각 예절교육단체별로 예절교육 지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예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절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절서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발간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매너에 관한 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상황변화에 적합한 예절의 격식을 도출해 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이전과 같은 예절의 혼란이나 부재 시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란기의 예절활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방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예절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절교육의 장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의 실천예절의 지향점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광복이후 현재까지의 시대적 사회상황 변화에 따른 실천예절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연도별 예절서의 변화를 통해서 예절분야의 변화와 예절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7>, <표 18> 참조).

<표 17> 실천예절 변천과정

과정	사회적 배경	예절활동	예절서	
예절 혼란 기	-좌·우 이데올로기 이념대립 -한국전쟁 -한국적도시화	도의교육 위주의 예절활동	-MRA운동 -도의교육연구회 -의례규범제정 시도 -여성교양교육	-1945년 ~ 1980년: 총 35종 검색 가능 -백과사전류 예절서 발간
	-경제개발정책 -산업화 -도시화	관주도 예절활동	-국민예절기준 -예절의 달 -표준의례제정 -가정의례준칙제정 -국민의례규범 -여학생 생활관교육 -광주 학생 '생활태도확립운동'	
		예절교육기관자생	-예절교육단체의 활동	
실천 예절 정립 기	-88서울올림픽 개최 -삶의 질 향상 -청소년 예절 교육 필요성 대두 -기업환경변화	시민의식함양제고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예절교육 -‘실천예절’의 정립	-1981년 ~ 2000년: 총 163종 검색 가능 -실천예절 정립을 위한 예절서 -청소년 예절서 -서비스 매너 예절서 -국제매너 예절서
		다양한 삶의 방식	-해외여행자유화-국제매너 -전화바로쓰기-전화예절 -컴퓨터 통신-통신예절 -손수운전시대-운전예절 -설날의 부활-전통문화인식 제고 -건전가정의례준칙	
		청소년 예절교육 확대	-예절교육기관 다양화 -예절교육현장의 남녀차별 감소 -예절교과목의 도입 -예절공익광고	
		직원예절교육 확대	-서비스 매너, 글로벌 매너 교육	
실천 예절 발전 기	-정보화 사회 -다문화 사회 -북한 이탈주민 정착 -가족의 해체 -고령화 사회	정보화기기에절	-사이버공간 예절 ·네티즌 윤리강령 ·네티켓 -휴대전화예절 6계명	-2001년 ~ 2010년: 총 208종 검색가능 -국제매너 다수발간 -시대적 추세에 따른 다양한 예절서 발간
		예절교육기관과 예절자격증 제도	-지방문화원진흥법제정 -예절교육기관의 전국적 분포 -예절강사인증 -예절소양인증	
		예절활동의 주축이 된 여성들	-다수의 예절강사 배출 -전국적인 활동	
		노인들 예절활동	-예절지킴이 활동	

<표 18> 연도별 예절서 발간 수

(예절서 총합계 : 406종)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연도	예절서
1951	0	1961	1	1971	4	1981	1	1991	6	2001	14
1952	0	1962	0	1972	3	1982	3	1992	9	2002	14
1953	0	1963	0	1973	3	1983	1	1993	10	2003	24
1954	0	1964	2	1974	1	1984	4	1994	15	2004	20
1955	1	1965	1	1975	2	1985	2	1995	14	2005	12
1956	0	1966	2	1976	0	1986	1	1996	18	2006	30
1957	0	1967	1	1977	2	1987	4	1997	15	2007	31
1958	1	1968	1	1978	1	1988	8	1998	9	2008	19
1959	1	1969	3	1979	0	1989	5	1999	14	2009	27
1960	2	1970	1	1980	2	1990	5	2000	19	2010	17
소계	5	소계	12	소계	18	소계	34	소계	129	소계	208

2. 결론

예절과 예에 있어 외재적인 예절의 격식은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만 내재적 본질인 예는 효(孝)와 경(敬)에 근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천예절의 지향점도 효와 경를 바탕으로 하여 실천예절의 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향후 실천예절활동이 나아가야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절교육에 있어 격식과 실천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본질인 ‘경(敬)’에 충실하여야 한다. 관주도로 예절교육이 전개되었던 예절혼란기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것은 사람위주가 아닌 정부시책을 위한 예절활동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특정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예절을 강조할 때 사람들의 자발적인 실천에는 이르지 못한다. 예절의 격식만 있고 본질인 경의 마음이 없다면 가식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이며, 이는 대인관계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게 되고 예절의 실천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실천의 의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정의 해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무례함, 문명이기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 등은 바로 상대에 대한 ‘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계몽하기 위해 공익적인 표어나 광고를 이용하지만 형식에 치우칠 뿐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외 이주민,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에 있어서도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그들을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예의 본질인 경이 부족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예절교육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예절의 외형적인 활동범위를 넓혔다면 앞으로 좀 더 심층적인 내적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예절교육단체의 예절교육내용을 통일해야 한다. 실천예절이 정립될 때 현대생활에 적합한 예절의 격식을 갖추게 되면서 예절단체들이 호응하여 통일된 모습을 이루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많은 예절단체들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교육하면서 예절의 가가례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예절교육단체들은 그들이 소속한 지역별·기관별로 그들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예절의 격식도 달리하게 되면서 예절의 통일성이 1990년대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기관의 목적에 따라 타 문화를 수용하면서 국적 불명의 예절로 변질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 자칫 예절문화가 예절혼란기와 같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내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내용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체계화되면 예절강사들의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예절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제도적인 차원에서 예절교육단체들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예절교육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단체가 개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예절교육을 행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94년에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문화원 설립이 권장되었지만,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법제이기 때문에 지방단체장의 예절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예절교육장 개설이 좌우되는 실정이다. 일부지역의 경우 전폭적인 지원으로 예절원이나 예절교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영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예절교육장의 개설이 어려운 곳도 있다. 때문에 예절교육장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예절교육의 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예절교육의 질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절교육을 예절교육단체에 일임해온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바른 인성을 위한 예절교육에 있어 전 국민에게 고르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바른 예절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예절교육과 예절교육단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정보화시대와 같이하는 새로운 시각의 예절서 발간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매년 20종이상의 예절서가 발간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의 출판물에 비해 그 양이 극히 적은 양 일뿐이고 그 독자층도 일부 층에 불과하다. 예절서의 저변확대를 위해 예절서 내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발간의 형태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서적의 종류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맞는 형태로의 보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는 무분별하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청소년들의 심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와 예절에 관한 내용이 읽힐 수 있다면, 사이버 공간이 또 다른 예절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예절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젊

은 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디자인과 내용, 전자책 형태의 보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까지 읽힐 수 있는 예절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가정 내 예절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예절교육은 전통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졌지만 현대 산업사회에 오면서 사회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즉,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상황에 의해 예절교육의 주체가 가정에서 사회체도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예절은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훈련하여 습관화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실천 가능한 것인데, 사회교육으로서의 예절교육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육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예절교육을 위해서 가정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예절교육을 행함으로써 가족 간에 예를 갖추게 되면 무례에서 오는 가족구성원간의 경시(輕視)가 없어지고 가정해체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간의 예절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에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수가 급증하고 있고 개성공단 같은 남북한 간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의 예절문화에 대해 진지한 탐색이나 인식의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부적응에 대한 이유가 남한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이며, 일부 전문가들의 ‘이들을 언어만 통하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 집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남북한은 오랜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남측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은 예절문화를, 북측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전개해온 예절문화를 지니고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타협 없이는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만약에 서로의 예절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급격한 상황변화를 맞는다면 우리사회는 제2의 예절혼란기를 맞을 수도 있다. 같은 민족으로서 다른 격식의 예절을 행한다면 서로

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불신으로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남북한의 교류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절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이질문화권에서 우리사회에 편입된 이주민들을 위한 예절·문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예절문화를 올바르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는 문화의 차이는 사회적응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는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미래 세대가 될 다문화가정의 2세대인 경우 어머니 나라의 예절문화와 우리나라의 예절문화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사회부적응의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제도권과 예절교육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아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국민도의연구회편(1955). 『실천국민예법』. 문교사.
- 김경동외(2002). 『사이버시대의 사회변동』. 집문당.
- 김득중외(1988). 『알기쉽게 풀이한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김득중(2007). 『지향가정의례』. 중화서원.
- _____ (2008). 『실천 생활 예절』. 중화서원.
- 남상민(1996). 『예절학』. 박영사.
- 노버트 엘리아스, Nobert Elias, 유희수역(1995). 『매너의 역사』. 신서원.
- 박연차·남성희(1997). 『생활예절』. 학문사.
- 박한표(2007). 『매너, 마음을 사로잡는 힘』. 한.
- 성균관(1992). 『우리의 생활예절』. 성균관.
- 신태민(1966). 『에티켓 선생, 상·하』. 정음사.
- 안지영(1984). 『현대를 사는 생활예절』. 양영각.
- 오성환·권오상·김금수(2003). 『직장예절』. 형설출판사.
- 여원(1959). 『현대여성생활전서 ⑧ 예절』. 여원사.
- 유인진(2009). 『북한이주민-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 정책』. 집문당.
- 이덕무저·이동희역(1982). 『생활의 예절』. 민족문화추진회.
- 이인희(1965). 『현대인의 에티켓, 매력에의 초대』. 수학사.
- 이정우외(2008). 『고품격 현대 생활 매너』. 양서원.
- 임혜경(2001). 『신세대를 위한 예절 길라잡이』. 호미.
- 조동기·김병준·조희경(2001).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한국전례연구원3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2007). 『한국전례연구원 30년사』. 중화서원.

호텔신라서비스교육팀(1994). 『현대인을 위한 국제매너- 호텔신라가 공개하는 국제 매너와 에티켓』. 김영사.

<논문>

강선미(1999). 「한국 혼인의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원(2006). 「박정희정권 시기 가정의례준칙과 근대화의 변용에 관한 연구」. 답론 201 9(3), pp.191~223.

국가인원위원회(2011).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권미경(2003).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민주 시민 교육내용 비교분석」. 청주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복순(2007).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18, pp.7~60.

김대환(1969). 「도시민의 성격과 시민의식」. 특집 시정과 시민, pp.2~12.

_____ (1972). 「도시화시대의 시민의식과 시민도덕」. 특집 도시개발과 새마을 운동, pp.25~34.

_____ (1978). 「고도산업사회의 본질과 시민의식」. pp.28~35.

_____ (1983). 「주인의식과 시민윤리」. 특집 지방행정과 주인의식, pp.12~21.

김민수(2010). 「정보화시대의 가족관계개념 변화에 따른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석사학위논문.

김정화(2010). 「성년례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제13권 2호, pp.29~54.

김태현(2001).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농촌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pp.5~40.

김형석(1989). 「예의 본질과 기능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현대사회와

- 예,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편, 탐구당, pp.7~30.
- 도정명(1988). 「선진시민의식으로 민족의 저력 과시-서울시의 입장-」. 특집 /88서울올림픽의 회고와 결산, pp.8~17.
- 류칠선(2003). 「사소절에 나타난 현대 유아예절교육의 암시」. 한국유아교육학회 2003 연차 학술대회, pp.281~289.
- 문종필(2007). 「초등 사회과 관혼상제 관련 내용 및 학생인식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문화 향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박영호(2010).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과 미디어 교육」,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2002). 「정보윤리교육과 민주시민의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성(1999). 「시민의식개혁」. 한국논단 9월, pp.84~88.
- 박한표(2004). 「매너의 역사, 세련화인가? 아니면 본능적 충동의 억압인가?」. 서양사학 연구제11집, pp.79~98.
- 법무부(2007).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연구」.
- 보건사회부(1969). 「가정의례해설」.
- 손창환(1958). 「의례규범제정의 의의」. 국회보18, 국회사무처, pp.51~58.
- 오일환(1997).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장과정과 성숙요건」. 민족사상연구4, pp.79~108.
- 외교통상부(2008). 「우리나라 대외원조 현황 및 정책 방향」. 외교통상부.
- 유석렬(1996).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과 시민의식」. pp.11~24.
- 유재일(1957). 「의례규범에 대한 문제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pp.62~69.
- 이승주(2005).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 공안행정학회, pp.17~44.
- 이정규(1969). 「시정을 위한 시민의식의 함양」. 특집 시정과 시민, pp.28~29.
- 임현모(2003).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한국동북아
논총 29, pp.273~296.
- 임희규(1994). 「생활예절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창간호, pp.212~230.
- 장경선(1992). 「가정과 교육을 통한 예절교육 실태에 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세면(2005).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과 학습지도 방안 연구 : 하나원 하
나들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학 석사학위논
문.
- 장윤수(2001). 「오늘 우리에게 예란 무엇인가?」. 예절교육 제9집, 경상북도
예절교육연구회.
- 정성호(2002). 「한국인의 시민의식 현황과 과제」.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41, pp.211~230,
- 정주신(2007). 「탈북자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 최기호(1995).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통생활예절의 생활화에 관한 연구」. 조
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두진·오강탁·서보경((2011).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0」. 한국정보화진흥
원.
- 최응렬·이재영(2008).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한국공안
행정학회보 제32호, pp401~436.
- 통계청(2006). 「통계로 본 8.15광복 이후 경제·사회 변화상」. pp.1~34.
- 하명희(2007). 「예절 인지와 실천 및 학교 예절 교육 요구도 분석-학생, 학부
모, 교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응선(1989). 「예절의 교육, 현대사회와 예」.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편, 탐구당, pp.401~429.

홍춘미(1970), 「가정의례(혼상제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경희(1994).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윤리·도덕교육의 내용 변화에 관한 연구-중학교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 웹사이트>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고려대학교 도서관 <http://library.korea.ac.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dina.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사)한국예절교육협회 <http://www.koreaetiquette.com/>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snu.ac.kr/>
서울메트로 <http://blog.naver.co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성균관 <http://www.skkok.com/>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sungshin.ac.kr/>
시립도봉노인복지관 <http://dobongnoin.or.kr/>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
여명학교 <http://www.ymschoo.org/>
예지원 <http://www.yejiwon.com/>
인천 명진 직업전문학교 [http://blog.naver.com/](http://blog.naver.com;)
인천실버기자단 <http://cafe.naver.com/incheon.silver.cafe/>
통계청 <http://www.index.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한겨레중고등학교 <http://han.hs.kr/>
한국방송광고공사 <http://www.kobaco.co.kr/>
한국YWCA연합회 <http://www.ywca.or.kr/>
한국전례연구원 <http://www.wooriyejeol.or.kr/>
한국전례원 <http://junrewon.or.kr/>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http://www.kace.or.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pqi.or.kr/>

Abstract

A Study on Course of Change of “Shilcheon Yejeol”, After Independence

Kim Jeong Hwa
Major in Propriety and Tea-Ceremony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article we intend to consider on changing process of “Shilcheon Yejeol” from aspect of contemporary social situation. During this study, we referred to documents and media in search for definition of “Shilcheon Yejeol”, researched on movements on “Shilcheon Yejeol” and their social backgrounds, and studied on “Shilcheon Yejeol” changing with the social situations.

This article divides the changing process into three stages: Chaotic Stage, Establishment Stage, and Development Stage. Based on this division, we studied on development of movements on “Shilcheon Yejeol” and trend of documents, in correlation with social backgrounds of each stage.

The first stage, Chaotic Stage takes place in period from independence

to the year 1980. This stage has undergone a disorder from lack of proper form of “Yejeol” in match with industrialized urban society, along with conflict between “Shilcheon Yejeol” of traditional Korea and etiquette of western hemisphere. The society of this stage was also going through times of great changes, with independence followed by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left and right, the Korean War, economic collapse, an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fter 1960. Activities on “Shilcheon Yejeol” have mostly been conducted by government in institutional forms, but have failed to gain sympathy from the mass, which was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Documentations were mostly in forms of dictionary format, being treated as a kind of educational books for women. Its contents were also inconsistent, with western and Korean traditions conflicting with each other, and therefore being inadequate to actually contribute in practice of “Shilcheon Yejeol”.

The Establishment Stage takes place from year 1981 to 2000. In this stage, some elements of etiquettes have been adopted into traditional Korean “Shilcheon Yejeol”, refining the “Shilcheon Yejeol” so that they could actually be practiced in real life. In the social background of this era there was '88 Seoul Olympics, Improvement of quality and diversion of forms of life from economic growth, and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s. In this stage, education of “Shilcheon Yejeol” has been widespread in need of development of civic consciousness, mainly lead by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Shilcheon Yejeol” dealing with education of “Shilcheon Yejeol”. In realization of need of realistic “Shilcheon Yejeol”, these institutions developed “Shilcheon Yejeol” that are eligible of

practicing in modern urban society. The number of published documents concerning the topic began to grow in since 1988, and by the 1990s more than 10 of the documents were published every year. Documents aiming for the settlement of “Shilcheon Yejeol” have been published by the institutions, along with publish of documents for teenagers, international etiquettes, and business etiquettes, all in reflection of their social background.

The Development Stage starts from 2001. From this period the activities and education concerning “Shilcheon Yejeol” have greatly been invigorated. With the society being informationized, globalized, multi-culturized and aging, more and more North Korean defectors are settling in Korea while the families are becoming nuclearized. Meanwhile it is also going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s, raising new need for new and improvised “Shilcheon Yejeol” for the new way of life. In the movement of practical education, educational institutes are established nationwide. To gain professionalism of the instructors of the institutes, training programs and license system has been introduced. Over 20 documents on “Shilcheon Yejeol” are being published every year, most of them concerning international etiquettes. A variety of books on business “Yejeol” are also being published, along with books introducing “Yejeol” of other cultures and books about communication “Yejeol” in reflection of information era.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forms of “Shilcheon Yejeol” change with the changes of social situations. Also, trend published documents are also found to be changing according to contemporary

demands on certain categories of “Shilcheon Yejeol”. However, no matter how forms of “Yejeol” change, it should always be found on its very essences: respect to parents and respect to others. Therefore, its future orientations should be based on those essences. The suggestions on future orientation of “Shilcheon Yejeol” are as follow.

First, in education of “Yejeol”, its emphasis should be on its essence, respect, rather than its forms.

Second, contents of educations from “Shilcheon Yejeol” related institutions scattered over the country must be standardized.

Third,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s must be supported from the political level.

Fourth, new “Shilcheon Yejeol” documentations with new perception and concept must be published.

Fifth, social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educations of “Shilcheon Yejeol” within home must be improved.

Sixth, a measure to overcome the difference of “Yejeol”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prepared from government level, in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of Korea.

Seventh, “Yejeol”·cultural programs must be strengthened for immigrants from other cultures.

<부록 1> 예절교육기관

(2011년 4월말 현재)

지역	기관수	예절교육기관 명	인터넷 사이트
서울	18	관악예절원	http://gwanakyae.co.kr/
		색동예원 유아아동 예절연구소	http://sdew.kidis.co.kr/
		서비스풀아카데미	http://www.servicepool.co.kr/
		성균관	http://www.skkok.com/
		예명원	cafe.daum.net/iyemyung/
		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http://www.yejeol.or.kr/
		예지원	http://www.yejiwon.or.kr/
		운현궁 예절학교	www.unhyungung.com/
		청년여성문화원	http://www.cyw.or.kr/
		탑서비스아카데미	http://www.tophrd.com/
		한국서비스아카데미	http://www.ksa1992.co.kr/
		한국예절교육협회	http://www.koreaetiquette.com/
		한국예절문화원	http://www.etiquette.or.kr/
		한국전례연구원	http://www.wooriyejeol.or.kr/
		한국전례원	http://junrewon.or.kr/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전국예절지도자회	http://www.kace.or.kr/
		한국차문화협회	http://www.koreatea.or.kr/
		경기	19
가평다예린다도원	http://www.gapyeongdayerindadowon.com/		
과천예원	http://www.gcyawon.or.kr/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http://www.gvj.kr/		
도립서당	http://www.dorip.com/		
서봉서원	http://www.chunghak.org/		
수원시예절교육관	http://www.yesuwon.co.kr/		
안산시행복예절관	http://www.ansanetiquette.or.kr/		

		안양시예절교육관	http://ye.anyang.go.kr/
		안양예절원	
		예사랑예절교육원	http://www.yedu.com/
		용인시 예절교육관	http://ye.yonginsi.net/
		인천예절원	http://www.incc.or.kr/
		청학서당(경기도 이천)	http://chunghakseodang.co.kr/
		청학동 홍문서당	http://www.hongmunschool.com/
		평택시예절교육관	
		한국서비스연구소	http://www.ksri.co.kr/
		화성예절원	http://www.hsyejeol.or.kr/
		현대도예문화원	http://www.hddoye.co.kr/
경북	9	경주예절원	http://cafe.daum.net/wsBMW/
		도산우리예절원	http://cafe.daum.net/dosanyaewon/
		고령군향토문화학교	http://www.grhms.com/
		선비촌	http://www.subichon.net/
		안동예절연구원	
		안동예절원	
		안동예절학교	http://www.admanner.co.kr/
		우리예절연구회	http://cafe.naver.com/ouretiquette/
		유빈차명상에절교육원	http://www.yoobin.net/
경남	10	(사)예종원	http://www.busanculture.or.kr/
		부산전통문화원	http://cafe.daum.net/yejongwon/
		청학동고목당예절학교	http://www.gomokdang.co.kr/
		청학동명륜학당	http://www.hakdang.com/
		청학동명심서당	http://yyh7042.web-bi.net/bbs/htm/
		청학동 수신정	http://www.susin.co.kr/
		청학동서당 예절학교 청소년수련원	http://www.chunghak.net/
		청학동 선비학교 지산관	http://www.jisanschool.com/
		청학동예절학교 선비서당	http://www.sunbeeschool.com/
		청학동예절학교 청림서당	http://www.chunglim.org/

충북	1	청주예절원	
충남	3	공주도령서당	http://www.doryoung.com/
		양지서당	http://www.yangjischool.kr/
		웅진예원	
전북	5	경화궁 서당 (인원서당)	http://www.yejeol.com/
		남원서당	http://www.nwseodang.com/
		선비문화체험관 우리누리	http://www.sunbi21.com/
		운봉 공안서당	http://www.cheonghaktong.net/
		전북예절원	http://cafe.naver.com/nw480/
강원	1	김봉근의 청학동예절학교	http://www.ichunghak.com/
제주	1	제주예절원	

<부록 2> 연도별 예절서 발간 내역

(연도별 저자명 가나다순)

No.	연도	제목/저자/출판사
1	1955	1. 국민도의연구회 편, 『실천 국민예법』, 서울 문교사
2	1958	1. 성달제, 『의례전서』, 일광출판사
3	1959	1. 여원사 편, 『현대여성생활전서』 제8권
4	1960	1. 최옥자, 『에티켓』, 수도여자사범대학출판부
5		2. 학원사출판국 편, 『사교예의전서』, 학원사
6	1961	1. 이종철, 『생활예절』, 태백출판사
7	1964	1. 문교부, 『예절기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8		2. 정충량·삼중당 편, 『현대여성라이브러리』 3권 여성과 에티켓, 삼중당
9	1965	1. 이인희 엮음, 『현대인의 에티켓 -매력예의 초대』, 수학사
10	1966	1. 신태민, 『에티켓선생 상·하』, 정음사
11		2. 전혜영, 『현대여성에티켓』, 구미서관
12	1967	1. 김인곤, 『예절도의』, 향문사
13	1968	1. 정충량, 『여성과 에티켓』, 삼중당
14	1969	1. 서문당편집국, 『새생활대백과사전』 1-8, 5권. 에티켓·사교·서한·교양, 서문당
15		2. 정충량, 『(원색)현대여성백과사전』 1-8, 2권 사교·에티켓, 삼중당
16		3. 황진옥, 『교제에티켓선생』, 불이출판사
17	1970	1. Roosevelt. Eleanor, 『에티켓 독본』, 동아일보사
18	1971	1. 세일즈트레이닝센터 편, 『모범점원:점두판매의 열쇠』, 박우사
19		2. 조기홍·박경자, 『생활교육(기초편)』, 신구문화사
20		3. 戸川エマ 저:이선구 역, 『삶의 즐거움 :예절,교양,자녀교육의 지침』
21		4. 황진옥, 『교제에티켓선생』, 송인출판사
22	1972	1. 모은숙, 『에티켓 편지투』, 오름출판사
23		2. 문교부, 『생활예절』, 문교부
24		3. 전제곤, 『경찰관의 에티켓』, 대한경찰문제연구소
25	1973	1. 신태양사, 『현대인의 인생론』 1-8, 8권 인생과 에티켓, 신태양사
26		2. 전혜영, 『현대 여성 에티켓』, 대일출판사
27		3. 정몽화, 『예절』, 형설출판사
28	1974	1. 삼성출판사편집국, 『(생활인을 위한)에티켓 백과』, 삼성출판사
29	1975	1. 김복길, 『생활 속의 의례』, 성문각

30		2. 중앙문화사편집부, 『새여성생활대백과』 1-8, 6권 에티켓·사교·의례·서한, 중앙문화사
31	1977	1. 범양사 편, 『새 여성 생활 대백과』 1-8, 7권 의례·교양·에티켓, 범양사
32		2. 태극출판사 편, 『(원색)여성생활대백과』 1-10, 4권 에티켓·미용·서한·예능교습, 태극출판사
33	1978	1. 임종철·강국진, 『직장예절』, 한글기계화촉진회
34	1980	1. 금성출판사, 『현대생활백과대사전』 1-6, 6권 미용, 에티켓, 꽃꽂이, 금성출판사
35		2. 전희정, 『현대인의 테이블매너』
36	1981	1. 박상두, 『서양사교예법』, 일조각
37	1982	1. 대한민국 문교부, 『기본생활습관 지도자료』, 문교부
38		2. 아리오사, 『사랑받는 신입사원』, 아리오사,
39		3. 이덕무, 『생활의 예절』, 민족문화추진회
40	1983	1. 김창훈, 『서양식 에티켓과 테이블 매너』, 샘터사
41	1984	1. 백아성, 『현대인의 에티켓』, 춘추각
42		2. 안지영, 『현대를 사는 생활예절』, 양영각
43		3. 중앙일보사편, 『사랑실습: 미혼여성이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에티켓-매너』, 중앙일보사
44		4. 평화출판사편, 『영미인의 매너』, 평화출판사
45	1985	1. 삼성출판사 편집국, 『생활 예절·교양』, 삼성출판사
46		2. 청람예절편집위원회편, 『청람예절』, 경찰대학
47	1986	1. 삼산 정일, 『예절교육이 훌륭한 교사』, 보이스사
48	1987	1. 계몽사편집부, 『(계몽사 여성백과)홈토피아』, 계몽사
49		2. 원종익, 『가정생활의 에티켓』, 녹원출판사
50		3. 원종익, 『남녀교제의 에티켓/ 행복한 만남과 데이트』, 녹원출판사
51		4. 이원택, 『편지와 예절 : 편지쓰기와 생활예절의 기본지침서』, 춘추각
52	1988	1.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생활예절교육과 어머니의 역할』, 경상남도교육위원회
53		2. 공군사관학교, 『예절과 의전』, 공군사관학교
54		3. 국회사무처, 『해외여행편람 1988』, 국회사무처
55		4. 김득중·유송옥·황혜성,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협회
56		5. Diana, 『사랑받는여성을위한생활백과, 8 생활예절 교양』, 삼성이데아
57		6. 법무연수원, 『생활예절』, 법무연수원
58		7. 염규윤, 『직장예절』, 미래문화사
59		8. Post, Elizabeth L, 『서양식 예절』, 한국브리테니커회사
60	1989	1. 국회사무처, 『해외여행편람 198』 9, 국회사무처

61		2. 김영국, 『여성의 화술과 에티켓』, 산업교육센터
62		3. 남상민, 『한국전통혼례』, 한국예절문화원
63		4. Eleanor Boykin 지, 김영만 편역, 『에티켓 사전』, 을유문화사
64		5. 최림렬, 『여성과 예문』, 문경출판사
65	1990	1. 강신항·정양완, 『어느 가정의 예의범절』, 정일출판사
66		2. 신양순, 『센스있는 직장여성 에티켓 ABC』, 태웅출판사
67		3. 최성호, 『대학예절』, 문현사
68		4. 한국일보사, 『당신의 에티켓 백과 : 신예기』, 한국일보사
69		5. 홍남석·문서관, 『현대인의 생활예절』, 세세
70	1991	1. 大久保麗子 지, 한국생산성본부 역, 『여사원이 지켜야 할 에티켓』, 한국생산성본부
71		2. 맹태균, 『직장여성의 매너와 에티켓』, 녹원출판사
72		3. 손인수, 『한국인의 가정교육』, 문음사
73		4. 조선일보사, 『우리말의 예절』, 조선일보사
74		5. 한국여성교양학회, 『생활예절』, 양서원
75		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76	1992	1. 김길원, 『(재가불자가 알아두어야 할) 불자예절과 의식』, 불광 출판부
77		2. 박용수, 『예절과 인사』, 사회과학출판사
78		3. 세명문화사편집부, 『여성의 매너와 에티켓』, 세명문화사
79		4. 예절교육편찬위원회, 『생활예절교육』, 학문사
80		5. 이청림, 『예절:예는 자기완성에의 길』, 진화당
81		6. 전례연구 위원회 편, 『우리의 생활예절』, 성균관
82		7. 제주도북제주교육청, 『생활예절』, 제주도북제주교육청
83		8.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공편, 『우리 말의 예절 : 화법의 실제와 표준』, 조선일보사 출판국
84		9. 최기원,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국제인의 교양예절』, 밀알
85	1993	1. 김득중, 『생활예절 이렇게 한다』, 교문사
86		2. 김옥희, 『생활예절』, 양서원
87		3. 성균관출판부, 『청소년을 위한 생활예절』, 성균관출판부
88		4. 양우당, 『(여성백과)미즈, 7권 세계의 요리(식사예절마당);16권 생활예절·직장예절마당』, 양우당
89		5. 이경애, 『성공의 비결은 에티켓에서』, 일신서적출판사
90		6. 이형철, 『국제매너 & 회화법』, 김영사
91		7. 인천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 『기본생활예절지도자료:고등학교용』,
92		인천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
93	8. 인천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 『기본생활예절지도자료:중학교용』,	
		인천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

94		9. 충청남도교육청, 『가정관리 교육관 실습지도서/ 가족관계, 식의주 관리, 전통예절, 생활예절, 여가선용, 심성도야』, 충청남도교육청 10. 한정혜, 『세계가정요리전집6. 상차림과 식탁의 매너와 에티켓』, 양우당
95	1994	1. 기업문화연구팀, 『(고객만족과 친절서비스를 위한) 직장인의 예절』, 현대미디어
96		2. 김중겸, 『작은예절 큰보람』, 오성출판사
97		3. 김진익, 『직장인의 생활 에티켓』, 한국능률협회
98		4. 김진익, 『(21세기인의 인프라) 신시대 신예절』, 한국능률협회
99		5. 김창훈, 『국제화 생활 에티켓』, 백록
100		6. 류탁영, 『현대인의 예절』, 석정
101		7. 모경준, 『생활예절가이드』, 일신서적출판사
102		8. 배영기·순남숙, 『결혼문화와 예절』, 학문사
103		9.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 『기본생활예절교육』,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
104		10. 삼성해외지역연구소, 『서울에서 온 플레이보이 과장: 삼성 해외주재원들이 몸으로 배운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21세기 북스
105		11. 서자원, 『서자원의 일본 에티켓』, 한뜻
106		12. 안순진, 『안순진 에티켓 교실』, 자유문학사
107		13. 이종태, 『자신있는 한국인, 프라우드 코리아(비즈니스맨 에티켓)』, 비북스
108		14. 전통예절편찬회, 『한국의 전통예절』, 전통의레실천운동본부
109		15. 호텔신라 서비스 교육 센터, 『현대인을 위한 국제 매너』, 김영사
110	1995	1. 강영숙, 『누구나 알아야 할 생활예절』, 문학아카데미
111		2. 광주광역시 교육청, 『세계인의 생활 에티켓』, 광주광역시 교육청중등장학과
112		3. 국제 P.T.P.한국본부 국제친선연구원, 『지구촌의 예절』, 국제P.T.P.한국본부
113		4. 김시황, 『한국 인사 예절』, 중문출판사
114		5. 김정옥, 『김정옥선생의 예절교육: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 세계화』, 정우사
115		6. 김진익, 『(세계로 미래로) 지구촌 신예절』, 깊은사랑
116		7. 나카무라 보이치로 저: 안영훈역, 『(이런 사원들이) 성공하는 사원들이다』, 한국능률협회
117		8. 논산문화원, 『전통예절』, 논산문화원
118		9. 대전광역시 교육연구원, 『현대인의 바른 예절: 초중고 예절 교육자료』, 대전광역시 교육연구원
119		10.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바른예절 밝은 사회』,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20		11. 인천광역시, 『의전편람』, 인천광역시
121		12. 장운현, 『예절이 경쟁력이다: 프로비즈니스맨을 위한 직장예절 가이드』, 21세기 북스18
122		13. 조선일보사; 국립국어연구원, 『(만화로 익히는) 우리말의 예절』, 고려원미디어
123		14. PHP 연구서 저: 김기민 편역, 『비즈니스 기본론 114: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둡시다: 하이테크시대의 직장학 메모』, 행담

124		1.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절교실:초등학교 예절교실 운영자료』, 광주광역시 교육청
125		2. 국회사무처 국제국,국회의전편람 1997』, 국회사무처
126		3. 김대식, 『예절이야기』, 하나로
127		4. 김두현, 『예절과 의전』, 반
128		5. 김창훈, 『에티켓과 테이블 매너즈』, 샘터사
129		6. 김태희 편:김동연 그림, 『시가호칭 처가호칭 :꼭 알아야 할 우리말 바른예절』, 작가정신
130		7. 김한권, 『성공하는 직장인의 53가지 예절』,조선일보사출판국
131		8. 남상민, 『예절학』, 박영사
132	1996	9. 대전광역시교육청, 『바른 마음 바른 행동 ; 신 명심보감』, 대전광역시교육청
133		10. 문화체육부, 『바른말 고운말』, 문화체육부
134		11. 심양제중조선어학교, 『심양고려호텔생활과 레절』, 료녕민조출판사
135		12. 이인숙, 『이인숙의 해외여행 매너여행:국제매너강사 이인숙의 이문화 엿보기』, 한국 능률협회
136		13. 이정우 외저, 『생활예론』,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37		14. 임희규·최덕경·최혜정, 『생활예절:현대인을 위한 교양 필독서』, 동문사
138		15. 전통예절연구회, 『관혼상제는 이렇게』, 신나라
139		16. 조선일보사, 국립국어연구원 공편, 『우리말의 예절 상·하』, 조선일보사
140		17. 최정화, 『남을 알면 세계가 내 편이다(국제 에티켓)』, 조선일보사출판본부
141		18. 총무처, 『지구촌의 예절과 문화』, 총무처
142		1. 김세광, 『매너도 경쟁력이다』, 한뜻
143		2. 김득중, 『실천예절개론』, 교문사15
144		3. 김시황, 『한국예절문장』, 학민문화사
145		4. 김한권, 『인터넷세대의 에티켓』, 한솔미디어
146		5. 테브라 벤턴 저: 최수민 역, 『(87명의 빅맨들이 가르쳐 주는)석세스 바이블 (비즈니스 에티켓)』, 삶과 꿈
147		6. 류재봉, 『호칭과 지칭예절』, 예영커뮤니케이션
148	1997	7. 박연차·남성희, 『생활예절』, 학문사
149		8. 서근석, 『알기 쉬운 국제 매너 : 한국인의 자존심 국제 매너로 살린다』, 고려서적
150		9. 시사정책연구소 편집부, 『프로토콜 매뉴얼 : 비즈니스맨을 위한 국제의례의 이해와 범례』, 시사정책연구소
151		10. 야구청재, 『예절교육의 시기』, 수학사
152		11. 이종태, 『(국제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세계 문화 뛰어넘기』, 더난출판사
153		12. 정영숙·권수에 공저, 『예절교육』, 양서원
154		13. 조기홍 외, 『예론』,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55		14. 진경옥, 『(비즈니스맨과 신입사원을 위한) 신바람 직장예티켓』, 벤처북
156		15. Pincus, Marilyn저·장희경 역,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예절』, 용안 미디어
157	1998	1. 경상북도교육청, 『밝은생활예절』, 경상북도교육청
158		2. 김득중, 『가정생활과 예절』, 교문사
159		3. 김득중, 『사회생활예절』, 교문사
160		4. 김진익, 『(21세기인의 인프라)신예절입문:대학생을 위한 예절 총서』, 수정당
161		5. 박양문, 『한국인의 예절보감』, 좋은글
162		6. 박종원, 『(읽으며 배우는)직장예절』, 한현사
163		7. 오성환, 『직장예절』, 형설출판사
164		8. 이정우, 『생활문화와 예절, 제3판』,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65		9. 전통예절연구회, 『가례보전』, 풀잎문학
166	1999	1. 강영자, 『생활문화와 예절』, 교육과학사
167		2.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글로벌 예티켓』,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68		3. 김득중 외, 『국제생활과 예절』, 교문사
169		4. 동아일보사, 『매너가 경쟁력이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실전 예티켓 123』, 동아일보사
170		5. 문학회, 『예절을 바로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을파소
171		6. 원용희, 『(글로벌) 예티켓』, 자작나무
172		7. 이선희, 『글로벌시대의 국제 매너와 예티켓』, 한울출판사
173		8. 이영조, 『최신 예티켓 백과』, 사사연
174		9. 이형철, 『글로벌 예티켓 & 글로벌 매너 : 세계화 시대의 국제 감각』, 에디터
175		10. 조현건, 『성공한 사람의 바른 예절』, 미주리코알프
176		11. 정태윤, 『올바른 예절』, 문경출판사
177		12.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어른을 모시는 예절 :예법 실천규범 등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78		13. 한국전통의례연구회, 『가정의례대전』, 일송미디어
179		14. 행정자치부, 『남녀공무원의 기본 예티켓』, 행정자치부
180	2000	1. 김효영, 『공직생활과 예절』, 교문사
181		2. 김창훈, 『국제예절과 생활예티켓』, 샘터
182		3. 남도편집부편, 『신입여사원이 알아야 할 120가지 직장생활가이드』, 남도
183		4. 북천화랑저(기타가와 가즈로저) 정태원역, 『예절은 상품이다』, 태동출판사.
184		5. 박정준 외, 『관광과 서비스』, 대왕사
185		6. 박종원, 『직장예절』, 학현사
186		7. 박준형, 『볼프강의 글로벌 비즈니스 예티켓』, 1-2, 김영사
187		8. 오성환, 『직장예절 개정판』, 형설출판사

188		9. 우혜영, 『사회인의 직장예절』, 학문사
189		10. 유한준, 『어린이 예절 : 바르게 배우는 기본 예의 범절』, 대일출판사
190		11. 윤여빈, 『우리예절 바로 알기』, 느티나무
191		12. 원용희, 『국제화 시대를 위한 생활 에티켓 : 에티켓은 인격이다』, 흥경
192		13. 이병갑 주해, 『(정본)명심보감 :한문도 배우고 예절도 익히고』
193		14.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새천년 새전북인의)생활예절』, 전북농업기술원 농촌 지원과 생활개선
194		15. 정주영, 『서비스예절』, 학문사
195		16. 직업생활연구회, 『정보사회의 직업윤리와 예절』, 학문사
196		17. 최정화, 『(영어와 함께 익히는 매너) 매너 나의 경쟁력이다』, 조선일보사
197		18. 태리월드먼 저, 김희정 옮김, 『초보에서 프로까지 :성공을 위한 올바른 통화 기법 : 전화예절』, 지원북클럽
198		19. 홍운선, 『Click(클릭) 네티켓: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 에 티켓 A to Z』, 중앙 M&B
199		1. 김기태,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취업가이드와 직장예절을 중심으로』.대왕사
200		2. 김득중, 『사회생활과 예절』, 교문사
201		3. 김신연, 『전통생활예절』, 민속원
202		4. 김영준, 『예절실무클리닉』, 대왕사
203		5. 김충기, 『관광예절서비스실무론』, 대왕사
204		6. 엄기원, 『청소년의 참여절』, 예문당
205	2001	7. 우리누리글 이희탁그림, 『민족의 멋 전통예절』, 중앙M&B
206		8. 원용희,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두남
207		9. 이미선, 『적극적으로 때로는 당당하게』, 무한
208		10. 이희천, 『(밀레니엄 시대의) 매너와 에티켓』, 남두
209		11. 임혜경, 『신세대를 위한 예절 길라잡이』, 호미
210		12. 채용식, 박재완, 주영환 공저, 『매너학』, 학문사
211		13. 한홍렬, 『생활예절과 국제매너』, 인간사랑
212		14. 황금두너편집부여성, 『예절 백과 : 결혼을 앞둔 여성의 지침서』, 황금두너
213		1. 권상조, 『(새천년) 생활예절』, 영한
214		2. 김경석, 『미국의 문화 : 에티켓』, 한국문화사
215		3. 김덕경, 『직장인의 예절』, 형설출판사
216		4. 김세환, 『친절과 에티켓』, 학문사
217	2002	5. 김시황, 『예절용어사전』, 푸른사상
218		6. 김영경, 『향기나는 매너 감동주는 서비스』, 호미
219		7. 김은희 외, 『예절과 서비스』, 대왕사
220		8. 박준형, 『나는 매일 매너를 입는다』, 한울
221		9. 박혜숙 글·이현희 그림, 『셋별이랑 한별이의 사회 예절 배우기:예절동화』,

222		대교출판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문화시민, 2002 월드컵과 함께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23		11. 윤대순, 『관광과 예절』, 백산출판사
224		12. 이현주, 『예절과 이미지: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비밀-캔디의 예절』, 종문화사
225		13. 자운영 글·박정훈 그림,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예절 58가지』, 능인
226		14. 정영주, 『나도 때로 사랑스런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다 -매너가이드-』, 느낌이 있는 나무
227		1. 공동체 의식개혁 국민운동 서사시 협의회, 『아름다운 우리 예절』, 공동체 의식개혁 국민운동 서사시 협의회
228		2.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언어순화. 생활 속의 언어 예절』, 교육인적자원부
229		3. 구영본,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 형설
230		4. 김기인, 『직장생활과 예절』, 형설출판사
231		5. 김정신 외, 『생활예절』, 한국여성교양학회예절연구회편 신정
232		6. 김진익, 『친절서비스 감동교육 : 고품격 삶의 연출 : 현대 에티켓 토털 서비스 명강』, 한글
233		7. 몽당연필 글 ; 김정아그림, 『해찬이의 학교예절배우기:예절동화』, 대교출판
234		8.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시민 에티켓』,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235		9. 박종원, 『직장예절』, 학현사
236		10. 박춘옥, 『한국인의 생활예절』, 신지서원
237		11. 백옥련,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레의범절』, 사회과학출판사
238	2003	12. 송희준, 『정통(올바른)의 민족예절』, 예원사
239		13. 안재우, 『전통예절의 현실적 이해』, 경남
240		14. 예하미디어편집부, 『(요점)언어예절/A학점 취득을 위한 제2의 교과서』, 예하 미디어
241		15. 윤길근, 『6세까지의 예절교육과 자녀의 자립』, 조형사
242		16. 이재식·권호, 『전통예절과 윤리』, 시간의 물레
243		17. 이정우 외, 『(삶의 질 향상을 위한)현대생활매너』,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244		18. 이정우 외, 『지구촌 생활문화와 국제매너』, 양서원
245		19. 임혜경, 『생활속의 매너 ABC』, 새로운 사람들
246		20. 장경옥·정지윤, 『(국제화 시대의)에티켓과 매너』, 남두도서
247		21. 정주영, 『서비스 예절과 매너;글로벌 에티켓』, 대왕사
248		22. 정태윤, 『인간직업 그리고 생활예절』, 문경
249		23. 최해규 김동은, 『삼촌형님, 사촌 아저씨?: 현대 기독교인을 위한 예절생활 지침』, 다인아트
250		24.Casperson, Dana May저 조은경역, 『과위에티켓-당신의 성공을 좌우하는 보

		이지 않는 힘,미래의 창
251	2004	1. 구헌철·고종원, 『국제매너와 에티켓』, 대왕사
252		2. 기호익, 『(선배 따라 잡기)직장생활과 예절』, 두남
253		3. 김성후, 『현대생활의 예절과 국제매너』, 문영사
254		4. 김시중 외, 『매너 클리닉』, 대왕사
255		5. 김영기, 『중국 비즈니스 에티켓이 전략이다』, 새로운 사람들
256		6. 김은희, 김명숙, 조주은, 『현대사회와 국제매너』, 두양사
257		7. 김정신 정해은 조희진, 『유아예절교육』, 교문사
258		8. 김진익, 『(세계로 미래로) 글로벌 매너 에티켓』, 한글
259		9. 동광출판사편집부, 『생활예절과 가정의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절과 관례,혼례,상례,제례』, 동광출판사
260		10. 서정기, 『세계 속의 한국예절』, 살림
261		11. 원용희, 『글로벌 에티켓 365일』, 효일
262		12. 유종현, 『세계화와 글로벌 에티켓』, 한울
263		13. 이무영, 『예절바른 우리말 호칭』, 여강출판사
264		14. 이상진, 『예·세계인의 에티켓』, 민속원
265		15. 임남곤, 『가례의범』, 정음문화원
266		16. 전영우, 『언어예절과 인간관계』, 역락
267		17. 지재희, 『(전통 예절의 법전)의례』, 자유문고
268		18. 채용식·박재완·주영환, 『매너학』, 학문사
269		19.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컨설팅센터, 『글로벌 에티켓』,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컨설팅센터
270		20. 황금두뇌 편집부, 『(여성을 위한)생활예절』, 황금두뇌
271	2005	1. 꿈 프로젝트 저, 신현호 옮김, 『고품격 삶을 즐겨라 : 깔끔한 매너로 매력을 높이자』, 북플래너
272		2. 김태경, 『차와 예절』, 홍익출판사
273		3. 도영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직장예절』, 영진미디어
274		4. 박한표, 『글로벌문화와 매너』, 한울출판사
275		5. 오성환·김금수, 『글로벌시대의 비즈니스 경쟁력(직장예절)』, 형설출판
276		6. 정영지, 『(부모와 교사를 위한)기본생활예절교육』 / 창지사
277		7. 조영대, 『글로벌 에티켓과 매너의 실천매뉴얼』, 백산
278		8. 조효순, 『한국전통생활문화와 현대예절』, 일지사
279		9. 최기중, 『매너지수(MQ)가 성공을 좌우한다.』, 경덕출판사
280		10. 최태영·하명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281		11. 한국전통의례연구회, 『전통관혼상제』, 일송미디어
282		12. 한국전통의례연구회, 『(현대)가정의례』, 일송미디어

283		1. 구영본·신미경, 『글로벌 시대의 차문화와 에티켓』, 형설출판사
284		2. 김미자·김봉철·채수경, 『성공하는 리더의 글로벌 매너』, 백산출판사
285		3. 김석진, 『한국전통예절』, 학문사
286		4. 김영호·김성금·이희천, 『(글로벌 시대의)매너와 에티켓』, 갈채
287		5. 김혜영, 『비즈니스와 생활예절』,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88		6. 도영태·김순희, 『직장예절=Etiquette & Manners』, 영지미디어
289		7. 로리 버켄캠프·스티븐 C. 앳킨스 저, 김희진 옮김, 『매너좋은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세계로 통하는 상위 1%의 매너 교육!』, 명진출판사
290		8. 박준형, 『글로벌 에티켓을 알아야 비즈니스에 성공한다』, 북 솔레
291		9. 배근희·최배영·김길령, 『청소년예절교육』, 새로운 사람들
292		10. 사회인 매너연구회 편·최미숙 옮김, 『매너:매너의 고수는 공자의 마음도 움직인다』, 이가서출판사
293		11. 생활예절연구회, 『예절과 관혼상제』, 매일출판
294		12. 서철현·도은숙, 『비즈니스 매너』, 대왕사
295		13. 아오키 테루저 저 ·김창남 옮김, 『(첫눈에 나를 돋보이게 하는)직장인의 6가지 비즈니스 매너』, 다난출판사
296		14. 양희옥, 『현대사회와 예절실무』, 형설출판사
297	2006	15. 예림출판사 편집부, 『예절과 가정의례 ; 꼭 알아 두어야 할 생활 속의 예절과 관혼상제』, 예림출판사
298		16. 예하미디어편집부, 『(요점) 언어예절』, 예하미디어
299		17. 이동희, 『매너와 이미지메이킹』, 형설출판사
300		18. 이승영·홍석화, 『받고자 하는 대로, 예절은 사랑과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글로벌 시대의 에티켓ABC』, 보명
301		19. 이정우, 『(글로벌리더를 위한)국제매너와 생활문화』, 양서원
302		20. 이정학·장태서·박명옥, 『현대 사회와 매너』, 기문사
303		21. 장경호, 『국제매너와 서비스』, 창미
304		22. 조남옥외, 『생활과 매너』, 인간사랑
305		23. 조성기, 『양반 가문의 쓴소리』, 김영사
306		24. 최배영·김길령, 『청소년 예절 교육』, 새로운 사람들
307		25. 최장수, 『직장생활예절 성공가이드북』, 국문사
308		26. 최혜수·서진우·김지윤, 『매너 & 서비스 실무』, 대왕사
309		27. 하진영, 『매너와 에티켓(영화로 보는)』, 파워북
310		28. 한국여행발전연구회, 『세계화시대의 에티켓과 마인드』, 대왕사
311		29. 한국전,통의례서식 연구회, 『(종합)가정의례서식; 한국 전통예절과 각종생활 서식 150종 수록』, 일송미디어
312		30. 홍석환·김연선, 『맛있는 국제테이블매너 이야기』, 신성출판사
313	2007	1. 강인호, 『(열린 세상) 글로벌 매너와 문화』, 기문사

314		2. 금한나, 『이미지와 국제 매너』, 한울출판사
315		3. 기호익, 『(디지털시대의)직장생활과 예절』, 대진
316		4. 김성후·김인구·정순선, 『현대 비즈니스 매너』, 문영사
317		5. 김세웅·강명욱, 『글로벌시대의 이해와 국제 매너』, 피스북
318		6. 김영호, 『국제예절과 고품격 매너』, 갈채
319		7. 김인옥, 『가정의례연구』. 한국학술정보
320		8. 김정, 『예절교육』, 이화문화출판사
321		9. 김정신 외. 『(교사를 위한) 유아 차 생활 예절』, 교문사
322		10. 김학수, 『삼강오륜의 의미와 글로벌 에티켓』, 높은오름
323		11. 농촌진흥청, 『고객 상담 친절하게 정성으로』. 농촌진흥청
324		12. 리건송, 『국제례의와 생활례질』, 조선출판물수출입사
325		13. 민혜성·이승연, 『글로벌 에티켓과 매너』, 대왕사
326		14. 박남조, 『우리생활 우리예절』, 신아출판사
327		15. 박민영, 『매화의 언어 ; 스피치 & 매너』, 태학사
328		16. 박희수. 『결혼, 준비와 전통예절』
329		17. 서대원, 『글로벌 파워매너』, 중앙북스
330		18. 알렉스 J. 파커 저, The First CS Academy, 『(대한민국) 10대 매너 백서』, 황금여우
331		19. 엘리자베스 보노 저, 박혜영 옮김, 『매너를 입어라』, 넥서스 biz
332		20. 원용희, 『국제 비즈니스맨을 위한 에티켓 : 63개국 비즈니스 핵심포인트』, 비즈프라임
333		21. 원용희, 『글로벌 시티즌을 위한 에티켓 : 세계 시민, 세계 리더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에티켓』, 자작나무
334		22. 이웅규 외, 『(인간애와 봉사정신이 담긴)예절과 서비스』, 대왕사
335		23. 전계현. 『가례초해 ; 주자가례전통예절』. 예지각
336		24. 정영순, 『글로벌 매너 요럴뎌 요렇게』, 영진미디어
337		25. 직업윤리와 예절교재편찬회, 『직업윤리와 예절』, 형설출판
338		26. 차석빈, 『펼치는매너, 보이는 매너, 국제화시대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예절이나 매너』, 현학사
339		27. 최기중, 『매너와 이미지메이킹』, 백산출판사
340		28. 최성이, 『필드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베스트 매너 스트레칭 (골프매너)』, 개미와 배짱이
341		29. 사테 남질 저·이안나 옮김, 『몽골의 가정예절과 전통』, 민속원
342		30. 하지영, 호선영, 『(영화로 배우는)매너와 에티켓』, 파워북
343		31. 허은아, 『눈치코치 직장매너』, 지식공작소
344	2008	1.국가정보원, 『(글로벌 시민의 문화코드) 세계 각국의 터부와 에티켓』,국가정보원

345		2. 김영준·김숙희,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새로미
346		3. 대한노인신문사 노인문제연구원, 『한국전통예절과 충효사상』, 대한노인신문사
347		4. 류은주·조지순·김지연, 『(품위있는 매너를 위한)이미지 관리론』, 훈민사
348		5. 모운숙, 『(성공하는 리더의) 생활 에티켓』, 일신서적출판사
349		6. 문보영, 『국제예절』, 대왕사
350		7. 생활예절연구회, 『생활예절과 관혼상제』, 사사연
351		8. 서대원, 『글로벌 파워 매너:개인의 품격을 완성시키는 기술』, 중앙북스
352		9. 오성환, 『직장예절 ; 글로벌커리어·리더십 개발』, 형설출판사
353		10. 우잉취엔 저, 김락준 옮김,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맨처음 가르침 49가지』, 웅진싱크빅
354		11. 윤창화·고명석, 『불자생활백서;불자들이 꼭 알아야 할 79가지 에티켓』, 민족사
355		12. 이병도 외, 『세계인의 에티켓문화』,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356		13. 이숙연 외, 『미용서비스론』, 청구문화사
357		14. 이정우 외, 『(고품격)현대생활 매너』, 양서원
358		15. 이준재·허윤정, 『(서비스산업 서비스 프로듀서의)서비스 매너 연출』, 대왕사
359		16. 이창일, 『정말 궁금한 우리예절 53가지 젊은 철학자가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이야기』, 위즈덤하우스:예담
360		17. 조건진, 『(매너 골프로 승부하는 비즈니스라운드』, 웅진리빙하우스
361		18. 조돈봉, 『한국인의 예절』, 온북스
362		19. 차성란, 『글로벌시대의 생활 예절』, 시그마프레스
363	2009	1. 김성식, 『(e시대의)정보통신윤리』, 영진닷컴
364		2. 김영호, 『(최신)국제예절과 고품격 매너』, 남두도서
365		3. 니시테 히로코 저, 정세환 옮김, 『비즈니스 매너 마음을 움직이는 성공 전략』, 팜파스
366		4. 매너 연구회 편저·최미숙 옮김, 『매너;작지만 강력한 성공 테크닉 78』, 이가서
367		5. 미래서비스아카데미, 『글로벌 매너』, 새로미
368		6. 미래서비스아카데미, 『매너와 이미지 : 품격있는 매너 길라잡이』, 새로,미
369		7. 미래서비스 아카데미, 『베이직 & 서비스 매너:품격있는 매너 길라잡이』, 새로미
370		8. 민혜성·이승연, 『글로벌 에티켓과 매너』, 대왕사
371		9. 손일락, 『비즈니스 매너의 이해: 성공적인 면접과 취업의 길라잡이』, 한울
372		10. 손일락, 『에티켓을 먹고 매너를 입어라 Bigman book』, 웅진리빙하우스
373		11. 서진우·김옥기, 『(power-up) 이미지 메이킹 & 국제매너』, 대왕사
374		12. 아야마 마사코, 『일본비즈니스 매너』, 제이앤씨
375		13. 연안이씨전국대중회, 『(고대소설)박씨부인전과 알아두어야 할 생활 예절』, 연안이씨 전국대중회

376		14. 원용희, 『(국제화시대의)생활에티켓 365』, 백산
377		15. 원용희, 『서비스 에티켓』, 대왕사
378		16. 윤용수·전완경 편역, 『이슬람의 에티켓과 금기』, 주류성출판사
379		17. 이재평 외, 『(실천하고 행동하는)군대윤리』, 글로벌
380		18. 이정원외, 『(매력이 넘치는) 매너 Plus』, 교문사
381		19. 이정학, 『(성공적인 삶과 멋진 삶을 위한) 에티켓과 매너』, 기문사
382		20. 조소은·이민희, 『미용서비스와 예절』, 에듀컨텐츠 B&B
383		21. 조인환, 『국제매너』, 대왕사
384		23. 조항범, 『말이 인격이다』, 위즈덤하우스:예담
385		23.. 주디스 바우먼 저, 김인석 옮김, 『마지막 도넛은 먹지마라 : 클라이언트를 움직이는 비즈니스 에티켓』, 꿈앤들
386		24. 페키 포스트;피터포스트 저·노은정 옮김, 『성공하는 사람의 비즈니스 에티켓』, 민음인
387		25. 한국예절문화원, 『(성공으로 이끄는)생활예절과 에티켓 ; 자신의 가치를 2배로 높여 주는 현대생활예절』, 미래출판기획
388		26. 한국예절문화원, 『(현대생활에 맞는)관례·혼례·상례·제례』, 미래출판기획
389		27. 홍두표,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한울 출판사
390		1. 강영문, 『무역과 매너의 만남』, 우용
391		2. 계수경·이유리, 『글로벌 매너』, 효일
392		3. 권봉숙, 『글로벌 매너와 인성』, 서원미디어
393		4. 블랑쉬 에버트 저·신주혜 옮김, 『남편이 아내에게 꼭 지켜야 할 11가지』, 지식여행
394		5. 블랑쉬 에버트 저, 신주혜 옮김, 『아내가 남편에게 꼭 지켜야 할 11가지 에티켓』, 지식여행
395		6. 손일락, 『굿 매너 굿 라이프』, 세창미디어
396		7. 육군사관학교,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매너』, 육군사관학교
397	2010	8. 이기홍·이경미, 『글로벌 문화와 매너』, 한울출판사
398		9. 이명진, 『와인 레스토랑 이용 에티켓』, 대왕사
399		10. 이병갑 주해, 『(정본)명심보감 ; 한문도 배우고 예절도 익히고』, 학민사
400		11. 이희천, 『(글로벌 시대의) 국제매너』
401		12. 주영애·김선주·박상욱,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 플러스』, 신정
402		13. 장윤수, 『예절의 이해』, 강
403		14. 장윤수, 『현대사회와 예절문화』, 양서원
404		15. 장중의, 『예절편람; 생활속의 예절 중심』
405		16. 책만드는 사람 엮음, 『관혼상제와 생활예절』, 은진미디어
406		17. 한국여성교양학회 예절연구회, 『글로벌 서비스 매너』, 정